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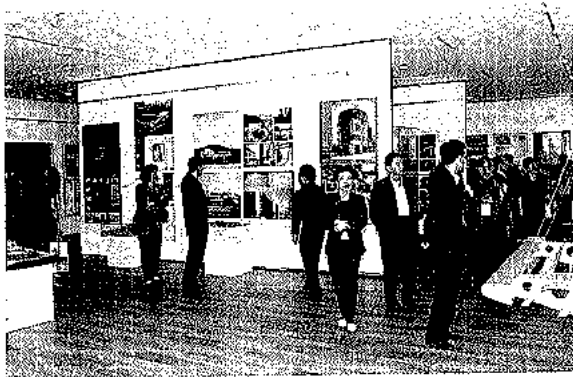
건축사

2000 **01** vol. 369

- 신년사__ 새천년의 출발선상에서
- 특집__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Ⅰ)
- 작품노트__ 건축문화의 해, 건축가들의 해
- 법령__ 건축시법중개정법률안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대관안내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새로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 평(198㎡)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5만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 건축과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아카시아 건축상 특별전시회 안내

건축사회관 Architect's Gallery에서는

1999. 12. 14 ~ 2000. 1. 31까지

아시아 각국 우수 건축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5회 아카시아건축상

(ARCASIA Awards 1999 - 2000)의

부문별 수상작과 출품작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건축인과 학생 그리고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관문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 지점)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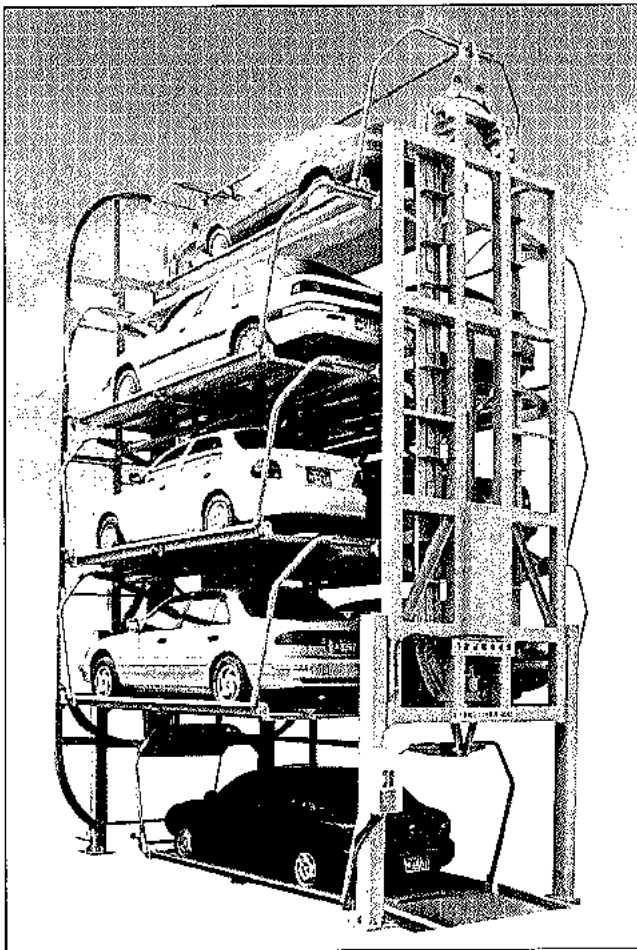
인정서번호 대구 제1-15호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適者生存의 無限競争時代

"자신 있습니다"



사양

모 델 명	수용대수	외형치수(전폭, 전장, 소요높이)		
SKY PARK8	8대	4570	5990	9370
SKY PARK7	7대	↓	↓	8480
SKY PARK6	6대	↓	↓	7590
SKY PARK5	5대	↓	↓	6700

※뉴그린저금 수령가능 ※탄타이플 내장형도 개발중

[자매품] P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대구 제4-25호)



since 1989

21세기 신주차개념의 주차기 전문회사

창공駐車産業

CHANG GONG INDUSTRY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ADD:#756-271, Gum Sa Dong, Dong Gu, Tae Gu, Korea

TEL:(053)956-8838(代) FAX:(053)984-1998 E-mail:cgp21@chollian.net

H·P:011-507-8838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더 이상의 고품질은 사치다!!

더 이하의 저가격은 덤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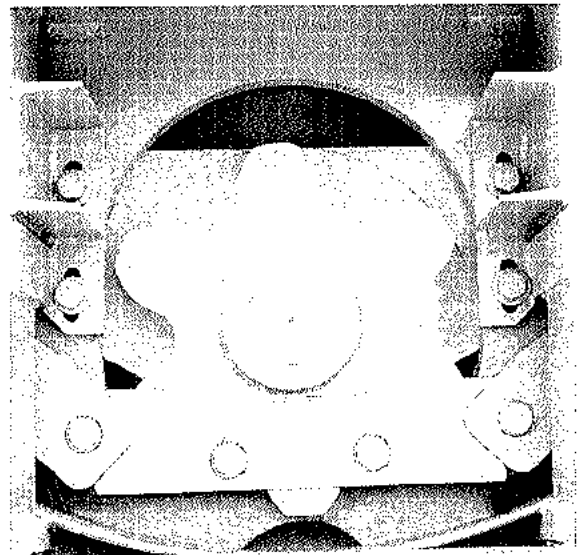
더 이하의 주차기 폭은 불가능하다!!

세계최소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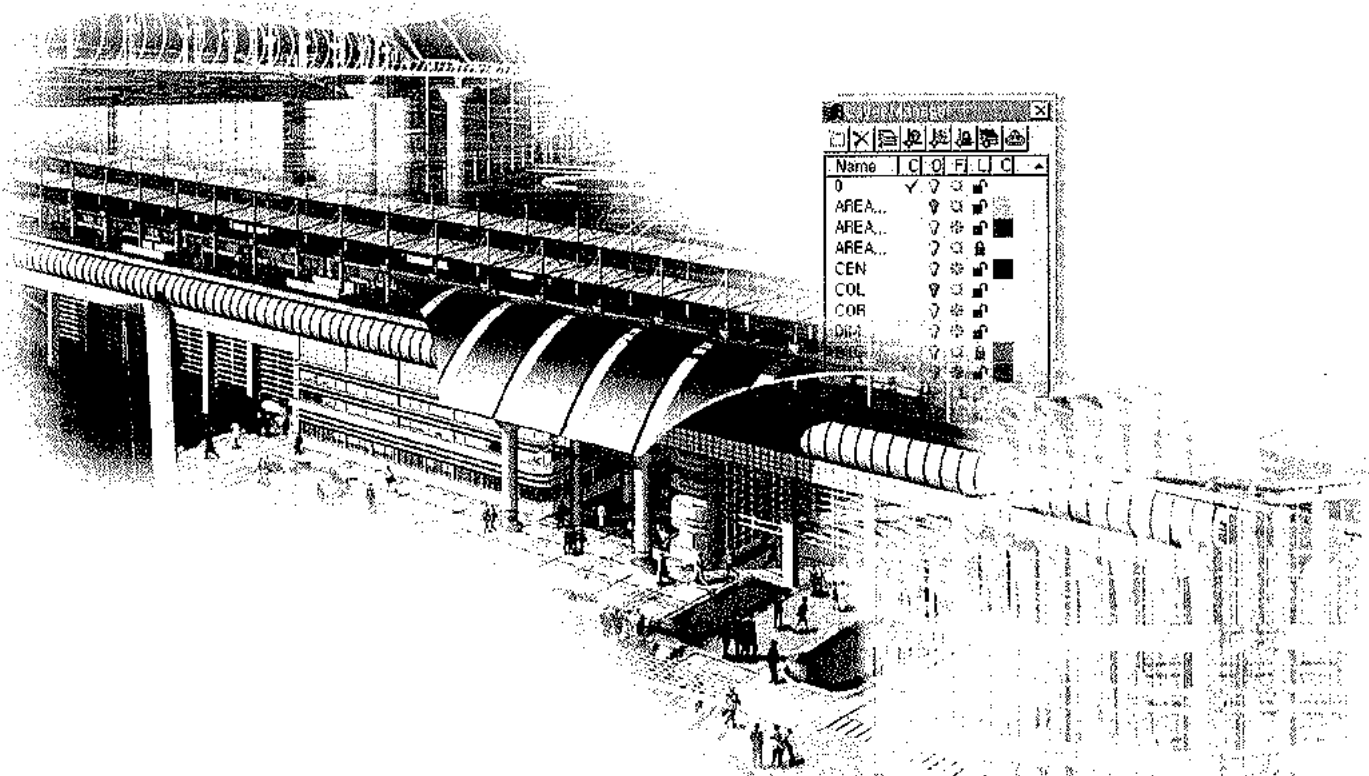
이렇게 다릅니다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직결구동의 新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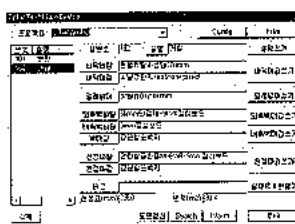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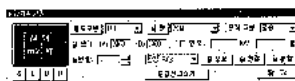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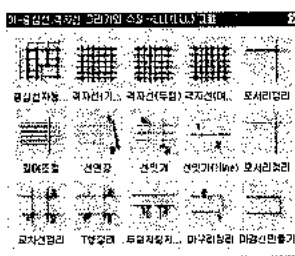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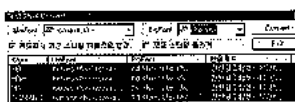
따라서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려졌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었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수출상담 및 전국대리점 모집중



21세기의 건축설계 "CADPOWER"가 책임집니다.

건축인의 관심과
사용자의 요구를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10년동안 개발한
CADPOWER는
건축인 모두의 것입니다.



CADPOWER 21은 오랜 경력의 건축설계전문가 집단과 최고의 프로그래머 그룹이 만나 태어났습니다. 실무자 중심의 개발환경과 사용자 정의에 의한 CAD 환경구축으로 설계업무에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CADPOWER 21의 특징

- 건축 실무자 중심 개발
- 작업의 효율성
- 명령어의 통합
- 단순화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배려
- 새로운 모습(새기능)

CADPOWER 21의 세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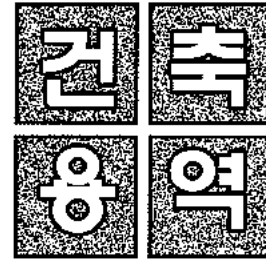
- 계획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재 작성
마감재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공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key(타프로그램과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주) 건 캐 드
GAUN CAD co., LTD.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7-6 감목빌딩 4F

Tel: 584-6480 Fax: 587-1803

http://www.ait.co.kr e-mail: info@gauncad.ait.co.kr



소장님 ! 많이 힘드시죠 !!!
 이제 **에이디프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남지사 02-3462-2638



서초지사 02-562-2638



인천지사 032-471-2638



부산지사 051-743-2637



광주지사 062-234-2637



경기지사 032-698-2638



충북지사 0337-881-2638



대전지사 032-698-2638



울산지사 052-257-2637

ADpro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용역전문회사입니다

- 설계수주는 했는데 설계인원이 모자라십니까?
-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아직 그려야할 도면이 많습니까?
- 아르바이트로 외주를 처리하자니 신뢰가 안가고 납품도면의 질이 걱정 됩니까?
- 외주처리 이후의 설계변경시 도면 수정이 걱정 됩니까?
- 건축, 구조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설비도면, 구조계산, 내역서,투시도 등의 모든 업무를 한군데서 툰키로 처리하고자 합니까?

ADpro가 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계획설계 이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합니다.
-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규모 업체입니다.
- 독자적인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첨단 하드웨어와 통신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귀사의 컴퓨터시스템을 원격으로 컨트롤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설계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싸고, 빠르며, 도면품질이 뛰어납니다.
- 특별히 아파트설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illegible]

Figure 1-1 shows the Yamaha Disklavier software interface. The interfac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On the left, there's a 'Keyboard' section with a piano roll and a 'Keyboard' section with a keyboard diagram. In the center, there's a 'Performance' section with a 'Performance' button and a 'Performance' button. On the right, there's a 'Performance' section with a 'Performance' button and a 'Performance' button. The interface is in Korean.

[illegible][illegible][illegible]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21.6 攝氏(71.08°F)

Figure 1 shows the Windows XP desktop environment. The 'Control Panel' window is open, displaying the 'Appearance and Themes' section. The 'Appearance' tab is selected, showing a preview of the desktop with a blue background and a taskbar. Below the preview, there are settings for 'Visual Style' (set to 'Windows XP') and 'Taskbar and Start Menu' (set to 'Standard'). The 'Taskbar and Start Menu' section is expanded, showing options for 'Taskbar' and 'Start Menu'.

File Edit View Window He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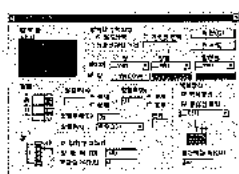


Figure 1: A diagram showing the layout of a 100m x 100m plot divided into four 50m x 50m quadrants. The quadrants are labeled: '포서리 거리' (Porsori distance) in the top-left, '인양거리' (Inyang distance) in the top-right, '산양거리' (Sanyang distance) in the bottom-left, and '간혹거리' (Ganhok distance) in the bottom-right. A scale bar at the bottom indicates 0 to 100m. A legend at the bottom right shows a box labeled '거리' (distance) and a box labeled '거리' (distance).

Figure 1 displays the output of the 8086P microcontroller, showing five data channels (Data A, Data B, Data C, Data D, and Original Data) over time. The waveforms are captured on an oscilloscope, showing digital signals. The control panel below the waveforms includes a 'DATA' label, a 'MODE' dropdown menu set to 'HEX', and a 'YELLOW' button.

Figure 1 shows a 2x4 grid of images illustrating the degradation of a handwritten digit '4'. The columns represent different degradation conditions: '原图' (Original), '加噪' (Add Noise), '加椒盐' (Add Salt and Pepper), '加模糊' (Add Blur), and '加运动' (Add Motion). The rows represent the original image and the image after adding motion blur. The images show the effect of each degradation condition on the digit '4'.

[illegible]

Figure 1 shows a screenshot of a Korean word processing application. The interface includes a menu bar with options like '파일(F)', '편집(E)', '삽입(I)', '도움말(H)', '도구(T)', '창(W)', and '도움말(H)'. The toolbar contains various icons for file operations, text formatting, and drawing. The main text area displays a document with Korean text, and a large black rectangular redaction box is visible. The status bar at the bottom indicates '페이지 1 / 1' and '줄 1 / 1'.

시작 화면 디자인기

음성

색상 선택

SYM

색상 선택

색 입

지정해미(AS)

FDD0

간격 200

인도 45

확인 취소

[illegible][illegible]

The screenshot shows the Windows 95 'System Properties' dialog box, 'Hardware' tab. The 'Device Manager' list on the left shows 'Sound, Video, and Game Controllers' expanded, listing 'Creative Sound Blaster 16' and 'Creative Sound Blaster 16 (Secondary)'. The 'Properties' dialog for 'Creative Sound Blaster 16' is open, showing the 'General' tab with 'Sound Blaster 16' selected. The 'Sound Blaster 16' control panel icon is visible in the bottom right corner.

Figure 1 shows the '타자교정' (Typing Correction) window. It contains three main sections: '문장식 정보' (Sentence Style Info), '교정 방법' (Correction Method), and '타자교정 방법' (Typing Correction Method). Each section has a dropdown menu for selecting a style or method and a corresponding size selection dropdown. The '문장식 정보' section includes '문장식' (Sentence Style) and '문장식 크기' (Sentence Style Size). The '교정 방법' section includes '교정 방법' (Correction Method) and '교정 방법 크기' (Correction Method Size). The '타자교정 방법' section includes '타자교정 방법' (Typing Correction Method) and '타자교정 방법 크기' (Typing Correction Method Size). The window also features a menu bar with '파일(F)', '편집(E)', '도움말(H)', and '프로그램(P)', and buttons for '확인' (OK) and '취소' (Cancel) at the bottom.

The screenshot shows a Windows 95 desktop with a taskbar at the bottom. The taskbar includes the Start button, a clock showing 11:58 AM on 11/11/95, and several open application icons: Internet Explorer, Notepad, and a Command Prompt window.

The Command Prompt window is active, displaying the following text:

```

C:\WINDOWS\SYSTEM32>
C:\WINDOWS\SYSTEM32>dir
Volume in drive C: has no label.
Serial number of the volume is 1000000000.
Directory of C:\WINDOWS\SYSTEM32

.                <DIR>
..               <DIR>
cmd              11/11/95  11:58a   <DIR>
con              11/11/95  11:58a   <DIR>
control          11/11/95  11:58a   <DIR>
csrss            11/11/95  11:58a   <DIR>
dcomcnfg         11/11/95  11:58a   <DIR>
devmgmt          11/11/95  11:58a   <DIR>
eventvwr         11/11/95  11:58a   <DIR>
fxpapi           11/11/95  11:58a   <DIR>
fxpapi2         11/11/95  11:58a   <DIR>
fxpapi3         11/11/95  11:58a   <DIR>
fxpapi4         11/11/95  11:58a   <DIR>
fxpapi5         11/11/95  11:58a   <DIR>
fxpapi6         11/11/95  11:58a   <DIR>
fxpapi7         11/11/95  11:58a   <DIR>
fxpapi8         11/11/95  11:58a   <DIR>
fxpapi9         11/11/95  11:58a   <DIR>
fxpapi10        11/11/95  11:58a   <DIR>
fxpapi11        11/11/95  11:58a   <DIR>
fxpapi12        11/11/95  11:58a   <DIR>
fxpapi13        11/11/95  11:58a   <DIR>
fxpapi14        11/11/95  11:58a   <DIR>
fxpapi15        11/11/95  11:58a   <DIR>
fxpapi16        11/11/95  11:58a   <DIR>
fxpapi17        11/11/95  11:58a   <DIR>
fxpapi18        11/11/95  11:58a   <DIR>
fxpapi19        11/11/95  11:58a   <DIR>
fxpapi20        11/11/95  11:58a   <DIR>
fxpapi21        11/11/95  11:58a   <DIR>
fxpapi22        11/11/95  11:58a   <DIR>
fxpapi23        11/11/95  11:58a   <DIR>
fxpapi24        11/11/95  11:58a   <DIR>
fxpapi25        11/11/95  11:58a   <DIR>
fxpapi26        11/11/95  11:58a   <DIR>
fxpapi27        11/11/95  11:58a   <DIR>
fxpapi28        11/11/95  11:58a   <DIR>
fxpapi29        11/11/95  11:58a   <DIR>
fxpapi30        11/11/95  11:58a   <DIR>
fxpapi31        11/11/95  11:58a   <DIR>
fxpapi32        11/11/95  11:58a   <DIR>
fxpapi33        11/11/95  11:58a   <DIR>
fxpapi34        11/11/95  11:58a   <DIR>
fxpapi35        11/11/95  11:58a   <DIR>
fxpapi36        11/11/95  11:58a   <DIR>
fxpapi37        11/11/95  11:58a   <DIR>
fxpapi38        11/11/95  11:58a   <DIR>
fxpapi39        11/11/95  11:58a   <DIR>
fxpapi40        11/11/95  11:58a   <DIR>
fxpapi41        11/11/95  11:58a   <DIR>
fxpapi42        11/11/95  11:58a   <DIR>
fxpapi43        11/11/95  11:58a   <DIR>
fxpapi44        11/11/95  11:58a   <DIR>
fxpapi45        11/11/95  11:58a   <DIR>
fxpapi46        11/11/95  11:58a   <DIR>
fxpapi47        11/11/95  11:58a   <DIR>
fxpapi48        11/11/95  11:58a   <DIR>
fxpapi49        11/11/95  11:58a   <DIR>
fxpapi50        11/11/95  11:58a   <DIR>
fxpapi51        11/11/95  11:58a   <DIR>
fxpapi52        11/11/95  11:58a   <DIR>
fxpapi53        11/11/95  11:58a   <DIR>
fxpapi54        11/11/95  11:58a   <DIR>
fxpapi55        11/11/95  11:58a   <DIR>
fxpapi56        11/11/95  11:58a   <DIR>
fxpapi57        11/11/95  11:58a   <DIR>
fxpapi58        11/11/95  11:58a   <DIR>
fxpapi59        11/11/95  11:58a   <DIR>
fxpapi60        11/11/95  11:58a   <DIR>
fxpapi61        11/11/95  11:58a   <DIR>
fxpapi62        11/11/95  11:58a   <DIR>
fxpapi63        11/11/95  11:58a   <DIR>
fxpapi64        11/11/95  11:58a   <DIR>
fxpapi65        11/11/95  11:58a   <DIR>
fxpapi66        11/11/95  11:58a   <DIR>
fxpapi67        11/11/95  11:58a   <DIR>
fxpapi68        11/11/95  11:58a   <DIR>
fxpapi69        11/11/95  11:58a   <DIR>
fxpapi70        11/11/95  11:58a   <DIR>
fxpapi71        11/11/95  11:58a   <DIR>
fxpapi72        11/11/95  11:58a   <DIR>
fxpapi73        11/11/95  11:58a   <DIR>
fxpapi74        11/11/95  11:58a   <DIR>
fxpapi75        11/11/95  11:58a   <DIR>
fxpapi76        11/11/95  11:58a   <DIR>
fxpapi77        11/11/95  11:58a   <DIR>
fxpapi78        11/11/95  11:58a   <DIR>
fxpapi79        11/11/95  11:58a   <DIR>
fxpapi80        11/11/95  11:58a   <DIR>
fxpapi81        11/11/95  11:58a   <DIR>
fxpapi82        11/11/95  11:58a   <DIR>
fxpapi83        11/11/95  11:58a   <DIR>
fxpapi84        11/11/95  11:58a   <DIR>
fxpapi85        11/11/95  11:58a   <DIR>
fxpapi86        11/11/95  11:58a   <DIR>
fxpapi87        11/11/95  11:58a   <DIR>
fxpapi88        11/11/95  11:58a   <DIR>
fxpapi89        11/11/95  11:58a   <DIR>
fxpapi90        11/11/95  11:58a   <DIR>
fxpapi91        11/11/95  11:58a   <DIR>
fxpapi92        11/11/95  11:58a   <DIR>
fxpapi93        11/11/95  11:58a   <DIR>
fxpapi94        11/11/95  11:58a   <DIR>
fxpapi95        11/11/95  11:58a   <DIR>
fxpapi96        11/11/95  11:58a   <DIR>
fxpapi97        11/11/95  11:58a   <DIR>
fxpapi98        11/11/95  11:58a   <DIR>
fxpapi99        11/11/95  11:58a   <DIR>
fxpapi100       11/11/95  11:58a   <DIR>
fxpapi101       11/11/95  11:58a   <DIR>
fxpapi102       11/11/95  11:58a   <DIR>
fxpapi103       11/11/95  11:58a   <DIR>
fxpapi104       11/11/95  11:58a   <DIR>
fxpapi105       11/11/95  11:58a   <DIR>
fxpapi106       11/11/95  11:58a   <DIR>
fxpapi107       11/11/95  11:58a   <DIR>
fxpapi108       11/11/95  11:58a   <DIR>
fxpapi109       11/11/95  11:58a   <DIR>
fxpapi110       11/11/95  11:58a   <DIR>
fxpapi111       11/11/95  11:58a   <DIR>
fxpapi112       11/11/95  11:58a   <DIR>
fxpapi113       11/11/95  11:58a   <DIR>
fxpapi114       11/11/95  11:58a   <DIR>
fxpapi115       11/11/95  11:58a   <DIR>
fxpapi116       11/11/95  11:58a   <DIR>
fxpapi117       11/11/95  11:58a   <DIR>
fxpapi118       11/11/95  11:58a   <DIR>
fxpapi119       11/11/95  11:58a   <DIR>
fx
```

[illegible]

한글 한글 프로그램

한글 습합

레이어/복합/인

원 글꼴

한글

레이어

복합

확인

취소

0. 유압/수압 고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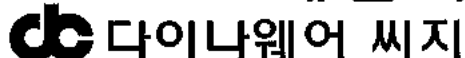
(A)의 압력

간격(A)	2400
간격(B)	600
간격(C)	150

무 인()

위 소()

IntelliARC 개발사



IntelliCAD/IntelliA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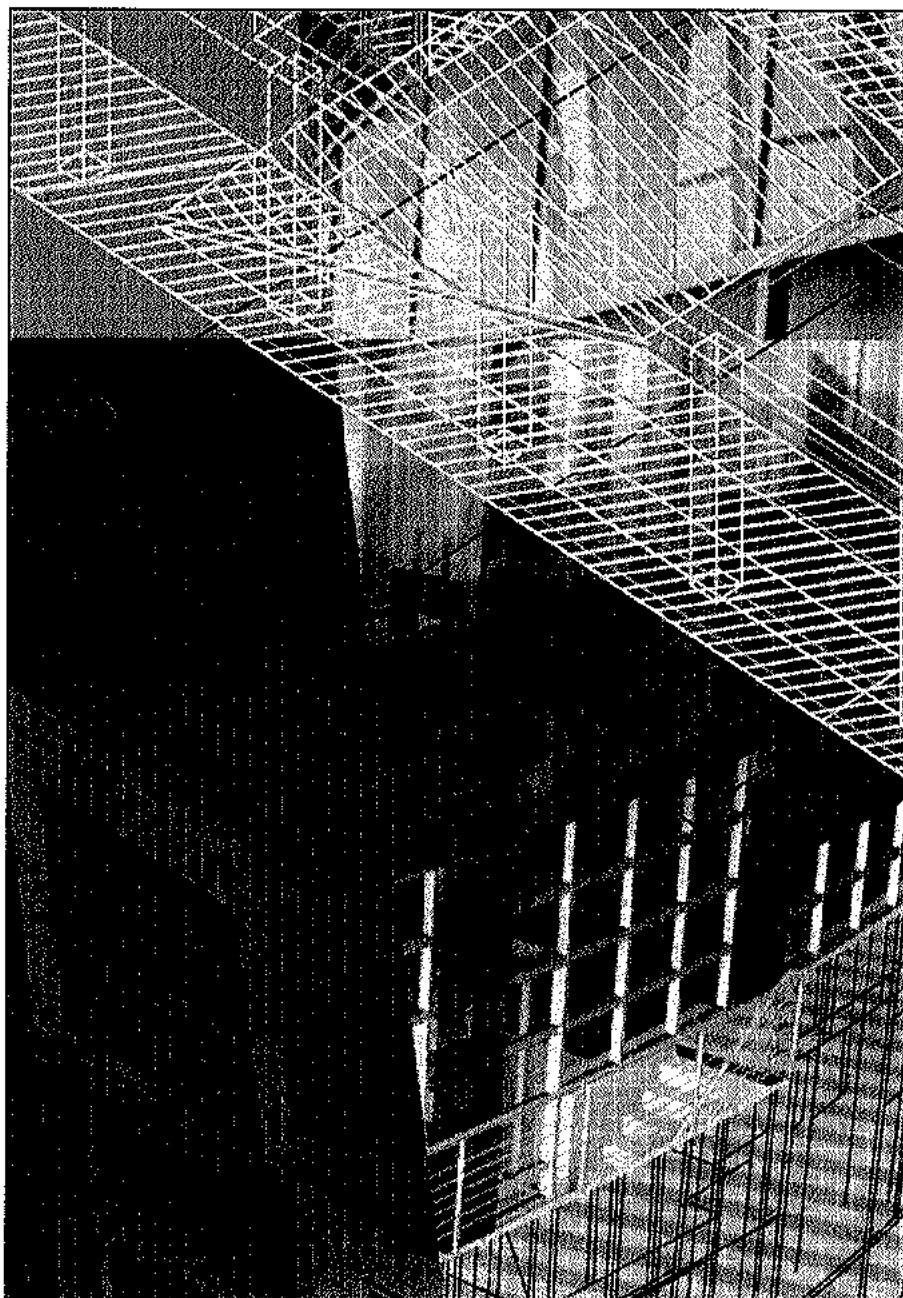


[주]인텔리코리아

http://www.icad.co.kr
TEL:02-323-0286 FAX:02-322-0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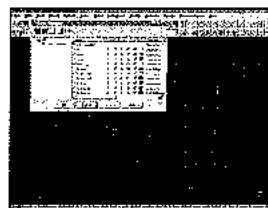
三位一體!

개념설계에서 실시설계,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 작업을 하나로 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제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 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의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3DS VIZ R2통합 패키지

ADT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가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냅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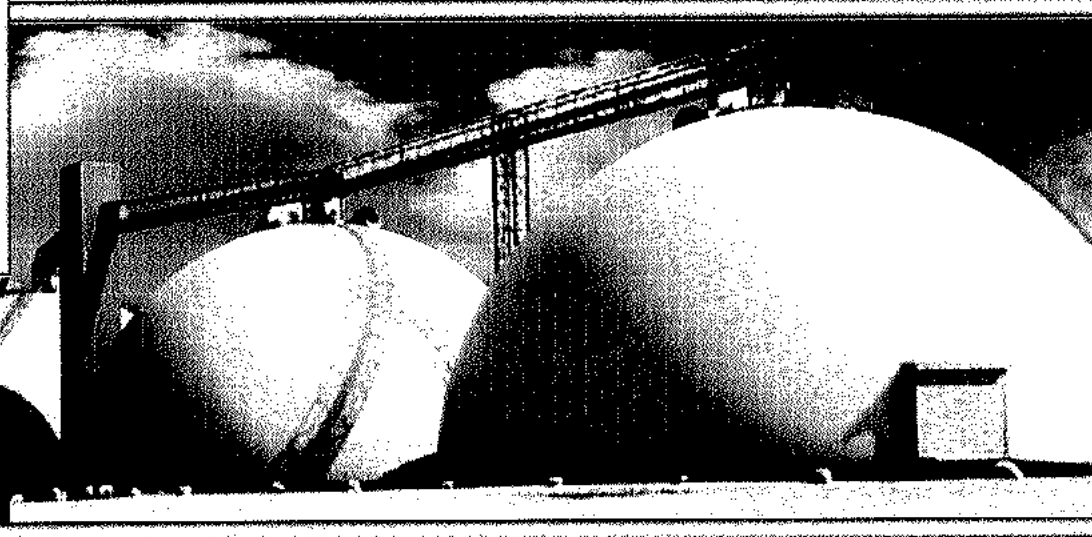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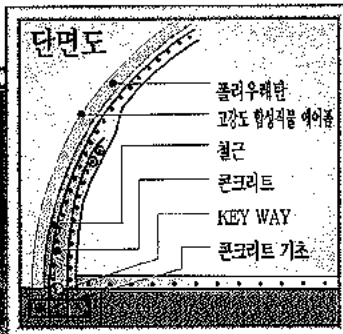
건축/엔지니어링/측량 협력업체

(주)간케트 584-6480, (주)라인테크시스템 569-1814, (주)에너텍 2271-1781, 한국씨.아이.엘(주) 515-3167

Architectural Desktop

ADT

모노돔! 왜 21세기 첨단공법인가



BULK실 대형 저장고



공장, 창고, 군막사, 학교



농수산물 대형 저장창고



실내체육관, 강당, 수영장



다세대 주택, 빌라, 아파트



교회, 테마동

모노돔은 튼튼하다, 경제적이다, 아름답다

공기 절감 50%

공사비 절감 50%

에너지 절감 65%

외벽 단열구조인 철근 콘크리트의 영구 건축물로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형태이면서도
태풍, 지진 등 자연 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시공순서



1 콘크리트 타설 (打設)



2 에어폼 시공



3 폴리우레탄/스프레이



4 철근시공



5 슛크리트시공 (強化콘크리트)



M·B·KOREA Mono Dome Building Korea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8-6 서울빌딩 4층

대표전화: 02) 566-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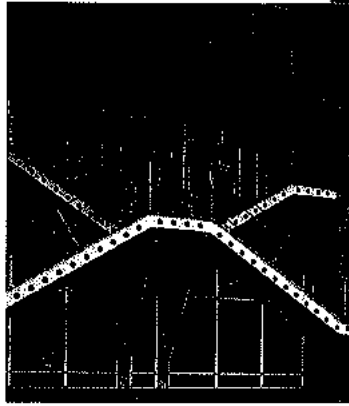
F A X : 02) 566-0723

E-Mail: mbkorea@unite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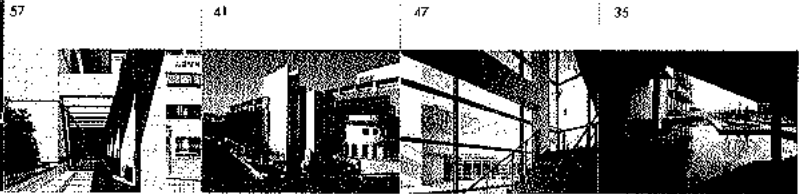
http://www.domearch.co.kr

(주) 엠·비·코리아

차례 2000 01 369호



대전시청사(박윤웅 + 이인호 작)



발행인: 이의규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jo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만: 이봉수/정문사 (02)2266-4555
 광고: (주)이두컴 (02)518-6856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신년사

이의규

12

특집 /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Ⅱ)

제도 제도를 바꿔야 건축이 산다; WTO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이관영	16
국제환경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건축의 생존전략	민경식	22
교육 건축교육 개혁의 방향: 학부 5년제 문제 있다	이상현	24
시장개방 더 이상의 보호막은 없다.	김태환	27
해외진출 건축디자인 경쟁력이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를 좌우한다	허승희	30
건축만평	유원재	33
회원작품		
한동대학교 효암관	최동규	34
에이 피 엠	이관직	38
고려대학교 국제관	안길원	40
일산화정빌딩	이상경	44
수협중앙회 천안연수원	김우영	46
구산타워	안명재	50
대전시청사	박윤웅 + 이인호	52
고양시립마두도서관	이강호	56
서울 YWCA	(주)정림건축	58
작품노트	건축문화의 해, 건축가족의 해	남상균
62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1)	김미상
66		
건축마당		
협회소식		70
건축계소식		72
현상설계		80
해외잡지동향		86
법령(건축사법중 개정법률안)		92
신공법		101
통계(1999년도 11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3
99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105

Newyear Address

In the Startng Point of the New Millennium	Lee Eui-Koo	12
--	-------------	----

Special Feature /

The Vis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The Only Way Out is the Revision of Regulations	Lee Kwan-Young	16
Survival Strategies for Korean Architecture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Field	Min Kyung-Sik	22
The Course for the Reform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Lee Sang-Hun	24
The Bridge Has Been Burnt	Kim Tae-Hwang	27
The Crucial Factor for Foreign Markets is Competitive Power in Architectural Design	Huh Seung-Hoi	30

Cartoon	Yoo Won-Jae	33
----------------	-------------	----

Works

Hyoam Hall in Handong University	Choi Dong-Kyu	34
Apm	Lee Kwan-jik	38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Ahn Kil-Won	40
Ilisan Hwajeong Building	Lee Sang-Kyung	44
Chunan Education Center,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Kim Woo-Young	46
Koosan Tower	Ahn Myung-Jei	50
New Taejeon City Hall	Park Yoon-Woong + Lee In-Ho	52
Madu Municipal Library of Koyang City	Rhee Kang-Ho	56
Seoul YWCA Building	Junglim Architecture	58

Design Note

The Year of Architecture, The Year for Families of Architecture	Nam Sang-Geum	62
---	---------------	----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11)	Kim Mi-Sang	66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70
Archi-net	72
Competition	80
Overseas Journal	86
Laws & Ordinances	92
New Methods of Construction	101
Statistics	103
1999 Annual Index	10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당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940 · 강북구건축사회/8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6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333-8076 · 공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3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8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8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6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3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노봉구건축사회/990-8729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389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0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903-88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152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00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22)5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5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849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3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631-873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183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6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8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6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8-4088
금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6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3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0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8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31)553-1412 · 실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8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38)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령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36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6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6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2-5501

새천년의 출발선상에서 In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Millennium

이외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 - Koo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희망찬 기운이 회원 여러분께 축복으로 내려지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신년마다 늘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올해엔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은 우리 건축사와 건축 그리고 건축계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구도는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에 의해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분야에도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속도가 붙은 전문직서비스시장 개방 및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국가간 협상은 각국 건축계에 구조변화라는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리 역시 이러한 변화의 돌풍을 비켜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내상황 또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그에따른 수요의 다양성으로 인해 건축물의 경제·문화적 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건축 기술의 선진화를 요구받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같은 상황들은 올해가 우리 건축과 건축문화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 건축계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진로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 모름지기 일년지계는 원단에 있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천년의 시작에 앞서 향후 우리의 건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벌여왔으며, 이를 통해 질곡의 과거를 거울삼아 일신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룩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21세기 문화지식산업의 시대는 이 시대 건축문화의 표상 창조라는 영원한 과제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된 능력있는 전문직능인들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의 건축계 안팎의 여러 지각변동 요인들이 우리 앞날에 짙은 안개를 드리우고 있어 방향설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첫단추부터 정확히 끼운다는 자세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의 단계적 목표와 진로를 설정해 나간다면 새시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만 거창하고 실천계획이 빈약하거나 의지가 박약하면 얼마 못가 다시금 타성에 젖어들고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들 수도 있는만큼 우리가 획구하는 목표에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한세기 우리 건축설계업계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국민 주거문화 창달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출발을 다지는 지금은 과거를 뒤돌아 보는 것 이상으로 미래의 목표와 진로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는 자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무한경쟁시대로 대변되는 새시대에 우리가 풀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특히 우리 건축설계의 선진화를 향한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따라서 협회는 새천년의 최우선 목표를 건축사 회원의 자율적·창의적 창작활동 지원과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 제고로 정해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건축설계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건축설계업계가 제도적 보호 틀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와 개방체제를 기초로 경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위 설계조직의 전문화 및 상호협력체계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정된 시장경쟁체제를 정착시켜 향후 우리건축이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험을 국내 시장에서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축관련 제도를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개선·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축문화 저변확대와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협회의 불참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대신해 순수 민간주최의 설계 부문 건축시상제도를 새로이 제정, 진정한 건축계의 제전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신인과 학생 등 일반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건축의 저변확대를 불러일으키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려 인지수준을 높이고 타 전문분야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건축사의 공익활동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축관련 정보제공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축사의 지적창작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 건축사사무소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설계도서신고제 폐지, 협회 설립 및 회원가입 자율화 등을 주요골자로 건축사법을 개정, 곧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칫 건축계가 분할되고 이합집산하는 등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협회는 우리 건축사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서비스를 강화해 더욱 결속력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중인 건축인들을 주축으로한 해외통신원제를 활성화해 급변하는 세계건축계의 동향을 보다 신속히 수집, 제공함으로써 협회의 정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 산재돼 있는 각종 건축자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정리해 회원은 물론 각 현장에서 실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에 대한 전산·정보제공체제를 확충하고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제공, 회원사의 업무전산화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건축설계와 같은 건축사의 지적창작행위를 서비스차원으로 인식해온 경향이 있어 그에따른 보상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했던 만큼, 곧 폐지될 설계도서신고제를 대신할 수 있는 건축분야의 새로운 저작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협회의 UIA가입을 통해 국가간 교류와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은 자국중심체제에서 탈피해 세계화, 개방화로 대두되는 국제사회의 신질서를 쫓고 있습니다. 경제구조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대륙별 경제블록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나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는 WTO에 의해 세계 건축체제가 재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는 실무건축사들의 단체인 우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UIA가입을 통해,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간 교류 및 협력에 있어 우리 건축사의 의무와 권리를 대변하고, 나아가 한국건축과 건축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이밖에도 세계화시대 국제적 자격기준에 맞는 건축사 양성을 위해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성 건축사에 대해서는 실무훈련과 계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기준 문제로 우리 건축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업무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역시 철저한 사업준비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미 우리 건축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새천년 새출발에 임함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쌓아온 저력과 그 가능성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으로서 지난 세기동안 일구어 온 탄탄한 기초 위에 단계적 실천노력을 더해 우리가 회구하는 목표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새천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건축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결하게 가꾸어 온 우리 건축사의 긍지가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다함께 올해의 풍성한 수확을 목표로 한국건축의 새바람을 일으킵시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Ⅱ)

The Vision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대망의 21세기 새천년 첫장이 열렸다.

지난 한세기 역사의 격랑과 함께 해온 한국건축은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미래 설계에 나서고 있다. 많은 이들이 눈앞에 펼쳐진 새시대는 정보와 문화가 주도하는 글로벌시대가 될 것이라지만 과연 인류 자신들조차도 앞날의 변화 발전 속도를 정확히 예측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한국건축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변신을 서둘러야 하는 것인가?

더욱이 오늘날 대륙간 경제블럭화와 무역장벽의 철폐 등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들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재촉하는 가운데 세계 건축계에 새로운 체제개편의 바람이 불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건축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건축의 경제 문화적 가치의 극대화를 요구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 안팎의 흐름들이 우리 앞날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이 삶의 그릇이자 사회적 자산으로서 그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지나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반영물로서 건축문화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건축인들의 절대적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새천년의 출발점에 선 한국건축은 오늘의 자기모습을 진지하게 뒤돌아보는 자세로부터 시작해 발전적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21세기 한국건축의 비전'을 주제로 특집 시리즈를 마련해 건축 각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다각적 시각에서 오늘의 우리건축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천년의 비전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주>

1999년 12월호

경제 / 위기의 다음은 기회이다 - 김준한
경영 / 경영혁신의 새모델 - 백준홍
역사 /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정체성 - 이상해
사회 / 건축의 현실, 현실속의 건축 - 정기용
문화 / 문화의 세기 - 윤호미

2000년 1월호

제도 / 제도를 바꿔야 건축이 산다 - 이관영
국제환경 /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건축의 생존전략 - 민경식
교육 / 건축교육개혁의 방향:학부 5년제 문제있다 - 이상현
시장개방 / 더 이상의 보호막은 없다 - 김태환
해외진출 / 건축디자인 경쟁력이 해외시장진출의 성패를 좌우한다 - 허승희

제도를 바꿔야 건축이 산다; WTO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The Only Way Out is the Revision of Regulations

이관영 / (주)한인 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Young

머리말

WTO 체제아래서의 시장통합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회계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제일 먼저 진행되었고 법무,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 체제란 한마디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는 개념으로, 누구나 국적과 인종과 언어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서비스 관련 자격기준이 문제가 될 것이어서 이들 자격제도를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소위 자격제도의 상호인정문제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건축설계서비스를 위한 건축사자격을 세계기준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권장기준에 관한 UIA 협정(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이다.

1994년 마라케쉬 협정에 의하여 WTO 체제가 시작되면서 UIA는 국가간 건축사자격을 상호인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하 PPC(실무위원회)를 통한 3년 여의 연구 끝에 1999년 6월 북경총회에서 이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준이 채택됨으로써 국가간 건축사제도 상호인정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당장이라도 이미 시장 개방이 약속된 정부조달에 의한 설계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민간부분에서 발주하는 설계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건축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의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WTO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계시장 통합에 있다면 역시 낙관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자격문제는 유독 세계 각국의 자격제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른 자격제도를 보유하고 우리 나라와 일본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제도와 UIA기준을 비교해 본다면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구분이 애매하고 교육연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수련제도가 없으며, 전문지식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방식이 불합리하고 계속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등록의 갱신제도가 미비하다는 등 한마디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그들의 독특한 교육제도를 장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시 세계화에는 못미친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1995년에 미국과 제휴하여 미국제도와 거의 같은 건축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고, 특히 1999년도 북경 UIA 총회 개최국의 자격으로 앞에 언급한 UIA 협정을 기초하는 데 간사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해결해 놓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대응책마련에 부심하여 오던 중, 최근에 이르러서는 건교부를 중심으로한 대책반 운영, 건축관련단체간의 공동협력에 의한 대응방안연구가 진행되어 이미 이에 대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도개선 방향

(1) 교육제도의 개혁-5년제 건축학 전공과정

현행 교육제도와 같이 건축학(Architecture)과 건축공학(Building Engineering)의 구분이 애매한 교육과정은 장차 국제적으로 건축사자격을 물론 기술사자격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건축사는 물론이거니와 구조분야에 있어서도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건축학과 건

“

현행 교육제도와 같이 건축학(Architecture)과 건축공학(Building Engineering)의 구분이 애매한 교육과정은
장차 국제적으로 건축사자격은 물론 기술사자격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기 어렵다.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 나라의 건축사는 물론이거니와 구조분야에 있어서도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축공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건축학 전공의 전일제 5년 과정이어야 하고, 4+2, 4+3 등의 학제를 통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인증제도의 실시

UIA기준은 모든 교육과정이 「권위있고 독립된 교육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과정인증이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이

수한 학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의 「성과지향기준(Performance Criteria)」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짜여진 것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하여 실무건축사, 교육계, 학교기구, 학생기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축학교육인증원(가칭)과 같은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각 교육기관은 학생의 입학요강에 인증여부를 명시함으로써 건축사를 지망하는 입학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사 자격에 대한 국제 권장기준인 UIA와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구 분	UIA권장기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교육	· 전일제 5년간 · 건축학 프로그램 전공 · 동등 이상의 교육 인정	· 교육기간 연장 · 교육과정내용
교육 프로그램 인증	· 독립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이어야 할 것	· 교육인증기구 설립 · 인증방법과 절차
실무경험 / 훈련 / 수련제도	· 2년(3년 이상으로 권장) 이상 수련 기간 · 합리적인 수련 프로그램 요구 · 4개부분 25개 항목 · 수련 상황 기록 보관 · 이수 사항 증명	· 수련제도 관리기구 설립 · 수련제도 프로그램 개발 · 기록양식 개발 · 기록, 관리, 증명
전문능력의 증명	· 인증을 받은 5년제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칠 것을 전제로 다양한 시험방식 인정 · 시험의 내용	· 특별한 언급 없음 · 시험관리기구 · 시험자격을 개선 · 시험의 수준
등록/면허/자격		· 등록전담기구의 설립 · 면허와 등록의 일원화에 따른 일태의 변화 · 등록갱신과 갱신주기, 조건
업무와 일태	· 건축사의 업무영역 · 업을 하기위한 건축사사무소제도와외의 관계	· 업무의 세분화, 규격화-합리적 계약 기능 · 일태의 변화
계속교육	· 어느정도의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가 · 계속교육의 내용 · 계속교육 이수증명의 방법, 주체 · 면허와 등록의 관계(갱신제도 도입여부)	· 계속교육의 내용 · 계속교육이수 증명방법, 주체
경과조치		· 기존건축사에 대한 인정방법 · 시험 대기자에 대한 경과조치

인증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하여 실무건축사, 교육계, 학교기구, 학생기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축학교육인증원(가칭)과 같은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각 교육기관은 학생의 입학요강에 인증여부를 명시함으로써 건축사를 자망하는 입학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9

(3) 수련제도의 개선

UIA는 정규교육 이수자로서 2년 이상(앞으로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 중이지만)의 수련기간(Internship)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이 수련기간은 정규교육과정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또한 4개분야 25개 항목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건축사 업무가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 뿐 아니라 실무분야에서의 실습(on the job training)을 중요시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수련감독자에 대한 규정이 없이 단지 5년의 실무경력만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학계열에 속하는 기술자자격 보유자에 대한 건축사 자격시험 수험자격부여, 건축관련기관(공무원이나 건설회사 등)에서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UIA기준에 비하여 필요 없이 기간만 길 뿐 동등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제도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도 구체적인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격을 가진 수련기관(주로 설계사무소)과 수련감독자를 선정하며, 수련일지를 확인·관리·증명하는 기구로서 수련제도관리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 특히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이더라도, 5년이란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하여 단기간에 효율적인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제도 실시를 서둘러야 한다. 수련제도관리위원회는 건축사자격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등록원(가칭)내에 설치하여 실무건축사와 교육기관이 긴밀한 연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식과 능력의 증명-시험제도의 개선

UIA는 시험제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도높은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통하여 이미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시험제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건축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수험자격부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시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실무위주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

다. 기본적으로 시험시간이 길고(평균 30시간 이상) 설계분야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검증이 강조된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시험학원에서 단기교육에 의하여 암기력에 의존하거나, 하물며 설계시험조차 예상문제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모범답안을 암기하는 식의 시험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건축사등록원 안에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되, 방대한 업무와 문제출제, 채점 등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축사시험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 현재는 대한건축사협회 내의 시험관리팀이 이와 같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나, 협회가 임의 단체화할 경우 시험관리기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5) 등록제도의 개선-면허제도의 폐지

건축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하기 위한 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건축사의 명칭과 업무수행자격(혹은 면허)을 갖게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사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면허」를 받게 되고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또다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똑같이 「건축사」라고 부르면서도 「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 「건축사」와 「설계(업무)」를 할 수 없는 「건축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칭호의 독점」과 건축사의 관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격시험 합격자」라 부르고,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등록을 했을 때에 비로소 「건축사」라 부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란 칭호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 2년마다 「등록 갱신」을 의무화하여 건축사로서의 자질을 유지·발전시키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 우리제도와 다른 점은 이러한 등록제도가 사무소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상호인정이 진행되어 외국의 건축사가 우리나라

계속교육은 비단 직접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뿐 아니라 논문과 저술 등을 통한 연구발표, 강연, 강의 등을 통한 사회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건축사등록원 산하에 계속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교육 이수기록의 관리, 확인 증명은 물론 교육기회의 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아마도 건축사 개인 단위로 등록하고 참여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점은 건축사의 책임문제(보험 문제), 고용건축사에 의한 설계에서 발생하는 건축사의 의사결정권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6) 계속교육제도-건축사의 자질과 능력의 유지·발전

건축사는 자신의 자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술과 문화경향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UIA는 이러한 계속교육을 의무 제도개선(안)

분 야	개 요	비 고
1. 교육(인증)	- 5년제 건축학사 기준- (동등 학력자) - 대학건축교육에 대한 인증 (교육법/건축사법(교육부/건교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 수련제도	- 수련자격: 건축학사 (건축학교육 5년)로서 3년과정 이수 - 4년제 기준 교육 졸업자 수련제도 조기 실시(경과조치)	- 수련제도위원회
3. 시험	- 3단계에 걸친 법 개정 (2010년까지): 기존 재학생 및 졸업생 - 5년 건축학교육 및 수련제도 이수자 기준 시험(2010년)	- 건축사시험 위원회
4. 등록	- 건축사 면허와 등록을 일원화 - 등록을 하여야 "건축사" 호칭 및 업무권한 부여 (시험합격자와 구분됨)	- 건축사등록원- (KABAR)과 해 당 자치단체 건축사관리 위원회
5. 계속교육	- 건축사등록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 - 정기적 등록 갱신시 교육이수 확인	- 건축사계속교육 위 원회
6. 윤리	- 건축사의 실천적 윤리강령	- 건축사관리 위원회

화 하고 이를 등록갱신의 요건으로 삼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계속교육 역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최근에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그나마 명목상으로 존재하던 건축사보수교육과 등록 갱신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계속교육은 비단 직접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뿐 아니라 논문과 저술 등을 통한 연구발표, 강연, 강의 등을 통한 사회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건축사등록원 산하에 계속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교육 이수기록의 관리, 확인 증명은 물론 교육기회의 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상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일정과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신설되어야 할 가구를 제시해 본다. (제도개선을 위한 가구안)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조건으로서 WTO 체제에 맞는 건축사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도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러한 건축사제도는 민간단체들(NGOs)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시급하게 이러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과도기적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건축사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상설기구인 건축사위원회(가칭)의 설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가구를 통하여 건축사 관련제도가 연구되고 조정된다면 이번의 규제개혁에 따른 법 개정 결과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건축사위원회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건축사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조건으로서 WTO 체제에 맞는 건축사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제도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러한 건축사제도는 민간단체들(NGOs)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시급하게 이러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는 현행법상 건축사시험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임시 기구인 건축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면 별도의 법률제정이 없이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건축사위원회를 총괄기구로 하여 기구설치(안)에서 제시한 관련기구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우리에게 생소한 기구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건축계 전체의 사심없는 공조가 필요한 물론이거니와 한시적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동등한 건축사 자격을 갖기 위한 제도개선 이외에도 건축설계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제도로는 PQ제도의 개선과 업무보수기준의 필요성을 들 수 있겠다.

PQ제도는 UIA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설계자 선정방법의 하나인 QBS방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설계자 선정방식이다. 다만 그 심사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경우에 따라 공정하지 않은 방식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능력자만이 선정기회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게 되어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관리비가 과다하게 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건축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설계용역을 몇몇 거대한 설계사무소가 독점하게 되어 설계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젊고 능력있는 신진건축사의 활동기회를 막는 결과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닭잡는데 소잡는 도끼를 가진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격」이 지금의 PQ제도이다. 이 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부는 「설계업무보수기준」이 공정거래규정상 담합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폐지한 바 있다. 물론 설계업무보수는 설계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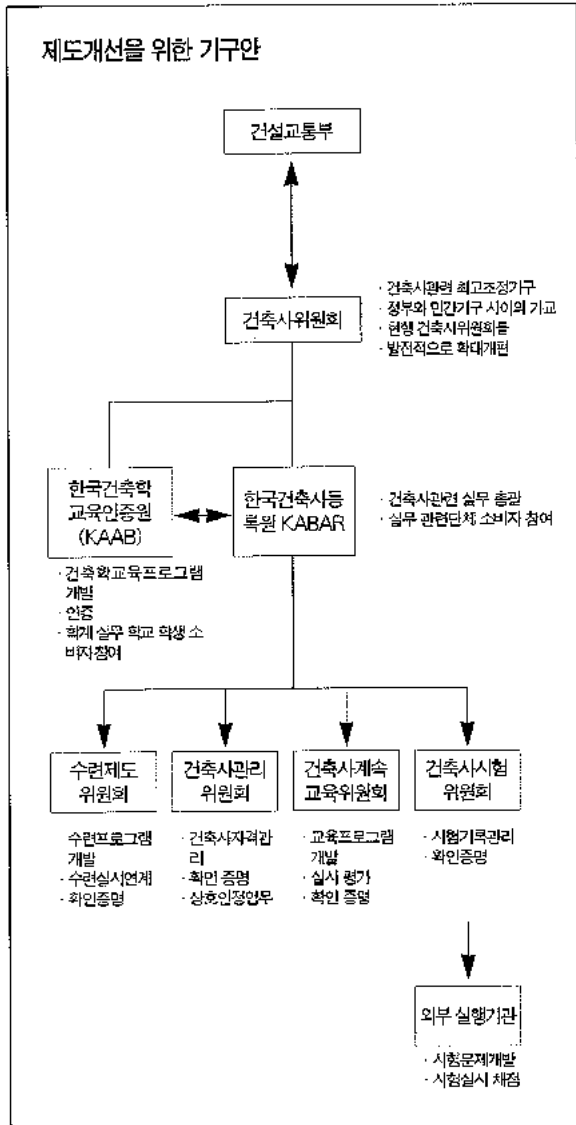
제도개선 일정표(2000~2009)

분 야	2000년개정(2001년시행)	2005개정(2006년시행)	2008년개정(2009년시행)
1. 교육(인증)	- 건축학교육인증 위원회 설치 - 2001년 건축학교육 실시		
2. 수련제도	- 수련제도위원회 설치 및 제도정비 - 조기실시방안 연구 - 경과조치 대상자 - UIA 기준 교육 이수자		
3. 시 험	- 건축사시험 위원회 - 예비시험: 과목문항비율조정 (계획25%/이론10%/구조15%/시공10%/계획+설계40%) - 자격시험: · 출제범위세분화 및 배점 조정 · 2002년 졸업생부터 기사자격에 의한 예비시험 대체 폐지	- 예비시험 대상자 구분: 건축학교육 연계 - 자격시험: 경영관리 인터뷰(신설)	- 예비시험: 완전 폐지 - 자격시험: 상호인정 기준에 동등성을 갖는 시험
4. 등 록	- 건축사등록원 설치		
5. 계속교육	- 계속교육위원회 설치 - 조기실시방안 연구		
6. 운 리	- 윤리강령 정비		

“

건축관련 단체의 가입 임의화에 따른 변화 등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작업이야 말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건축사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다.
이제 더 이상 건축설계시장은 보호받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장경제의 원칙아래 경쟁적으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기준을 「설계비를 위한 정찰요금」으로 잘못 인식해온 일부 건축사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자(소비자)가 정확한 설계비에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비하여 덜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본에서조차 정부가 업무보수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무원칙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설계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음을 깊이 음미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료적 사회구조에서 모든 예산업무가 통계나 소신에 의하지 못하고 「감사」만을 의식하여 오로지 「지침」과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설계비 산정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업무보수기준은 당연히 부활되어야 한다. 보수기준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 누구의 손에 의하여 제정되든 상관없다. 적절한 업무보수는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투자이다. 체육진흥기금이며 연극영화진흥기금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적절한 설계비의 필요성을 어찌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이란 이름으로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밖에도 새로운 세기를 맞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건축사등록을 개인중심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의 형태라든지, 설계업무의 세분화에 따른 합리적인 계약방식의 시행, 설계상의 과실보상을 위한 보험제도의 확립, 건축관련 단체의 가입 임의화에 따른 변화 등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작업이야 말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건축사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다. 이제 더 이상 건축설계시장은 보호받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건축의 생존전략

Survival Strategies for Korean Architecture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Field

민경식 / 민경식건축연구소
by Min Kyung - Sik

21c 새해 첫날의 햇살은 모든 전세계인들에게 똑같이 예나다름없이 비쳐졌고 한국은 그 햇살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지구 위 나라 중의 하나였다. 자연의 법칙은 큰 동요없이 순환되고 있음에도 미미한 인류는 그에 반해 더욱 풍요로운 21c의 삶을 구축해나가고자 떠들썩하다. 그러나 우리 한국 건축의 현실은 세계화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좀더 긴장되고 철저한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 리운드에 따른 건축시장의 개방과 UIA 기준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한국 건축의 현실점이 그러한 물리적 격동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의 주(住)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 문명의 극치인 도시의 발달을 위대하게 이룩했고, 새 시대의 요구인 정보사회 속에서 인류의 도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지대한 세계의 관심이 있다. 이러한 도시의 발달은 알게 모르게 건축가들의 건축 행위에 대한 선도적 역할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정보사회와 함께 향유될 문화사회 태두리의 도시의 미래상은 단순히 주(住) 기능만을 충족시키는 건물의 집합체의 의미를 넘어 더욱더 공적이며 원할한 유기적인 도시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앞으로 건축의 방향에 대한 첫번째의 의문을 제시한다. 어떻게 건축을 문화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게 할 것인가. 건설과 건축이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통념적 인식 아래 21c 정보·문화 시대를 맞은 우리 건축인들은 어떻게 한국의 건축(발전되어져야 하는 관념적 건축의 의미)을 문화로서 정립시킬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 99년 건축 문화의 해를 보낸 지금 다시 회고해 보게 된다.

오랜 건축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있는 유럽은 시대의 변천에 따른 철학과 예술의 조류를 적시에 건축에 응용하고 각기 조금씩 다른 유럽내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의 한 장르로서 사회를 지탱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공공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이슈화했으며, 고도의 첨단 기술을 응용하고 미와 기술을 접합시키며, 새로운 건축의 비전을 제시한다. 미국은 그동안의 자본주의의 축적과 합리적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건축 프로젝트들

을 통해 건축의 기술적 노하우와 건축과 관련된 제반 산업에 대한 경험을 건축의 노하우로 갖고 있고, 서구적 기술의 산업사회 근성이 늦었던 아시아는 그나마 일본이 자기 나름대로의 일본의 전통 및 일본성을 외치며 일본만의 건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추세에 의해 도시간 교류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전제아래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는 푸트라자야(Putra Jaya)라는 새로운 정보도시를 건설한다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다시말해 세계의 건축조류에 어떤 미래를 담아줄 수 있는 건축적, 도시적 실험의 제기야말로 세계의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각고의 노력만이 우리 '한국의 건축'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비로소 세계의 건축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건축인들 자신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관련 분야 및 단체에서의 건축인들의 참여 활동인 것이다. 건축인이라는 - 자기 작품의 고유한 창작 작업 - 속성 상 상당히 개인적인 사회에의 참여가 이루어지나, 공동 연구나 관심·이익 분야에의 공동 참여가 더욱 더 절실히 요망되어지며, 건축인 개인의 성찰·사회에의 건축 문화 인식 및 분위기 조성·정부 및 이익단체의 지원 등을 열거해 보자.

우리나라의 직업 분류상 「건축가」는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아니면 학교에 몸담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건축 창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축가의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이 전문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해진다. 건축가의 전문화는 본인 스스로의 방향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겠으나, 우리 스스로의 공통된 분류를 갖도록 하라.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design architect), 디자인의 기술적 해결을 하는 건축가(engineering architect), 프로젝트 전체의 흐름을 관리하는 건축가(project manager/architect) 중 자기의 취향과 적성에 따라 취사선택함으로써 자기의 방향이 좀 더 전문화되어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전문화됨으로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건축가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건축은 발전되고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창작욕구에 따라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하

게 된다. 그러나 고도 산업 사회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단순성으로의 회귀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며, 같은 논리로 각 건축물의 준비에서 완성까지의 복잡 다단한 과정의 단순화는 연구만이 가능하며 특히 장시간을 요하는 건축의 과정에서는 더더욱이 그러하므로, 설계사무소 역시 특정 분야의 건축활동을 표방하여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거인 housing project, office 등의 commercial project, 병원·학교 같은 institutional project, sports project 등등 분야의 특정된 몇 개의 유형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의 출현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학교 내지는 가정에서 미술·음악 또는 근래에 와서 체육의 특정 종목 등을 교육 받는다. 마찬가지로 초기 교육 단계에서는 「건축」도 일단 미술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화의 부류이다. 일례로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FRANK LLOYD WRIGHT, 유럽 지식인들은 LE CORBUSIER나 그들의 작품을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김수근」, 「김중업」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건축이 우리의 일상 도시 및 주거 생활의 일부분이자 바로 생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반인들에게서 유리되어 있음은 건축인들의 책임인 듯하다. 그래도 근래의 각 대학 건축학과와 진학에 상당한 관심이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추세와 함께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자발적인 교육·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의 건축 프로그램,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도시·건축 프로그램, 건축강좌 및 주거 개선 세미나 등을 통해 대중적 접근을 꾀하고 어릴 적부터 건축이 문화의 일부분임을 몸소 배워 일반인들의 건축 행위시 소유에 따른 완성의 충족을 위해 소위 집장사를 먼저 찾기 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이 감안된 문화의 일환으로 건축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저변확대야말로 예술의 생활화, 문화의 생활화, 건축·도시 문화의 생활화로 이어질 수 있다. 건축인들의 폭 넓고 이해 깊은 국가간 또는 도시간 교류가 필요하다. 그간 많은 건축인들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 교류를 해 오고 있었으나, 좀 더 적극적인 professional 교류가 요구되어진다. 전문화된 건축인까지 특화된 설계사무소끼리의 개인적·단체적 교류리든지, 프리젝트를 위해 서로의 노하우를 갖고 협업의 의미의 교류 등등이 있겠다. 이러한 소그룹의 professional 교류는 좀 더 다른 문화적 배경의 친밀한 이해와 더 나아가 공동 이익의 추구를 위한 다음 단계로의 성숙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 건축인들에게 좀 더 많은 한국에서의 교류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의 열려있는 모습과 성숙된 건축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간 학생·교수들의 교환 교류, 설계사무소의 외국 건축인 고용, 아이디어 교류 등이 원활해져서 한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의 조성의 터전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건축에 대한 정부 및 기업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역시 건축인 개개인 뿐만 아니라 각 건축관련 단체들의 협조된 섭외와 설득이 필요하다. 첫째, 젊은 건축인들의 등용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설계 경기 및 작품 발표 등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젊은 건축인들이 발굴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객관적으로 인정된 건축인들로 하여금 건축계가 결집되고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며, 영향력있는 사회·문화의 한 분야를 대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social power 그룹이 한국 건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건축계를 한 사회의 전문 이익 집단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타 유관된 산업에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하여 왔듯이, 21c에서는 「건축」이 문화 및 도시 개발 부분에 상당한 질적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의 성실한 설득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설계비의 가이드 라인은 건축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통한 건축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한계를 갖게 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들의 국내 건축가 회피현상은 국제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과의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도약할 수 있는 건축계의 잠재력을 일깨우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난 현실은 오로지 건축계의 power group이 선도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세계 총생산량의 약 1/3이 건설에 연관된 산업에 사용된다. 이러한 건설을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이다. 문화와 기술, 그 분야를 도약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21c에 자연(Nature), 인간성(Humanity), 기술(Technology)의 이슈를 갖고 방향 설정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건축계는 정부·기업, 일반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21c 건축의 Venture를 시도해야 한다. - 새로운 21c 도시 Utopia -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issue를 갖고 진지한 연구로 세계에서의 선도적 건축·도시인들로 자리바꿈을 해야 하며, 세계에의 기여로 영향력 있는 문화·기술·인간 국가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진지함에 있는 것이다.

건축교육개혁의 방향; 학부 5년제 문제 있다

The Course for the Reform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이상헌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Lee Sang - Hun

21세기는 이제저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기가 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안정된 체제를 갖추지 못한,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안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다음 세기는 어쨌든 우리사회에 공존하는 모순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되지 않으면 안되는 내 외부적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건축도 예외가 아니다. 금세기 초 서양식 건축제도가 도입된 이래 우리의 건축은 외형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 말하자면 건축의 사회적 위상이나 역할, 그에 따른 건축교육의 내용과 방향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뒤돌아서 점검해 볼 여유조차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최근 세계시장, 즉 WTO 체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건축의 현실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수년간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교육을 위한 많은 개혁의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기존 체제의 완강함에 밀려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겨우 개혁의 대세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 교육 개혁의 전망과 비전은 불투명하다. 무엇을 하기 위한 개혁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와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얽히고 설킨 피상한 모습으로 그저 시대가 강요하는 개혁의 파도에 떠 밀려가는 꼴이다.

최근 건축 교육의 개혁에 대한 관심은 주로 5년제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마치 5년제 교육을 실시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용은 나중에 맞추어 넣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건축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공학과 건축, 예술과 기술의 관계 속에서 건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흔히 건축은 예술과 기술의 종합이라고 하고, 현행교육은 공학위주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설계위주의 교육을 해야한다고 한다. 건축은 예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은 건축일 뿐이며, 다만 어느 측면을 강조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건축에서 설계를 가르치되, 이 두 가지 중 어느 측면을 위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양에서도 오랜 동안 쟁점이 되어왔다. 그래서 각 나라 또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각 시대마다 변해 왔다. 이것은 건축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전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건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사회적 합의 없이, 그저 건축은 예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며 설계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피상적인 생각이다. 건축의 정의와 위상이 사회적으로 확고하지 않은데,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한 건축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방식이 명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리는 한국적 건축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온통 실타래처럼 얽혀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마치 건축교육개혁의 핵심이 5년제 교육, 즉 교육기간 5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재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 교육기간은 중요하다. 최소 5년의 교육은 UIA의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하고, 현행의 건축과 4년 교육으로는 국제적인 건축전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건축 교육체제를 5년제 건축학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4년제를 유지하면서 2년제 대학원 중심으로 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의 특수성과 전체적인 교육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건축의 속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학부 5년제로의 개혁에 대한 관심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은 접어두고 당장 UIA의 권고사항인 5년의 형식만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태도이다.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요구에 의해 갑

건축과의 4년 교육은 꼭 건축설계가 아니라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해 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전문교육은 이것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2년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가는 것이다. 4+2는 학부제의 장점을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주고 이어서 전문교육을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현실적이다.

자기 이질적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년 이상의 교육기간이라는 형식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나라의 현행 교육체제와의 전체적인 연계 속에서 보다 조화롭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년제 학부교육의 실시는 오랫동안 4년제를 기준으로 해온 현행 대학 교육체제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행 4년제 건축학부를 5년 제로 바꿀 경우, 5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의 건축과는 대부분 없어져야 한다. 누가 5년 학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인정되지도 않는 4년제 건축과를 가졌는가. 그렇게 되면 4년제 학교들은 존재 의의가 없게 되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은 건축설계를 전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현재 건축과 졸업생 중 10%가 설계로 나간다고 할 때 모든 학교들이 설계를 전공할 소수의 학생을 위해 5년제로 바꾸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결국, 학부 입학 시에, 또는 공통과정 1년이나 2년 후에 전공을 분리하도록 운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소수의 설계 전공을 위해서 모든 학교들이 5년제를 유지해야하므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또 현재 공과대학내에서 유독 건축과만 5년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교육연한이나 학위 뿐 아니라 학생을 선발할 때도 건축설계를 전공할 학생을 적성에 따라 선발해야 하는 국제기준을 소화하려면 적성 테스트라도 해야 하는데, 이는 현행 공과대학의 입학 방식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만일 이를 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공과대학에서 건축대학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가 5년제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독립대학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 또 현행 공과대학 내에서 5년제를 할 경우, 적성과 무관하게 들어온 학생들이 입학한 후 중간에 전공을 바꾸거나 이동하는데 선택의 폭이 좁다.

이에 비해 4+2 즉 대학원 중심의 6년제는 현행 대학의 건축과의 유지와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훨씬 적합하다. 우선 4년은 우리의 오랜 교육 전통으로 전반적인 고등교육체제와 연계된 안정된 체제이다. 현행 4년제 학부 건축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학원 중심의 4+2로 할 경우 설계를 전공할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즉 건축교육은 대학원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 수요자들에게 대학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가령 4년제 건축과를 졸업하고 설계가 아닌 건축과 관련된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쪽의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전문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건축과를 4년 졸업하고 설계사무소나 대학원 진학대신 능숙한 컴퓨터 기술을 무기로 컴퓨터 그래픽회사에 취직하여 많은 연봉을 보장받기도 한다. 즉 건축과의 4년 교육은 꼭 건축설계가 아니라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해 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전문교육은 이것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2년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가는 것이다. 4+2는 학부제의 장점을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주고 이어서 전문교육을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현실적이다.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학부제의 방향은 옳다. 건축이 5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학부제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학부제를 거부하려면 공과대학에서 건축대학으로 독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대학일수록 건축이 공과대학의 우산 아래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과대학과 분리해서 건축과를 독립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과대학내에 있으면서 학부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또 건축은 학부제를 반대해야 할만큼 다른 예술분야처럼 조기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유명한 현대

21세기의 건축 교육 개혁에서 학부를 5년 제로 바꿀 것인가 4+2의 대학원 위주로 갈 것인가는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과의 연관 속에서 한국건축교육의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종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은 돈이 들더라도, 당장의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더 합리적인 제도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건축가들 중에 다른 장르를 경험하고 나중에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창조적 이해를
 배우는 것이므로,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훌륭한 건축가로 성
 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처럼 기술교육이나
 예술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건축을 학부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은 별로 이
 점이 없다.

학부 5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4+2의 대
 학원 중심으로 할 때 5년만 해도 되는 건축전문교육을 1 년
 간 더 함으로서 생기는 국가력의 낭비를 내세운다. 그러나 4
 년의 학부교육이 다양한 커리어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낭비가 아니다. 즉 단순히 5년만
 해도 되는 교육을 굳이 6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5년제
 학부 중심체제로 할 경우, 적성과 무관하게 들어온 학생들이
 건축과에 입학한 후 중간에 전공을 결정하는데 선택의 폭이
 적어 훨씬 더 경직된 제도가 되고, 더 큰 교육자원의 국가적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학부를 5년제로 해서 교육기간의
 낭비를 없애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설계에 뜻이 있는 학생은
 학부에서 설계 위주로 과목을 집중해서 듣도록 지도하여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면, 이 후 2년의 대학원
 과정을 합쳐 5년에 건축전문교육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5년제를 할 곳은 하고 4+2년제를 할 곳은
 하도록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 말은 틀린 것
 아니다. 학교마다 각자의 여력에 맞게 개혁을 하면 된다. 그

러나 4+2와 5년제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도 지금 한 방향으
 로 정리되고 있는 추세인데, 새로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굳이
 혼란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교육은 눈앞의 기득권과 편리함
 보다는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것이어
 야 한다. 따라서 학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되 건축교육
 의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의 주요 대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들 주요 대학이 5년제 학부중심으로 가려고 하
 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들 학교가 5년 제
 를 선택하고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학부에서 누려온 기득
 권을 놓기 싫다는 발상에서 온 것이며, 이것은 주요 대학을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국가교육정책에도 위배
 된다. 미국의 경우처럼 주요 학교가 대학원 중심으로 가면 나
 머지 학교들은 부담을 덜 수 있고, 오히려 중간급의 학교들이
 여력에 따라 5년제를 신설한다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다
 양한 교육기회를 주면서 대학원과 연계되는 안정적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건축 교육 개혁에서 학부를 5년
 제로 바꿀 것인가 4+2의 대학원 위주로 갈 것인가는 눈앞의
 이익과 편리함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과의 연관 속에서 한국건축교육의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종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은 돈이 들더라도, 당장의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장기
 적으로 어느 것이 국가 전체를 위해서 더 합리적인 제도인가
 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보호막은 없다

The Bridge Has Been Burnt

김태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by Kim Tae-Hwang

돌이킬 수 없는 개방화의 추세

20세기말의 세계 경제 질서는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한편으로는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역이 확대되는 개방화가 진행되어 세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어 온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회원국의 국익을 증대시키고자 대외적으로 지역 블록화를 심화시켜 온 것이다.

전자는 특히 80년대 이후 미국이 공정무역(fair trade) 또는 호혜주의(reciprocity)를 주창하면서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정과 상통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공동체를 들 수 있으며, 역외 국가들에 대한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15개 회원국의 역내 이익을 확보하려는 흐름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회원국들간의 시장 개방화는 전자의 다자주의적인 또는 쌍무주의적인 개방화보다 더 크게 진전되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내 산업활동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가는 추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의 건축 설계 서비스 시장도 예외일 수가 없다.

뉴라운드와 태동

지난해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의 제3차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수면에 떠오른 뉴라운드(New Round) 무역협상은 향후 21세기 서비스 시장을 비롯한 세계 경제 질서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주요국간의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비록 각료회의의 합의문이 도출되지 못한 채 협상이 중지되었으나 올 2/4분기 또는 내년 미국 대선 직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특히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정도에 따라 우리의 건설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결과, 94년부

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이 민간 건설 부문에 적용되어 외국 일반건설업체가 국내에서 100% 단독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97년부터는 정부조달협정이 국내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 건설 시장은 전면 개방되었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 건설업체는 상업적 주제로 지사를 설립하거나 합작 투자를 통해 98년 말 현재 시공분야에서 52개, 설계영역 분야에서 53개, 감리 분야에서 13개가 등록되었다. 이러한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업체의 실제적인 국내 활동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인 입찰 및 계약 관행과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라운드 협상을 통한 개방화의 대상은 주로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며¹⁾, 논의의 핵심은 국내외 기업들간의 경쟁 여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집약된다. 먼저, 각국내의 경쟁 제한적 행위, 독점적 시장 구조 등이 외국기업의 시장 접근과 활동을 저해하는 비제도적인 무역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방화의 성과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국가간 경쟁법과 정책이 상이하여 경쟁여건의 차이를 초래함으로써 공정한 국제적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장 개방화의 과정과 영향

향후 추진될 뉴라운드 협상에 의한 공정한 경쟁 여건의 강화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의 질적인 조정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장 개방화의 확대에 따른 영향력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건축 설계 분야에 대한 그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산업적 차원에서, 협상을 주도하게 될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조달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통해 건설

1) 실제 서비스 시장 개방은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산업 서비스 부문과 유동, 통신, 건설(정부조달) 부문을 총괄하여 15개 분야에 이른다.

설계회사 또는 건축가 개인은 먼저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전환시켜야 한다.

더 이상 국가 보호주의에 의한 시장 경쟁 논리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부 상품별 전문 시장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거시적 및 미시적 시장 경제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동력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문 전반에서 진출을 확대시킬 것이다.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경우 78억원 이상의 시설물 공사와 2억원 이상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일반 경쟁 원칙의 국제 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양허하였으나 실제 입찰·계약 과정은 외국 기업의 수주활동을 암묵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입찰 시장의 개방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나아가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간 국제적 규범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감독(monitoring)이 강화될 경우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보호막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세부 진출 분야에 있어서, 설계 또는 감리 용역 부문이 추가적 개방에 따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시공부문에서는 국내 업체가 가격, 기술, 인력관리, 구매의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용역부문에서는 기술 경쟁력의 열위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또한, 토목 설계의 경우 건설 상품이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건축 설계의 경우 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국제적 표준성과 호환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므로 시장 개방화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시장이 제도적으로는 이미 개방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방과 자유화에 따른 부담이 예상보다 적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 개방 범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쟁 제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뉴라운드의 논의 방향을 감안할 때, 국내 업체의 대외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기까지는 국내 시장의 잠식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ngineering News-Record(98. 7. 20)가 선정한 97년도 세계 200대 설계회사 가운데 우리 기업은 5개 종합건설업체(EC)에 불과하며, 건축 전문 설계회사는 전무한 상태이다. 아시아 건설시장에 진출한 이들 200대 설계

회사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기업이 51%를 차지하였고, 33%가 유럽 기업, 9%는 일본 기업, 7%가 나머지 국가 전체에 속한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 설계회사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함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시장 잠식효과와 구조조정 촉진효과

국내 건축 설계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파급 효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에 의한 잠식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촉진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잠식효과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국내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선진 대형업체이며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 시장 구조가 양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향후 정보화, 다기능화, 에너지 절약형의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설계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외국기업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의 촉진효과는 다양한 전략적 접근책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간의 경쟁 구도가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도록 전환되어 상품별로 기업간 차별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선진 외국기업의 전문화, 정보화,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간의 자율적인 합병과 인수를 통한 대형화가 촉진될 것이며,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강화될 것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은 개방화에 편승하여 제3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경영의 국제화로 기업 구조를 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건축 설계 시장의 새로운 경쟁 질서를 구축

설계회사 또는 건축가 개인은 먼저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전환시켜야 한다.

더 이상 국가 보호주의에 의한 시장 경쟁 논리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부 상품별 전문 시장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거시적 및 미시적 시장 경제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동력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컨대, 뉴라운드 협상에서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 업무의 교역 자유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 6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사연맹(UIA) 총회는 건축사 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 관한 국제 표준안을 채택하였다. 각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사에 대한 교육인정제도, 실무훈련, 계속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각국은 전문 분야별로 특화된 국내 또는 외국 건축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호 협조 체제와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향후 절차와 대응방안

뉴라운드 논의는 부문별 협상이 아니라 포괄적 협상으로 진행되어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 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 또는 package deal)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후 3년 정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개방 확대와 국제적 경쟁 여건 변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국민경제, 산업, 협회, 기업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책을 도

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전체 서비스 분야에 적용될 국제적 규범의 수립 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외 협상력과 국가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경제행위의 현행 관행들이 국제 경쟁질서에 부합하도록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 차원에서, 국내 건축 설계 서비스 활동과 참여 주체들의 역학관계가 상승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입찰 및 계약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협회는 외국 협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향후 시장여건의 변화와 외국 업계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설계회사 또는 건축가 개인은 먼저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전환시켜야 한다.

더 이상 국가 보호주의에 의한 시장 경쟁 논리에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부 상품별 전문 시장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거시적 및 미시적 시장 경제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동력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디자인 경쟁력이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를 좌우한다 The Crucial Factor for Foreign Markets is Competitive Power in Architectural Design

허승희 / 재미건축사
by Huh Seung-Hoi

어느 건축가를 막론하고 천재적 디자인 능력이 있다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겠다. 해외진출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해외진출의 필수요건으로 디자인 능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 마련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어떻게 하여야 한국건축가들의 디자인 능력이 세계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보다 많은 세계적 건축가를 배출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하여 주길 바라며 이점에 대해 오해가 없길 부탁드리고자 한다.

세계적인 디자인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UIA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디자인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한국 실정에서 가능하냐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 가지고 정부와 대학이 일심 단결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가능할 것이며, 또한 Technology의 발달로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여러 건축대학에서 우리가 필요한 Program (Distance Learning Program등)을 얻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 일본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것은 각 건축대학을 이끄는 분들의 Priority가 어디에 있으며, 그 분들의 추진능력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미네소타 대학교 건축대학이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미국을 최정상에 포함될 수 있기까지에는 35년 전부터 이 대학을 이끌기 시작한 Ralph Rapson 교수의 25년 동안

의 우수 디자이너 배출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교육을 받고 나온 학생들에게 대학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졸업 후 어떠한 사무실에서 어떠한 실무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세계적 명성을 가진 거장 (디자인 영웅)들 밑에서 실무경험을 한 사람들이 명성 있는 건축가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 건축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우수한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설계 팀들의 우수하고 전문적인 능력도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부언하고자 한다. 요즘은 한국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WTO 발족으로 인한 국가간의 개방정책과 UIA의 활동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 한국의 많은 분들로부터 부정적이고 우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좋은 실든 간에 몇 년 안에 한국 건축가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은 기정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한국 건축가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건축가의 위상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나라 건축가의 힘이 건축주나 건설회사에 비해 매우 크지 못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국의 모든 건축가가 UIA회원이 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니까) UIA 규정과 UIA 표준계약서 및 세부 지침서를 적용하여 업무를 하게 되면 현재 있을 수 있는 건축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한국의 3개 단체가 협의하여 현 3개 단체 중에 이를 전담할 단체를 정하거나 아니면 3개 단체 협의 하에 한시적인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UIA와 함께 한국실정에 맞는 계약서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건축가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AIA에서 마련한 규정,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방서 사용으로 모든 미국 건축가들이 실무를 편리하게 하고 있는 예를 보면 이해

어느 건축가를 막론하고 천재적 디자인 능력이 있다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겠다. 해외진출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해외진출의 필수요건으로 디자인 능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회 마련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77

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건축가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충분한 설계기간과 적절한 설계비(Professional Fee)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건축가나 건축사무소가 생길 수가 없게 되므로 세계적 디자인 경쟁력을 마련이 힘들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건축가들의 해외시장 Marketing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어떤 경우가 되어야 해외시장에서 한국 건축가의 Professional Service를 원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 원하는 이유로 몇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들 즉 한국건설회사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자생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의 디자인 능력이 매우 특출하다고 인정받거나 설계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분야에서 최첨단 전문가일 경우를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3가지 경우 모두가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디자인 능력이 특출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국, 영국, 일본의 몇 개의 건축회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며, 설계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는 필리핀 건축회사를 그리고 어떤 건물(Building Type)의 전문가(Specialist)로서는 미국이 압도적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최첨단 전문 건축가가 되려면 최첨단(Specialty) 건물을 설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려다 보니 자연 Industry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부 유럽국가와 일본 건축가들이 새로운 Type의 건물설계의 Leader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한국의 Industry가 세계를 주도하게 되면 자연히 한국 건축가들도 세계적 설계 Leader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저렴한 설계비가 이유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기능하지도 못하므로 우리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수한 디자인 능력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사이 박세리, 김미현, 박지연 등 한국 여자 Golfer들의 성공을 보며 몇 년 전 만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골프에서 세계정상의 꿈이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여성이 항상 먼저 세계정상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건축 디자인도 여성건축가에게 먼저 정성을 쏟아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많이 나와 주길 바란다.

잘 알다시피 건축설계는 다른 분야와 달리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재적 능력을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하여야 한국 건축가들이 Marketing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의 건축 주들로부터 우선의 기회를 받아야 가능할 것 같다.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건축가들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할 Media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초 필리핀 국립박물관 설계 건물로 마닐라에 다녀왔는데 현지 Hotel Cable TV를 통해 Arirang TV를 알 기회를 가졌다. 여가다 우리 나라 건축가들을 소개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영문 건축전문잡지 (세계적으로 읽혀지는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등등의 잡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미국에서 홍보(PR)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 지를 우리 사무실 경우를 예로 하고자 한다.

Durrant 그룹 전체를 1명의 홍보 담당자가 전담하고 있고 14개의 Unit회사에서 하지만 Marketing 과

“

건축의 세계 진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한국의 설계사무실들의 경제적 취약함을 감안할 때 독자적으로 국제 설계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시장진출의 성패는 디자인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함께 하고 이를 위한 정책입안과 경제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검해서 홍보업무에 참여하는 28명이 따로 있어 이들을 포함
한다면 총 인원 300명중 29명이 되므로 전체의 10% 정도
가 홍보 및 Marketing 업무(Public Relation)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에 있는 전문 PR회사
(Joan Caplan Inc.)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하여 전국
적 PR을 돕도록 하고 있다.

이 예를 보더라도 미국 건축 사무실에서 PR
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세
미나나 Convention의 연사로 Partner들을 참여시키고 대학
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도 모두 PR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세계시장에서 수주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
선 대상 국을 선정하고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협조를 통하고
그 나라 설계사무실들과 공동설계 수주계약을 맺어 수주하

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인 방
법이 될 수 있는 것은 국제설계경쟁에 참여하여 당선을 통한
수주 방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정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는
세계적 PR과 국제설계경기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의 세계 진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한국의 설계사무실들의
경제적 취약함을 감안할 때 독자적으로 국제 설계 경쟁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
려운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시장진출의 성패는 디자인경쟁
력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정부도 함께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입안과 경제적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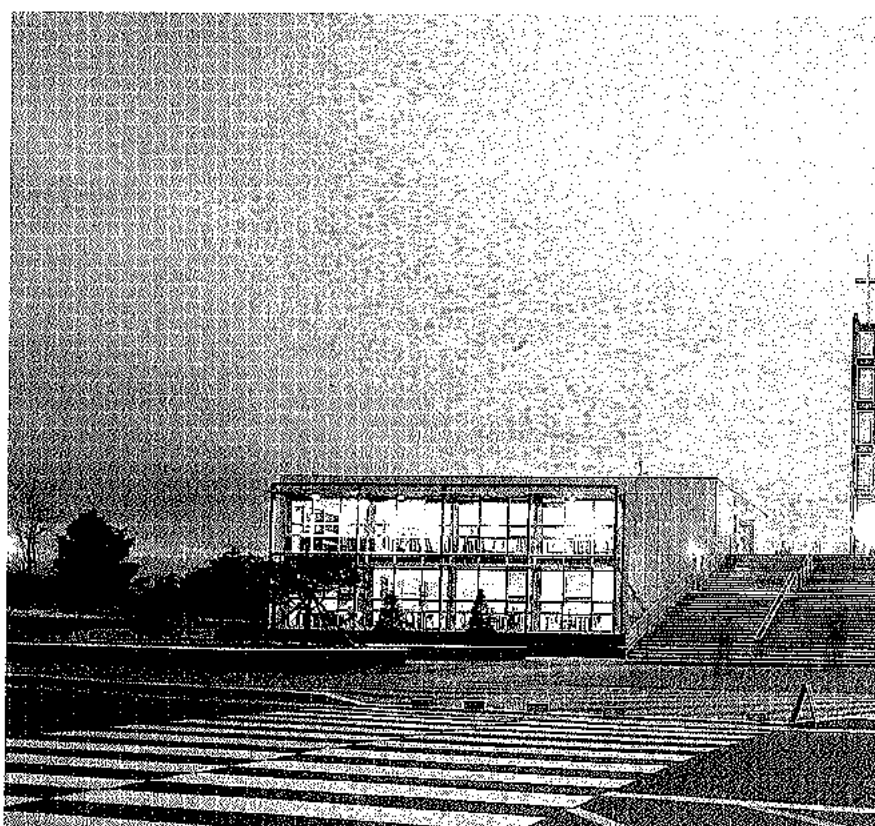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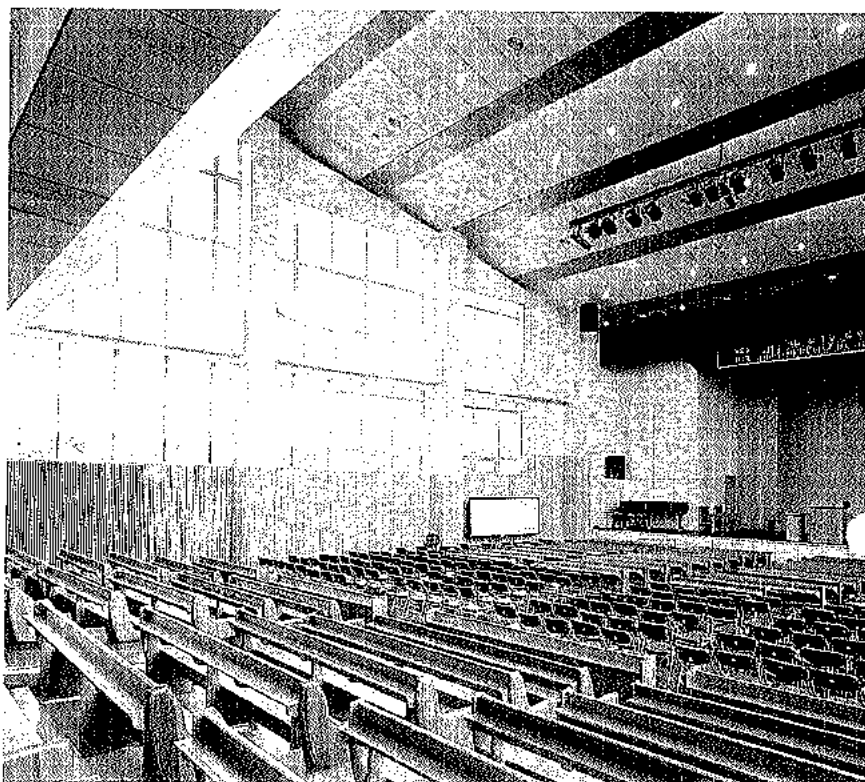
새 천년을 맞아 (해외 동포들의 잊지 못하고
있는 조국인) 한국의 건축가들이 세계정상에 도전하여 한민
족의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한동대학교 효암관 Hyoam Hall in Handong University

최동규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Designed by Choi Do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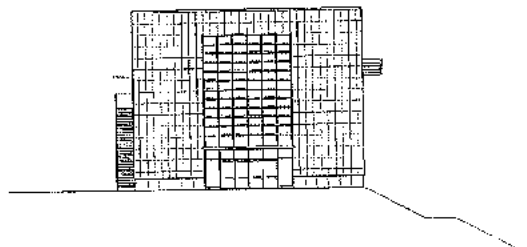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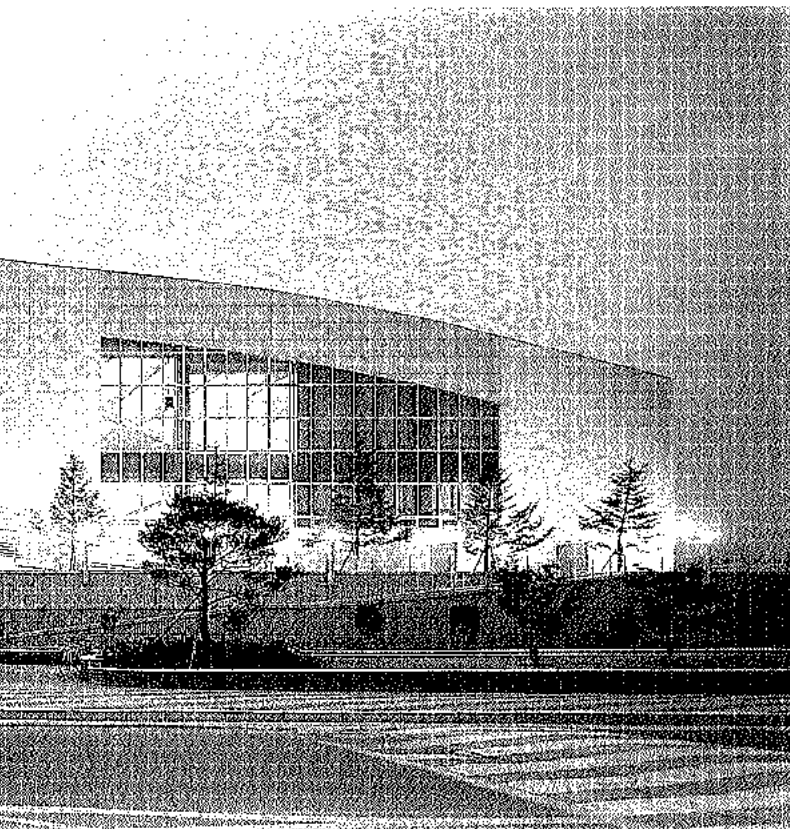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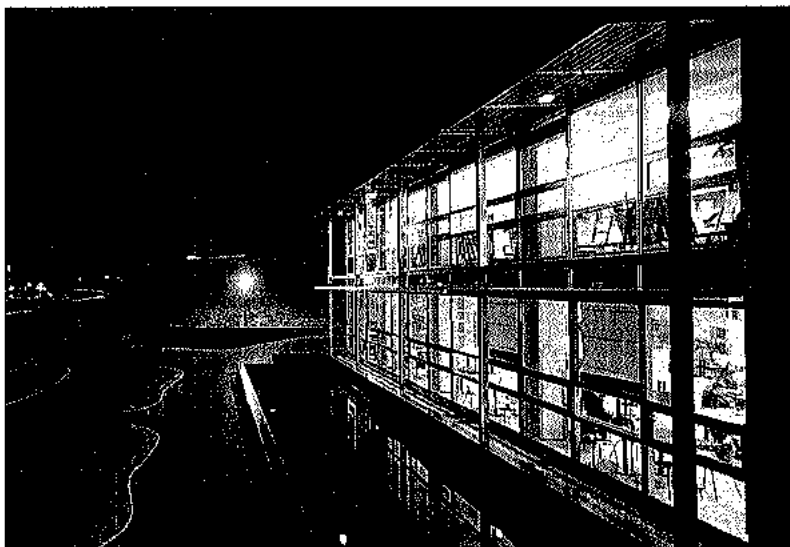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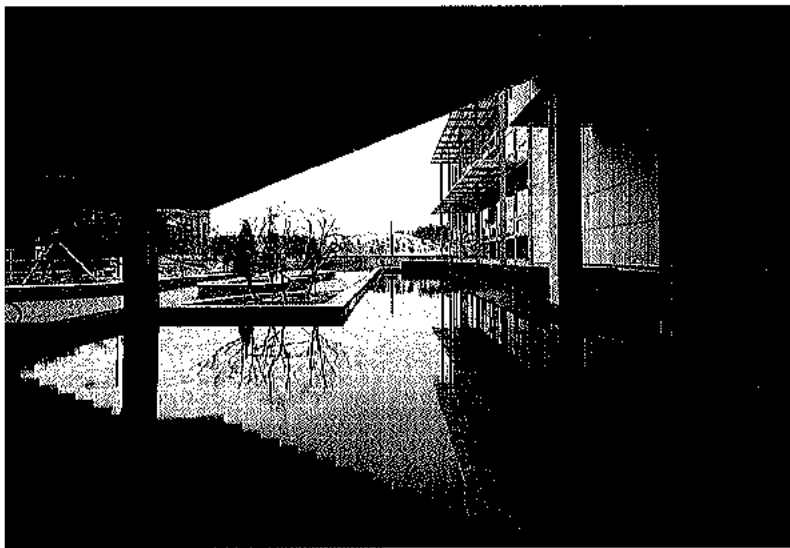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78-1외 28필지
대지면적	229,996㎡
건축면적	19,425.67㎡
연면적	57,188.43㎡
건폐율	8.35%
용적률	23.25%
조경면적	53,350.8㎡
규모	예배당 / 지상2층, 다목적홀 / 지상4층
구조	RC 및 RSC
외장마감	AL SHEET, 복층유리, EXPO CON C
내부마감	예배당 - 바닥 / 목재널 위 엘라 민수지코팅, 벽 / 내수합판 위 락 갈나무 무늬목, 천정 / 라왕 위 라카
설계담당	손윤희, 이정동
설비방식	AHU 및 패키지방식
구조설계	명구조
설비	(주)기한엔지니어링
전기	성일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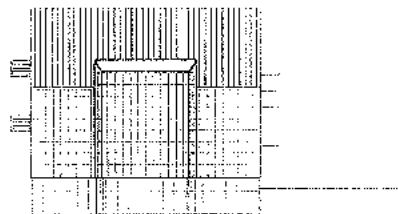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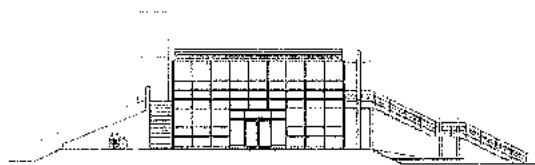
북측면도



예배당 정면도



예배당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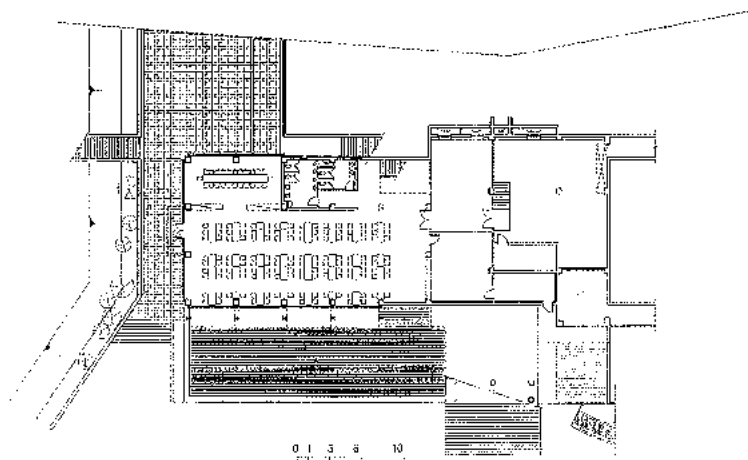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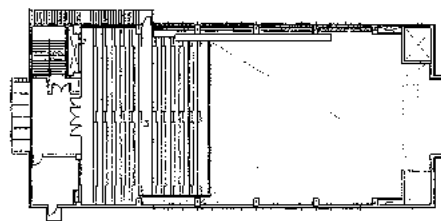


다목적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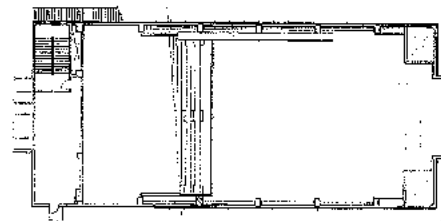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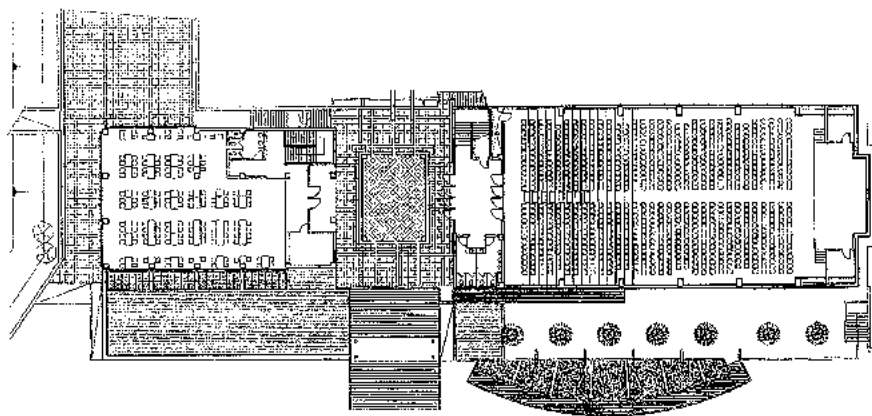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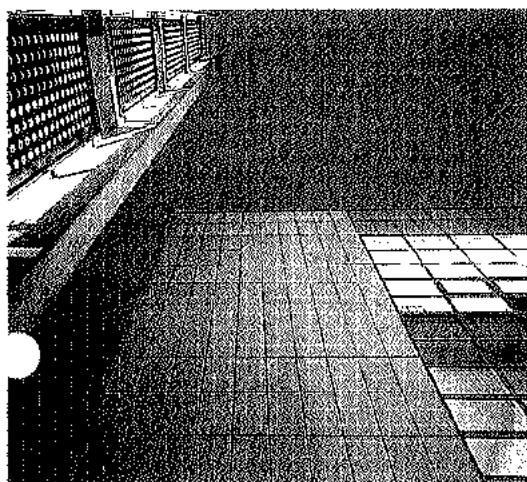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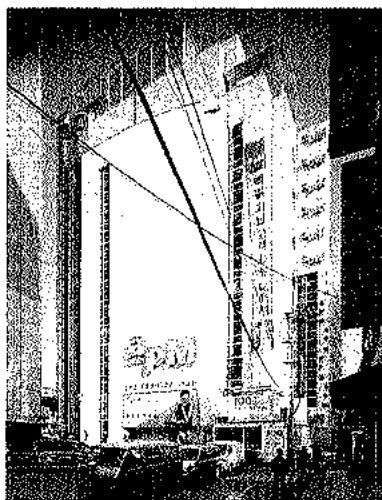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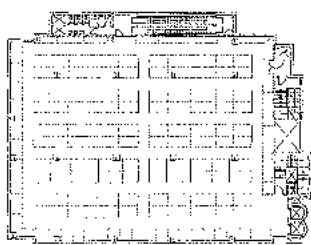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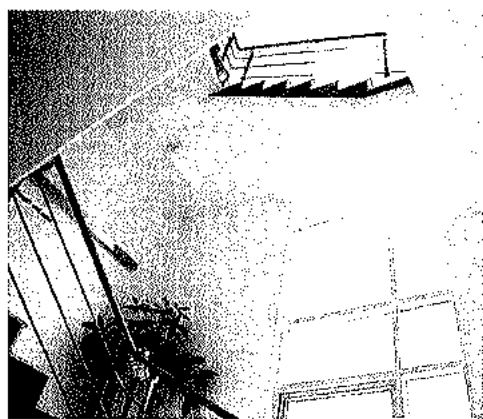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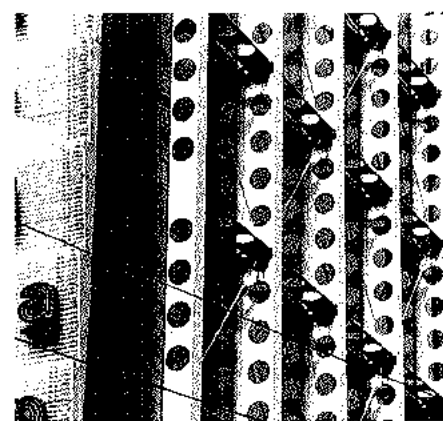
에이 피 엠 apM

이관직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공
Designed by Lee Kwan-J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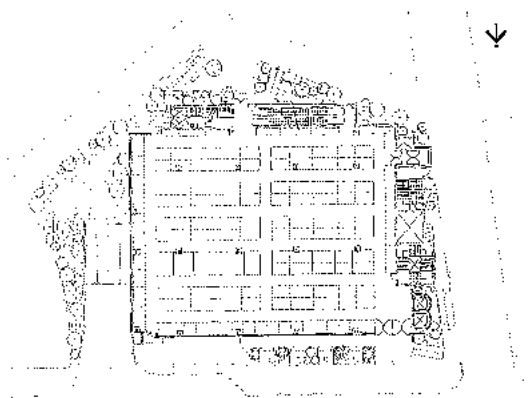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신당동 198-13 외26 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1,909.00㎡
건축면적	1,138.13㎡
연면적	14,178.60㎡
건폐율	59.62%
용적률	483.42%
규모	지하 4층, 지상 9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4.35m
설비방식	공기조합방식 + 팬코일 방식
용도	판매시설
외부마감	벽 / T24 컬러복층유리, T30화강석, T3 알루미늄시트, 지붕 / 우레탄 방수
내부마감	바닥 / 대리석 벽 / 석고보드위 수성페인트 천정 / 철판위 위생락카
주차대수	자주식 65(장애자용 3대)
조경면적	290.17㎡
설계담당	장진욱, 임태연, 이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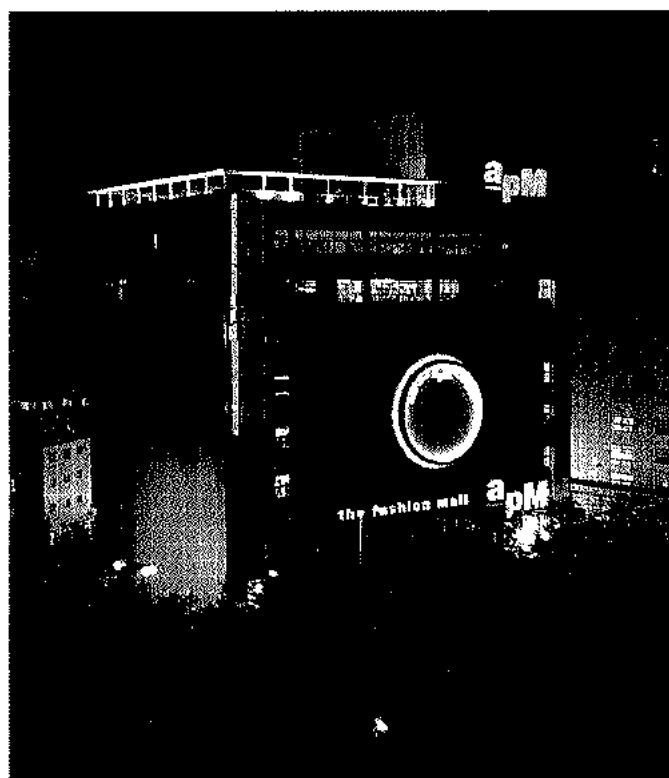




2-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동대문이 새로운 의류 상권으로 부각되면서 의류도매상이 건물이 여러 곳에 생겼다. 재래 시장건물에 내외장을 변경하여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와 보다 두드러진 이미지를 드러내려는 신축건물들이 어울려 건축패션 자유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상업적인 요구로 건폐율과 저층부 매장 갯수 확보의 싸움으로 그리 건축에서의 공공성은 성공한 편은 아니다. 오히려 최대한의 저층부 매장의 확보라는 상업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공공성이라는 건축적 시도가 거의 가능하지 못했다. 최대한의 상업적 면적의 확보라는 건축주의 요구가 프로젝트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상업건물로서의 개성적인 이미지가 요구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일종의 박스타입의 형태와 엘리베이션 건물(입면 위주의 건물)로 접근되었다.

저층부의 최대 매장의 확보에 관련된 평면은 전면에 4m의 대지안의 공지를 기준선으로 10cm 치수의 여유도 없다. 입체감과 입면재료의 레이어의 겹침과 변화를 위해서 6층 식당층에 발코니를 두어 후퇴시켰다.

유리와 인도사암을 주원 재료로 구성한 복측전면은 비례와 입체감

그리고 천연재료의 색채구성을 노력했다.

후면의 에스컬레이트를 위한 커튼월은 수직멀리언을 외부로 처리하고 제직철골에 원형구멍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가벼운 느낌이 되도록 했다.

전망엘리베이터와 서측벽체의 곡면처리, 옥상에서의 알미늄 장식처마의 설치 등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건물에 특성을 주는 요소가 되었으면 한다.

의도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준공을 즈음해서 Apm이라는 건물의 이름이 정해지고 로고, 기업이미지 등 광고와 병행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요란한 네온과 광고판, 커다란 원형시계 등등, 건축적이지는 않지만 상업건물로서의 또 다른 이미지 변신을 재미있게 바라본다.

건물은 건축가의 작품이지만 결국 도시의 구성물이자 배경, 시민의 삶의 장소이다. 우리 모두가 이용자이자 주인이다. 모두가 노력해서 만드는 문화의 일부분이다.

설계자로서 Apm 빌딩도 이제 세상에 나온 이후에 많은 사람이 보는 대상으로, 사용하는 대상으로, 도시와 가로의 배경으로서 계속해서 사랑 받기를 바란다.

고려대학교 국제관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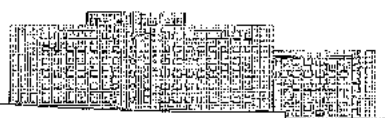
안길원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Kil-Won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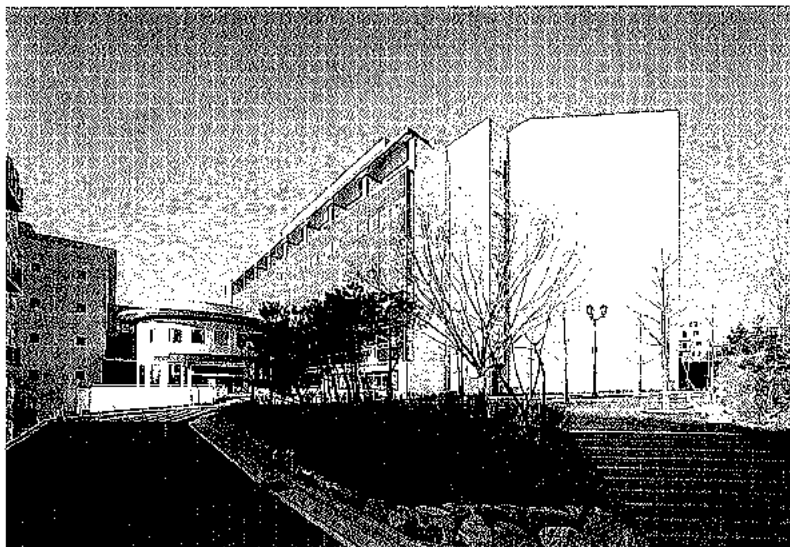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630,427.00㎡
건축면적	3,558.98㎡
연면적	23,933.22㎡
건폐율	17.30%
용적률	59.83%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외부마감	화강석, 파스텔유리
계획담당	김상기
구조설계	동양구조
기계설비	복성설비
전기설비	일신이앤드씨
시공자	LG건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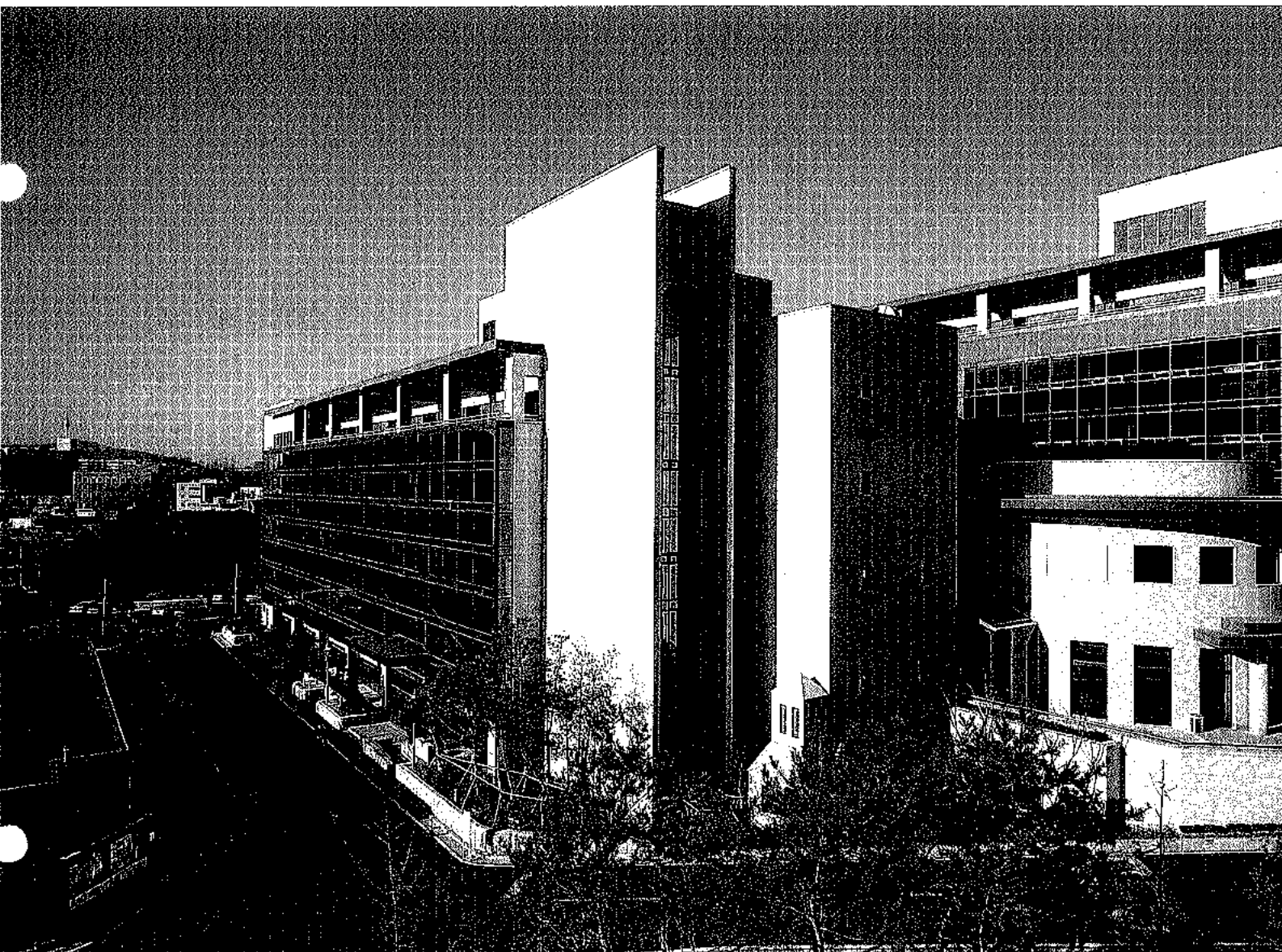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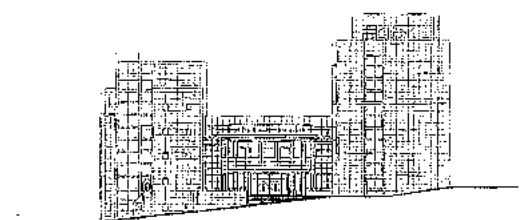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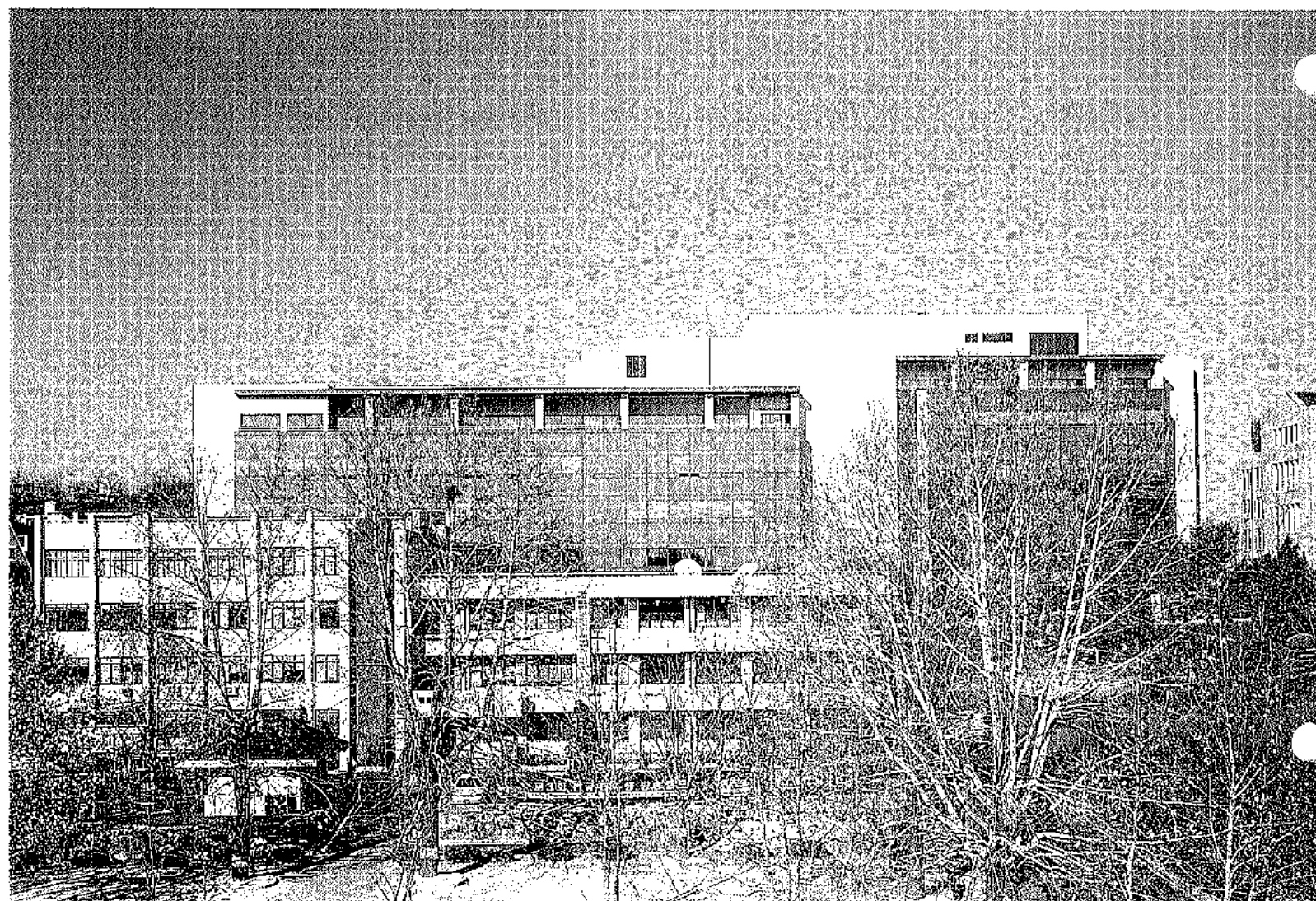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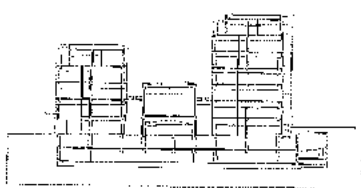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고려대학교는 국제교육의 요람으로 국제관을 신축코저 1995년 12월 지명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작품을 모집하였다. 본래의 대지는 본교내 인촌기념관 측면의 후문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약 1년 동안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본교 정문에서 보았을 때 건물의 상부가 본관 위로 노출되어 고대의 기념비적 건물인 본관의 위상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대지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새로 선정된 대지 또한 협소한데다 대지의 형상이 불규칙적이어서 건물의 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국제관은 크게 국제대학원과 국제어학원의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장, 화상강의실, 원격강의실, 각종 세미나실 등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첨단 시설들을 수용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국제대학원과 국제어학원을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존 건물들의 주요축인 동서축을 주축으로 하여 남측에 국제대학원, 북측에 국제어학원을 배치하였

으며, 그 사이에 로비, 국제회의장, 화상강의실 등을 수용하여 내부동선의 중심 및 완충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의 남북측 레벨차가 약 5m 정도 있음을 고려하여 국제대학원과 국제어학원의 입구를 1층과 2층에 따로 두어 남측 및 동측 도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아트리움을 통하여 서로 동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직적으로는 저층부에 로비, 국제회의장 등 공용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중간층에 강의실, 최상층에 교수연구실을 배치하여 수평, 수직동선의 연계와 분리에 중점을 두었다. 건물의 외관은 기존의 고려대학교 건물들이 화강석 마감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화강석물갈기와 커튼월을 사용하여 기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개방적이며 국제관으로써의 첨단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건물전면의 6m도로가 보행자들의 주요 통행로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 통행을 가급적 제한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남측의 홍보관 측면에 두어서 건물 전면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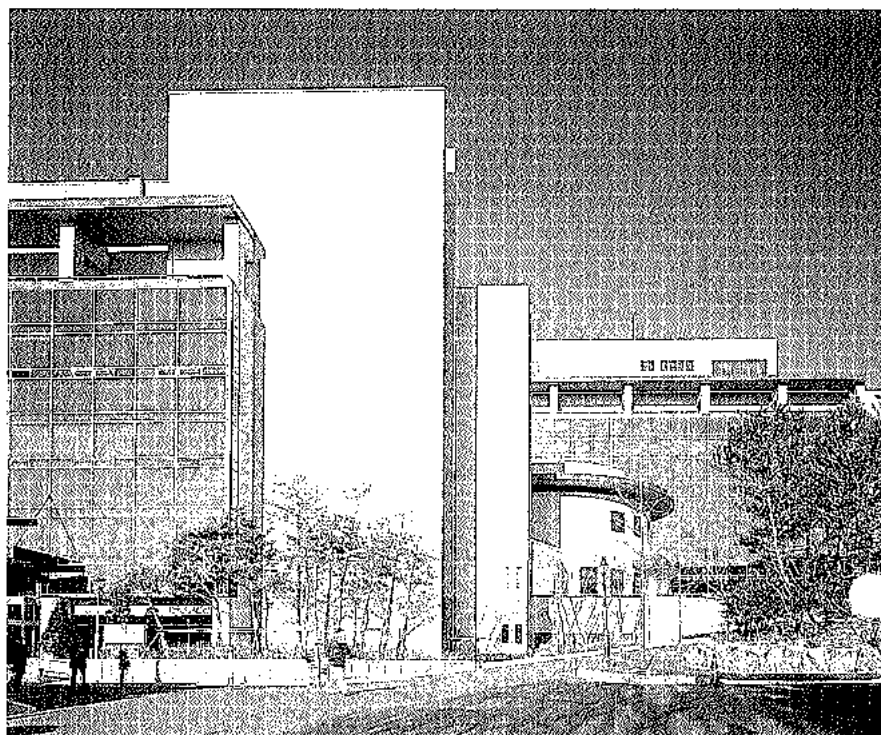




우측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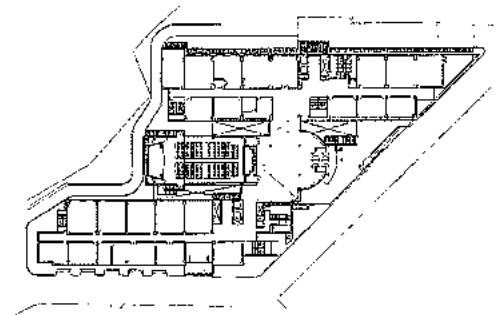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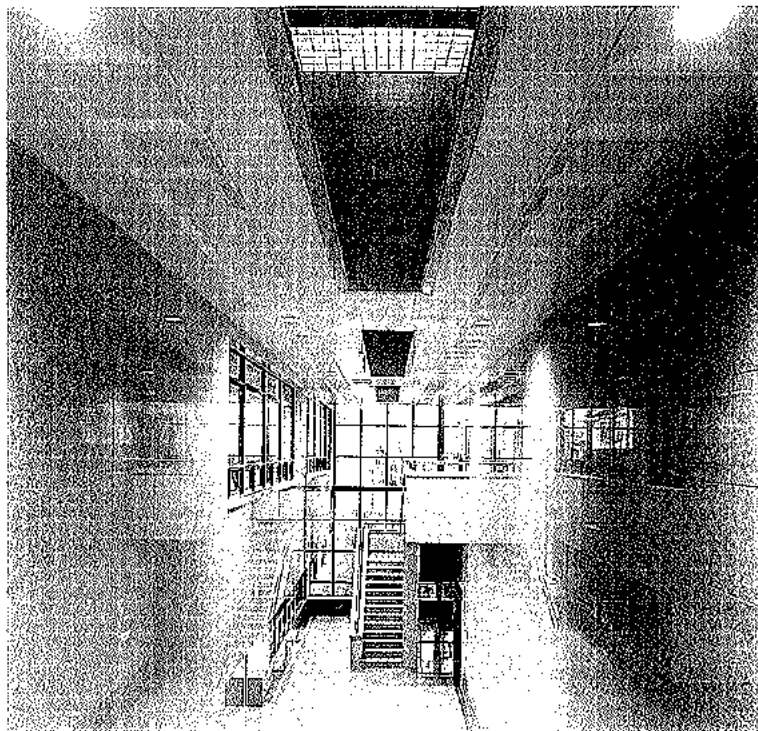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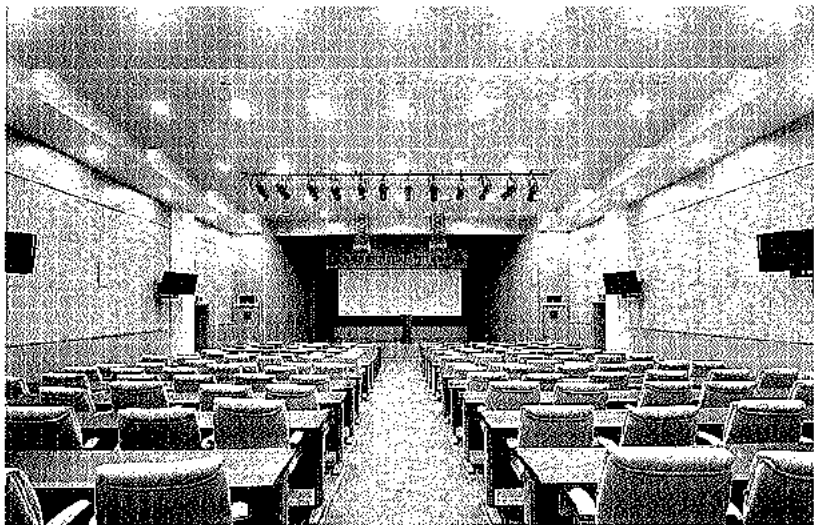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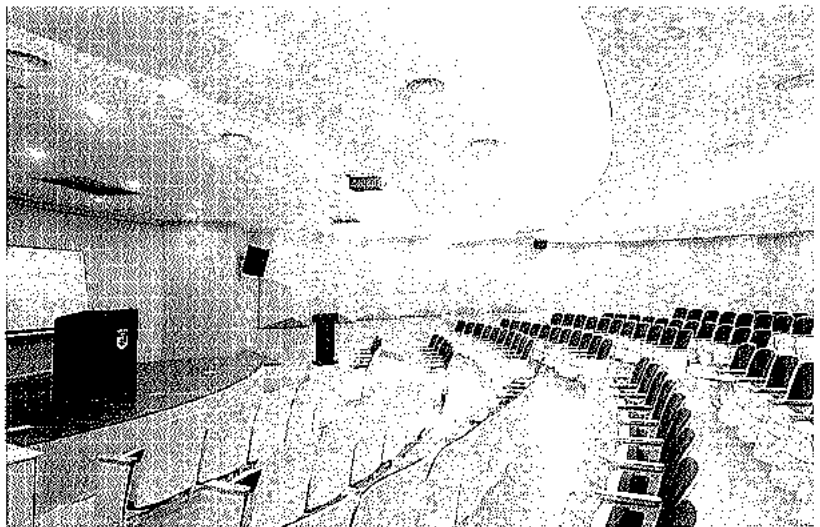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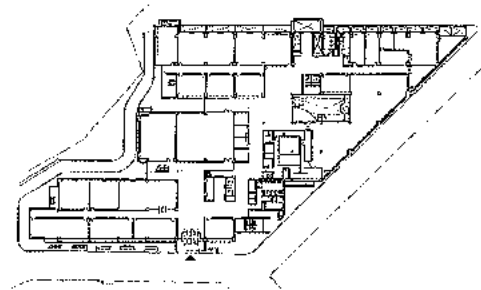
6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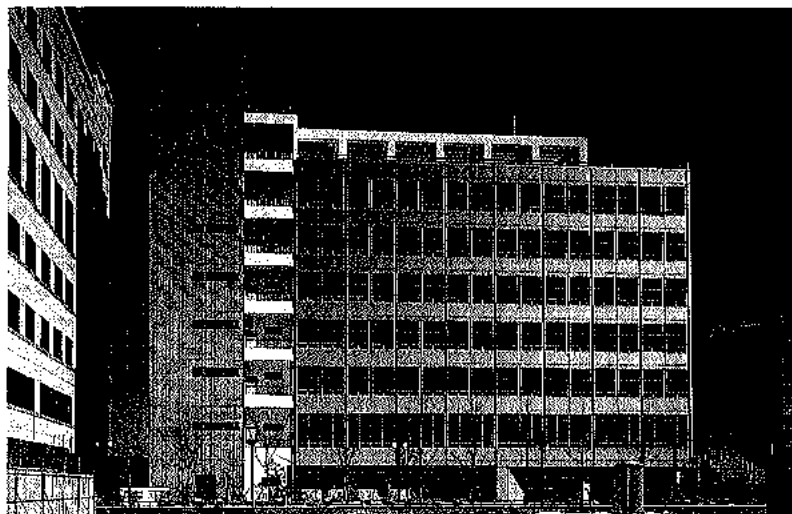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일산 화정빌딩
Ilсан Hwajeong Building

이상경 / SK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Kyung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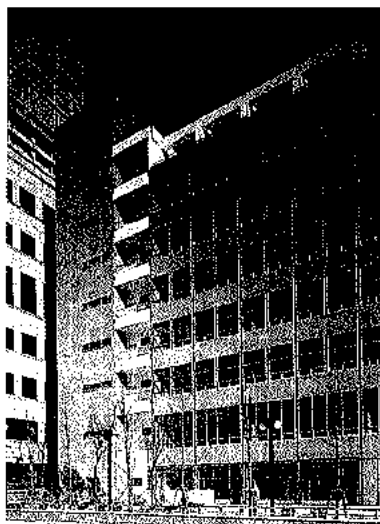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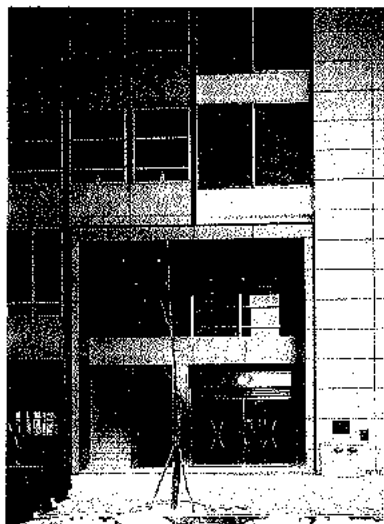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970-3,4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1,579.9㎡
건축면적	849.8㎡
연면적	9,987.6㎡
규모	지하3층, 지상8층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53.9%
용적률	397.4%
주차대수	74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4 알루미늄 복합패널 + T16 컬러복층유리
주요설비	열병합 지역난방 + 패시브 에어컨
설계담당	김희경, 김상철, 신원균
구조설계	크로스 구조
기계설비	한일MEC
전기설비	새한전기
건축감리	SK건축 하등석
시공	(주)성우건설
사진	임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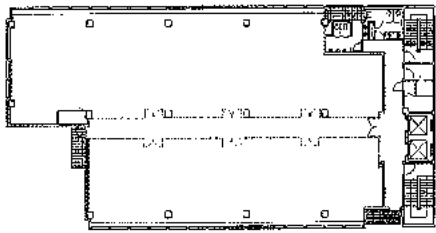


고양시의 작은 신도시 화정지구는 일산 인근 지하철 3호선의 화정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이 대지는 화정역앞의 상업지역에 속한 변화한 거리에 접해있어 주변여건상 많은 소비적 시설과 사무실을 수용해야할 상업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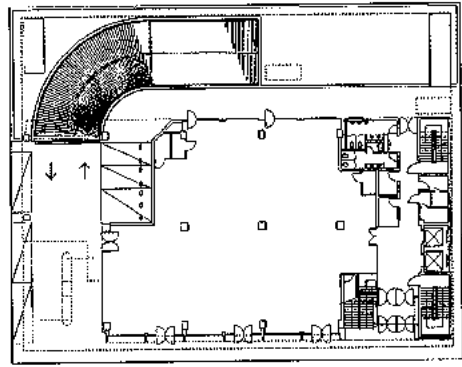
건축가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건축주를 만난 행운으로 설계과정의 아무 어려움 없이, 주어진 프로그램, 건축비 등을 고려해 전형적인 업무빌딩을 계획할 수 있었다. 건축물을 완성한 후 항상 남는 안타까움은 입주자에 의한 입면손상이지만, 최대한 타협해서 간판라인을 곳곳에 설치해 앞으로 있을 건축물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 건물의 수명이 다하는 오랜시간이 지날때까지 도시의 거리풍경으로 있을 건축물을 생각하면 건축가로서의 책임감으로 더욱 신중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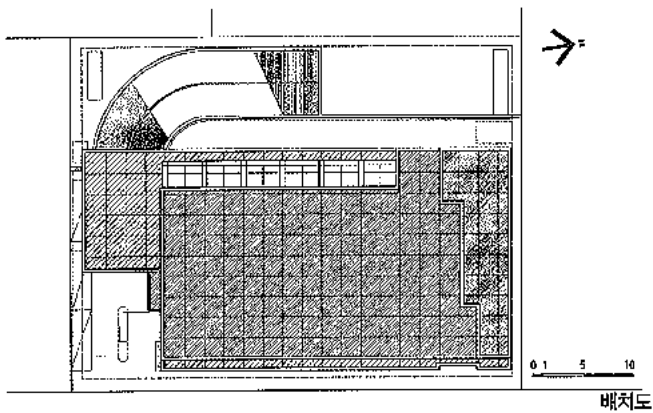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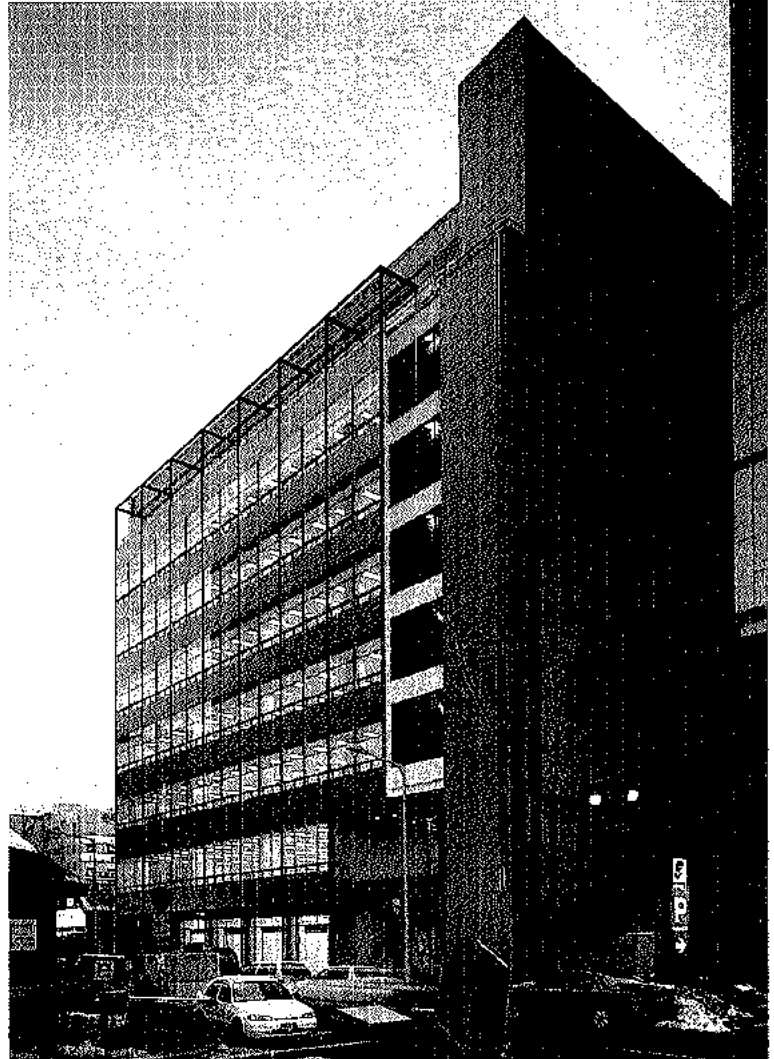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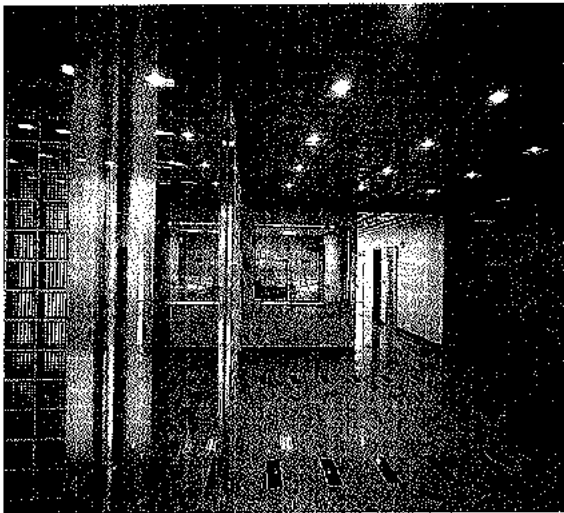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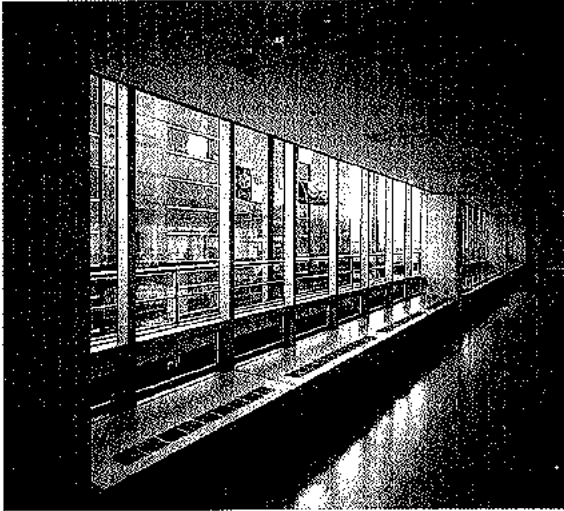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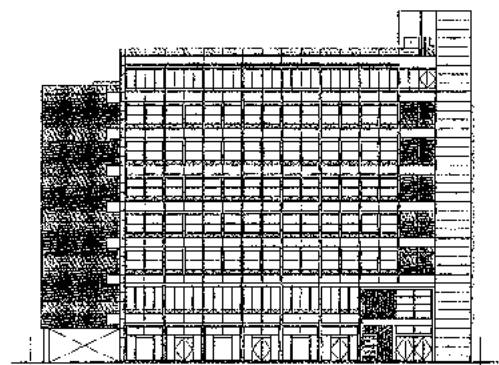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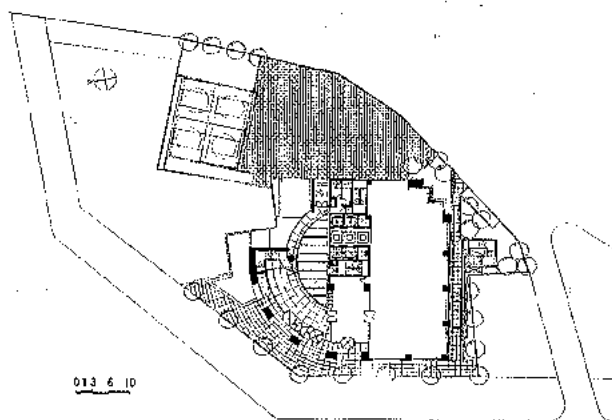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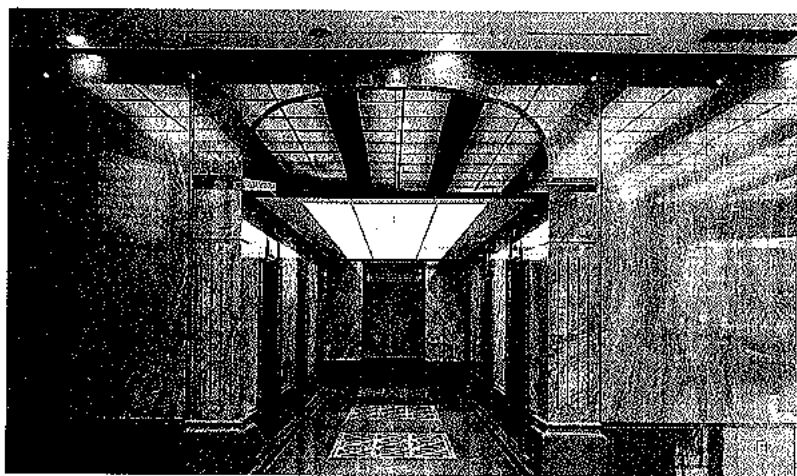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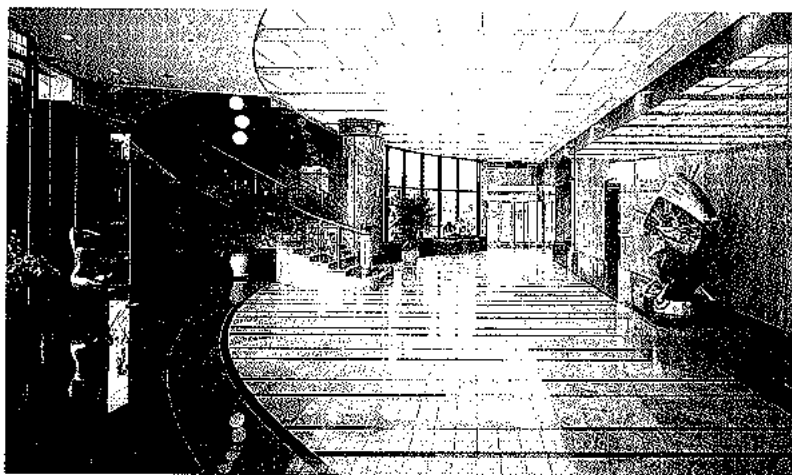
정면도

구산타워 Koosan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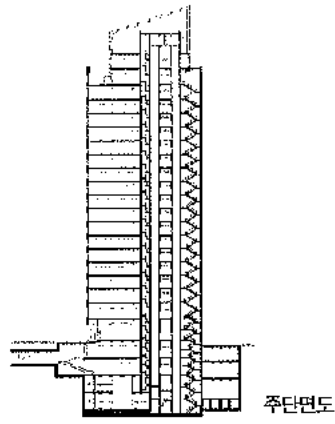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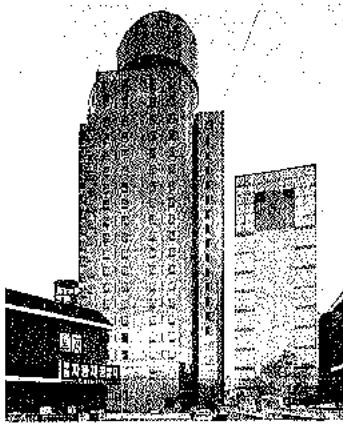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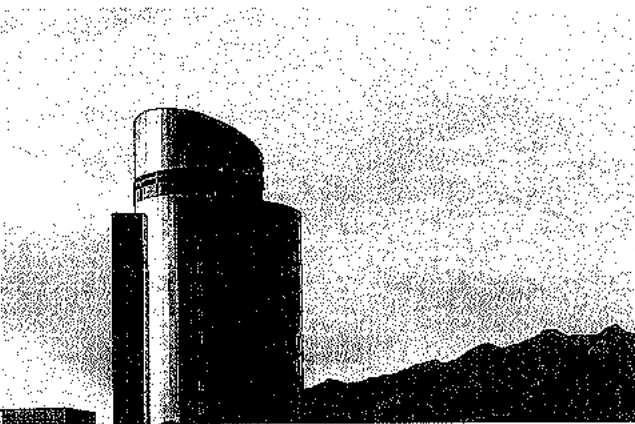
안명제 / (주)전인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Myung-Jei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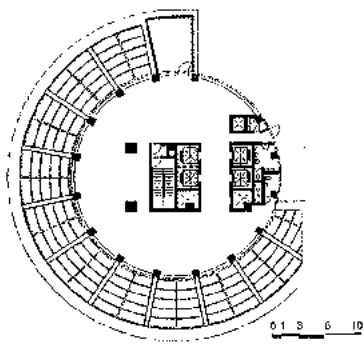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250번지 외6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상세계획구역
도로	서측50m 전면도로, 동측6m
건물용도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	2,334㎡
건축면적	1,245.72㎡
연면적	24,981.14㎡
조경면적	361.07㎡
건폐율	53.37%
용적률	837.33%
층수	지하4층, 지상20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98.8m
주요자재	외부 - 캐나디안 폴리크롬 물갈기, THK24 파스텔복층
유리내부	중국산 오석, 스웨덴산 마호가니, 인도산 멜티칼라
건축설계	조원준, 박주석, 김성렬, 김상, 황규삼, 문정호, 백현국
구조설계	손태호(일원구조)
인테리어	유기봉, 백종석
시공	대림산업(주)
사진	조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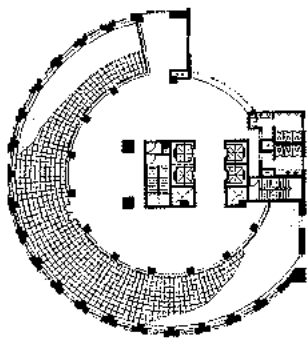
배치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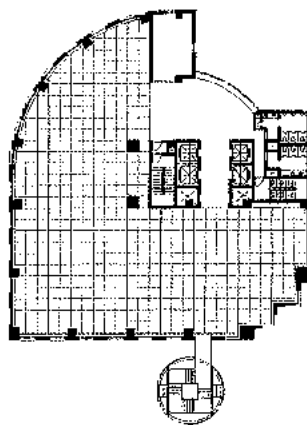
주단면도



20층 평면도



19층 평면도



3~8층 평면도



고양시립마두 도서관

Madu Municipal Library of Koyang City

이강호 / (주)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Rhee Kang-Ho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1112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지역
대지면적	36,039.30㎡
건축면적	786.77㎡
연면적	3,756.70㎡
건폐율	2.18%
용적률	5.86%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 마감 + 컬러 북층 유리
설계담당	이용석, 이용재, 고정은, 김지희

일산 신도시의 중심공원인 정발산 공원 중턱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97년 설계경기에 의해 설계된 작품이다. 한국토지공사 일산 신도시 택지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내 공공도서관을 건립, 기증하여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전인 교육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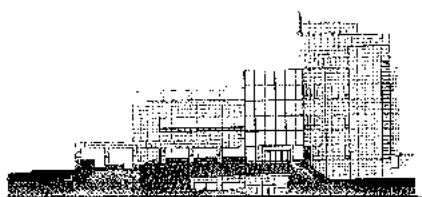
이 도서관의 대지는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여 경사면과 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유도하였으며, 일반 시민 및 이용자에게 충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 어프로치는 보행자 전용 도로측의 경사지를 따라 이루어지며, 측면에는 차량 및 서비스 동선을 분리시켜 동선의 교차를 피하였고, 특히 보행자 전용 도로의 주계단에는 사람의 시선 아래로 4개의 참을 설치하여 계단 및 계단 참에 시각적인 일체감을 부여 하였다. 따라서 이곳은 영역적으로 결합되어 부담없이 주광장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부드러운 곡선의 축을 따라 주출입구에 접근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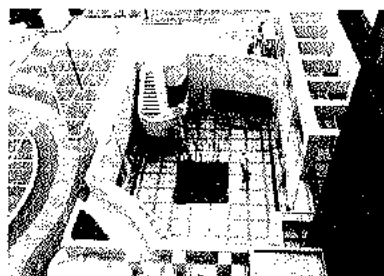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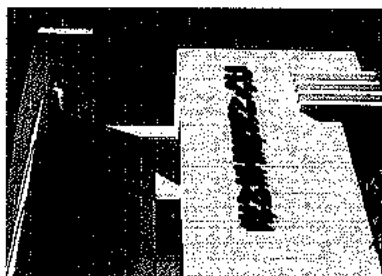
건물은 주배치를 남향으로 하고, 도심 속에 맞는 배치를 부배치로 하여 개방된 열람실을 확보하였고, 남측의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장차 효율적인 관리공간과 자동시스템으로 최소의 공간으로 최대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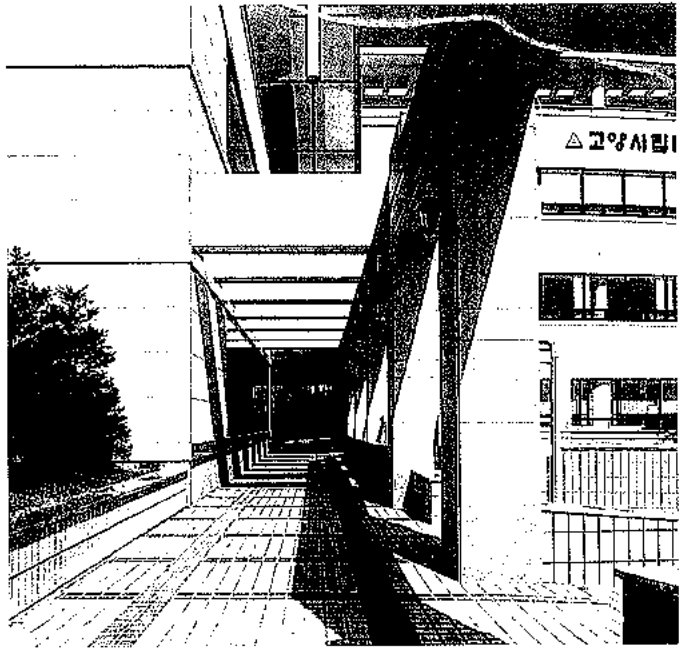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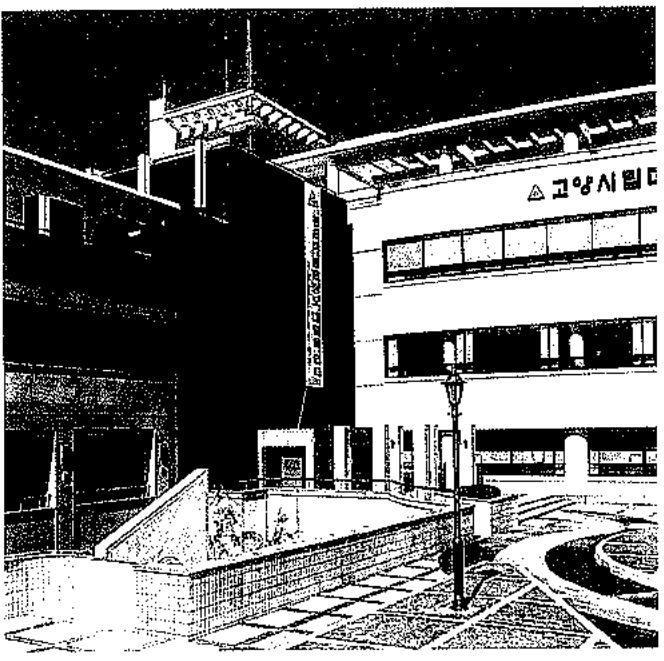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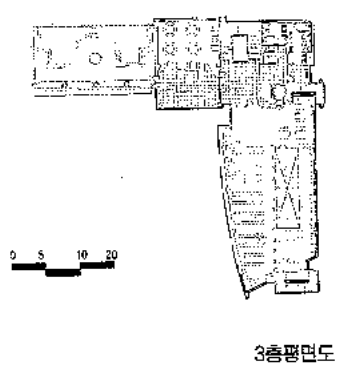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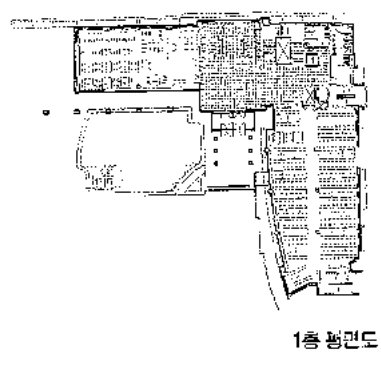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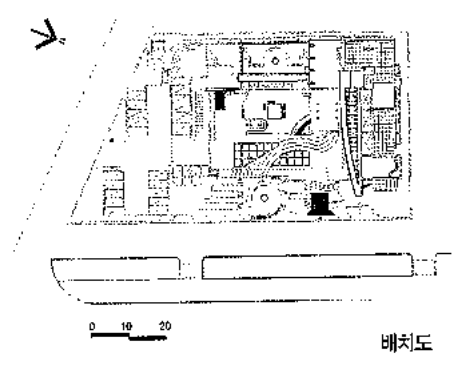
지하는 밝은 분위기의 연출을 위하여 외부와 연결된 중정형 선콘 광장을 두어 휴게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행자 도로측에 면한 시민 휴게 공간은 보다 원활한 접근감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으로 시민 서로가 향토애로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소이다.

예산삭감에 의한 설계변경과 감리의 분리에 의해 최초 설계 의도에는 다소 미흡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기는 하나, 마두도서관이 도시 문화적인 공간과 기능을 수용하고,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가 됨과 동시에 문화정보 등 지역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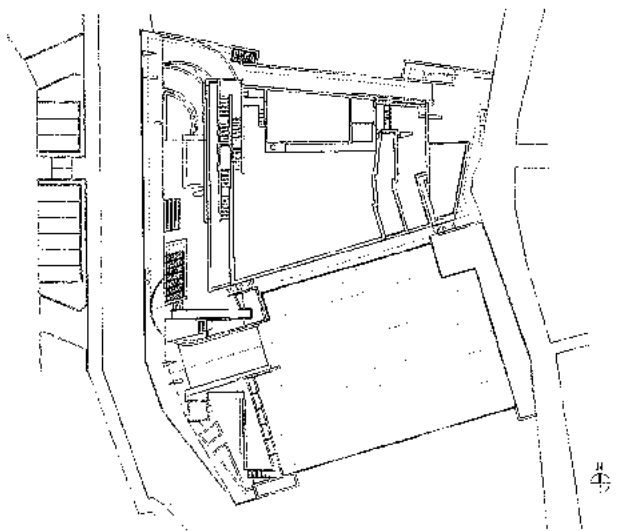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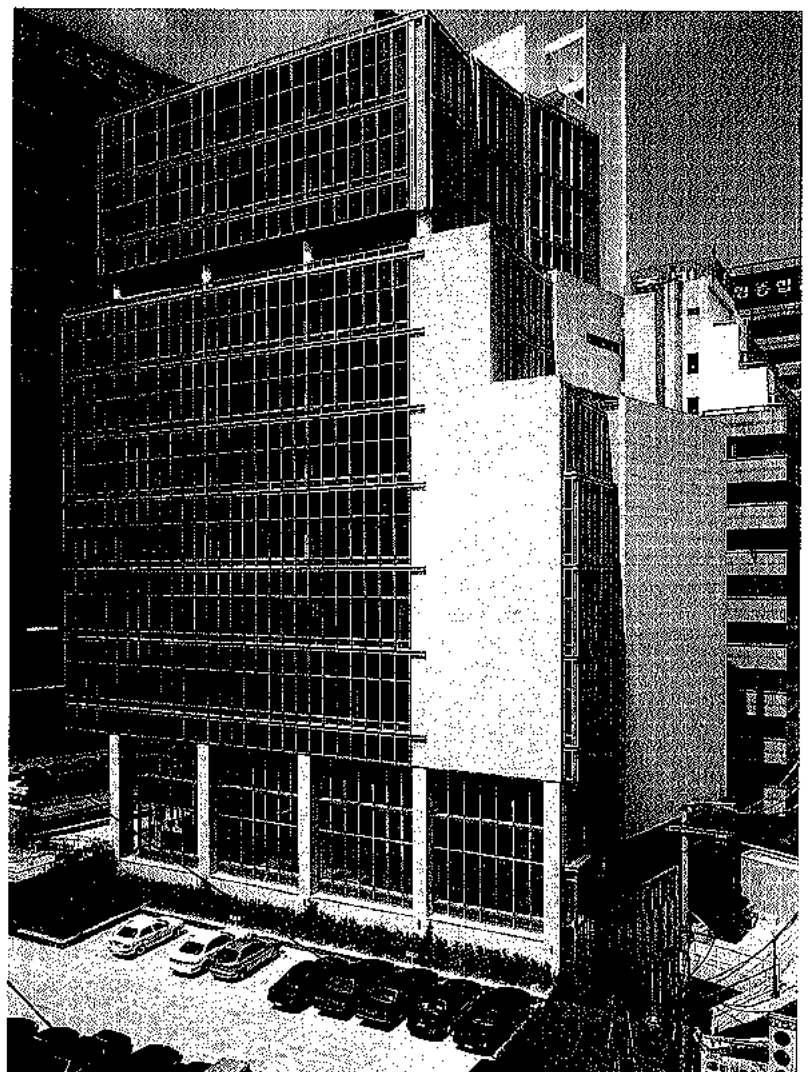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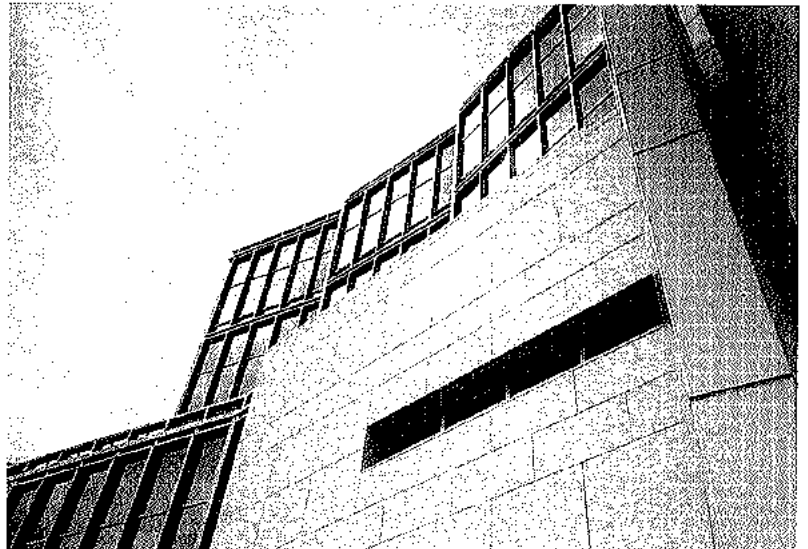


서울 YWCA Seoul YWCA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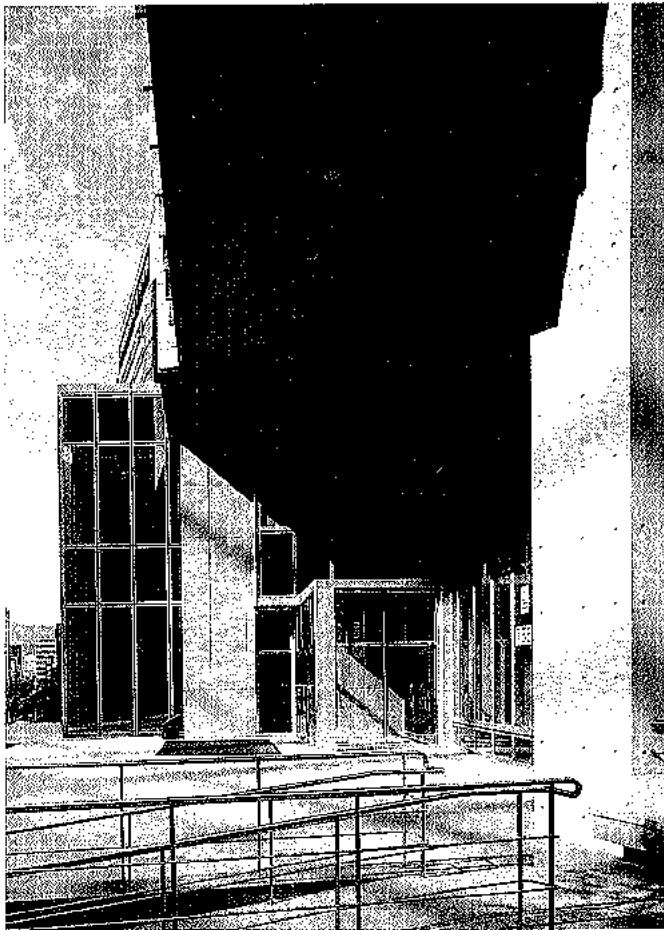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명동 1가 1-1
지역지구	일반상업, 주차장 정비, 집단방 화지구, 높이제한완화지구
용도	업무, 운동, 교육연구, 근린생활 시설
대지면적	2,988.10㎡
건축면적	787.40㎡
연면적	15,817.60㎡
건폐율	26.35%
용적률	264.14%
규모	지하8층, 지상12층
주차대수	자상 38대, 자주식 24대, 기계식 90대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바너구이, THK 18 로이트명 복층유리, THK 30 타일형 적벽돌, 외부용 무늬도 장, 노출 콘크리트



배치도



“처음 만난 자료 속 내용 - 느낌”

첫 대면 치고는 일반적이지 않아서 괜찮았다. 긴 이름의 소유주, 사단법인 대한 여자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후원회

건축주, 서울 YWCA

주소, 명동 1가 1-1

대지면적 900평, 그러나 이중 430이 땅면적. 필지분할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정확한' 측량에 대한 가상 분할선을 대지경계선으로 하여 작업진행

첫 과제는 땅의 경계설정. 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할 기회라니....

가벼운 흥분과 함께 슬그머니 불안한 생각이 든다. 웬지 두 여성단체 사이의 냉랭한 긴장위에서 줄타기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디선가 날 향해 무엇인가가 겨누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WHY?'

“WHY 이야기”

계속해서 그려지는 것은 선뿐이다. 벽이 그려지고 그 벽 따라 길이 그려진다. 길은 네길이 있다. 뒷길에서라기보다는 아랫길에서 난 길이다. 붉은색 벽돌벽을 끼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콘크리트 담장 사이엔 둔덕 사이사이로 난 하얀 자갈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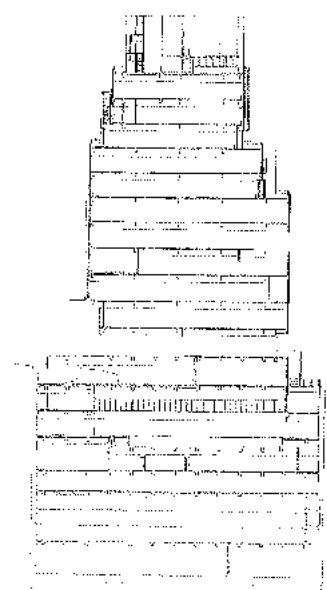
세월의 차이만큼이나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벽을 따라 올라가는 계단으로 가면 뒷길로 통하는 골목길이 있다. 계단 옆으로도 일출을 질러 뒷길로 오르는 길이 있다. 아랫 마당 끝으로 430평 땅의 가장자리를 따라 계단이 있었다. 몇 개의 벽이 있었다. 어떤 벽은 길을 만들고 어떤 벽은 공간을 제한하고 경계를 이루기도 한다.

단면선과 사선과 땅 경계선이 복잡하게 얽힌다. 뒷길에선 한 번, 아랫길에선 두 번, 한번과 두 번의 선을 맞추다 문득 한 그루 나무를 본다. 내쳐 그려본다. 땅이 되었다. 그린 길에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를 짜해가며 그려 넣는다. 땅 위로 선 세 층은 건축주의 살림집이다. 웃집이다. 웃집 마당과 하늘로 오르는 계단과 하늘 마당은 건축주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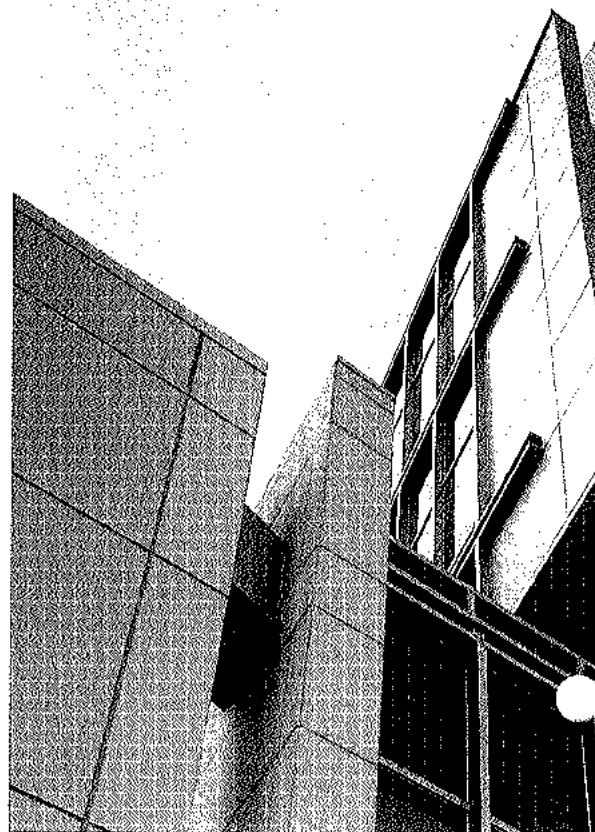
뜬 벽이 있다. 뒷 마당의 뜬 벽은 마당을 경계하는 벽 좌우로 나뉘어 웃집 마당에 매어 달린 듯 떠 있다. 뒷길가로 바깥 나온 탓에 마당이 좁다. 그러나 물이 담겨진 마당도 있고 정원도 있다. 뒷길 건너편 거울벽에 모든게 각인되어 진다. 그들 사이엔 공간이 있다. 확장되어지고 표정이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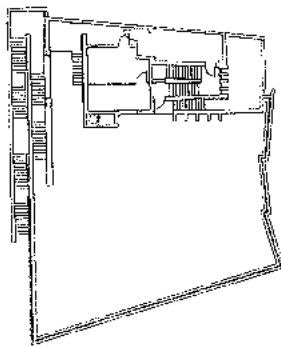
아랫 마당엔 하나의 뜬 벽 위로 저만치 뒤로 물러선 또 하나의 뜬 벽이 있다. 밑의 것은 축대 위에 앉아 하얗게 빛을 부수던 그 순박한 벽이다. 축대가 사라진 지금 그냥 떠 있을 뿐이다.

축대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다. 비어진 공간 속으로 건너편 가게들이 들랑거리며 세월을 담는다. 위의 뜬 벽은 아랫것에 중첩되어 웃집 마당을 경계한다. 빛을 머금어 더욱 희게 보였던 격자 창살이 있다. 연합회와 마주보며 맑은 유리 두 층위에서 이야기하며 또 다른 환경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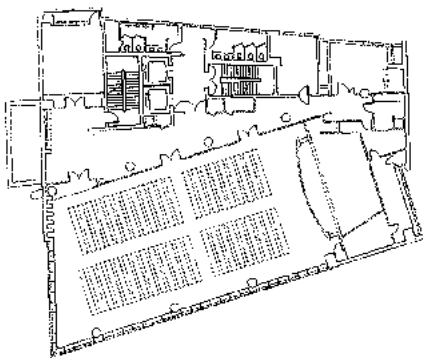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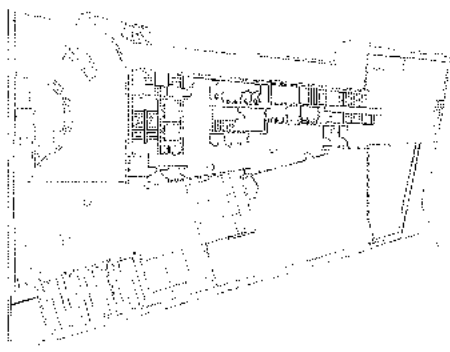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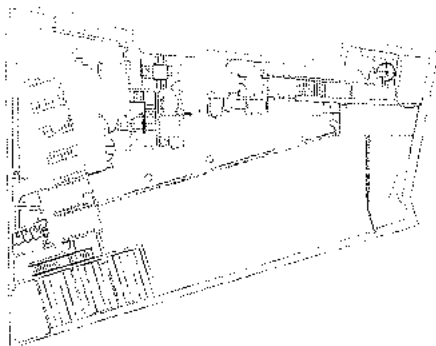
옥탑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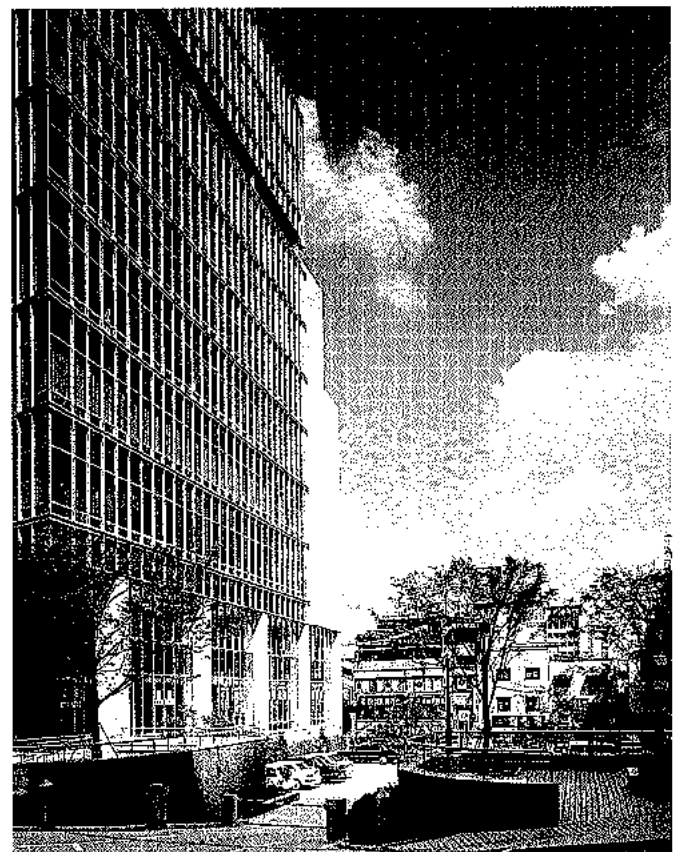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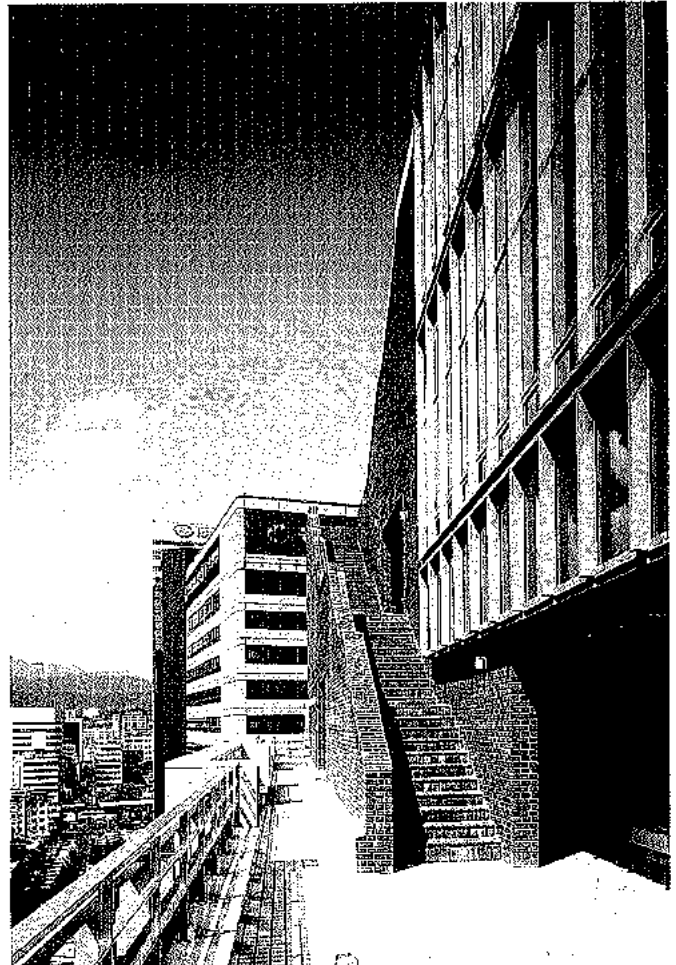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건축문화의 해, 건축가족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The Year for Families of Architecture

남상금 / 남건축사사무소

by Nam Sang-Geum

연일 새 밀레니엄을 맞는 흥분의 소리가 IMF 탈출 선언과 함께 온 땅을 뒤흔들고 있던 지난 세기의 마지막 날에도 나와 직원 한 사람이 지키는 사무실은 여전히 고요하고 나는 손에 잡히지 않은 일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꼭 2년 전의 그 참담한 상황을 벌써 잊어버린 듯한 사람들의 흥청거림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 데에도 우린 그저 평범한 해바침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물론 작년 건축문화의 해 -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 예도 문화적인 건축 아니 어떠한 설계 프로젝트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나로서는 남다른 건축문화의 해로 기억될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동안 스스로의 평가를 유보한 채 미루어 왔던 생각을 정리하고픈 때를 얻었는데, 며칠 전 그토록 기다리던 반가운 전화를 비로소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IMF 바로 직전에 설계하여 작년 5월에야 뉘늦게 공사를 완료한 천척집의 상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다. 단순히 가족의 즐거운 소식 차원을 넘어 이 소식이 적어도 나에게 소박하고도 특별한 한 사건의 종결이며, 건축문화의 해와 IMF를 기록할 사무실과 나의 건축역사임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얘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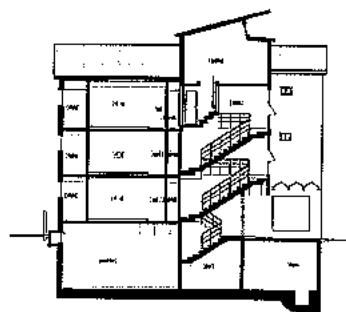
건축가의 금기

오랜 동안 선배 건축가들로부터 들어온

얘기 중의 하나가 있다. 그것은 건축가들 사이에 일종의 금기 사항으로써 말하자면 절대 집안 일에 뛰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축에 종사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닥치게 되고 또 고민하기에 충분한 격언 정도 되는 셈이다. 그것은 아마도 전문인과 비전문인 사이의 이해의 폭을 같이 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산하기 어려운 건축의 속성 때문일 것이며, 한편으로 설계자는 그의 책임과 권한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그 결과와 평가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니 그런 일에 관여하기에 가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997년 가을,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가까운 친척은 신 개발지에 투자 수단과 노후대책으로 땅을 사서 임대주택을 짓고자하니 다음으로 설계를 의뢰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나는 농담 반으로 왜 그 뽕치 아픈 일에 손대려 하나고 반문했지만, 사실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IMF 이전에는 적어도 사업적인 면에서 결과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형제들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때가 오고 나니 나는 정작 그 금기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는 쪽은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없으리란 확신이 없으므로 순전히 명예적인 문제의 두려움이다. 해야한다는 쪽은 내가 도와주어야 그래도 더 못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다소



평단면도

자만스런 직업적인 양심의 발로였다. 물론 만족스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는 건축에 관한 한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그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두려움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만들어 가는 노력을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본디 일에 부딪히기를 좋아 하거니와 이런 경우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은 내 성격이라 자연 후자의 태도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언제나 그렇듯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는 내 몫이 아닌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가족 설계캠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신도시 단독주택지 개발 사례의 전형적인 것으로 2~3층에 다가구 주택과 1층에 상점 그리고 지하층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다. 그렇지만 설계란 늘 그러하듯 깊이 파고 들수록 복잡하고 많은 대안이 요구되는 것이니 가 세대의 조합과 상점의 이미지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예산 문제와 가능한 높은 임대수익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시되고 해답을 찾는다.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도면을 펼쳐 보이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실로 재미있는 일이다. 처음엔 이해 못했던 도면 내용도 거듭할수록 빠르게 파악한다. 대개의 경우 남자와 여자들의 관심은 다르다. 한편 아이들은 스티로폴 모형을 보며 그저 신기해하고 온갖 질문을 다 던진다. 몇 차례의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가족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집을 갖게되는 실감을 느낀다. 어른들의 염려도 커진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건축설계가 어떠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계 강의 시간인 셈이다. 반면 그 과정이 생략되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또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를 수용할 만한 충족요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등 설계자의 당위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주입식 교육도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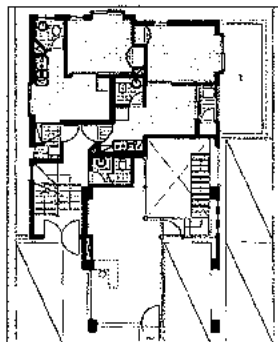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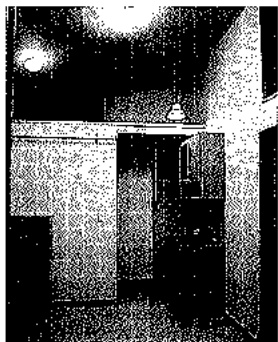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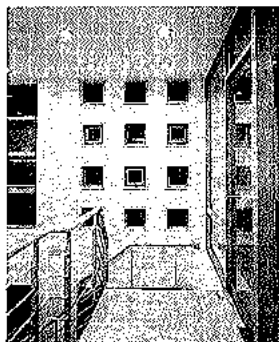
비되었다. 모든 것이 건축 바로 알기 노력의 하나이다.

최종 결정은 역시 건축주가 머리가 아프고 지겨울 정도가 되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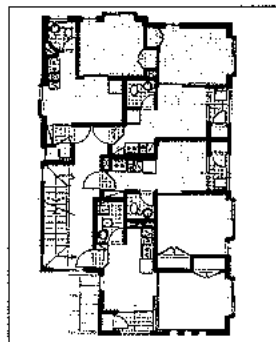
첫 번의 실패

이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공자 선정이 그것이다. 원래 이런 것에 관련한 건축주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이므로 설계자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옳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거니와 지척 반쯤의 성공으로 족해야 하는데 아예 설계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마참가지의 뒤편에 들기 고민이 시작되었다. 건축주의 선택 폭을 넓혀 주고자 했던 조언이 지나쳐 어느새 반쯤은 책임을 느껴야 될 만큼 냉정함을 잃고 말았다. 결과를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해 결국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겨울이 닥쳐오므로 계약을 서둘렀고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3주일 후 날벼락 같은 IMF 소식이 전해졌다. 믿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고, 그 파장에 대해서는 막연한 지식으로 희망적인 불안감을 서로 얘기할 따름이었다. 차츰 하루에도 수 십개의 업체가 연쇄 부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더니 드디어 아담해 봄 절반을 마친 골조공사는 중단사태를 맞고 말았다. 금기의 격언을 가르치기라도 하듯 건축주에게 너무 미안해야 했고 가족들의 근심을 잠재우기가 어려웠다.

곧 재개한다는 친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은 날로 쓰러기만 쌓여가는 것 같았다. 전세가가 폭락하는 지금 건축주는 집을 완성해도 공사비 지불할 대책이 없었다. 그냥 두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지만 공사장 주변은 어지럽혀 있고 비가 내려 지하실은 수영장이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피로움을 하소연했다. 인부들은 노임도 못 받아서 놀상 사무실로 전화 해서 관계없는 나를 불렀고 원통함을 토로했다. 실로 시련이 닥친 것이다. 시공자에게는 종용해 보지만 이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건축주와 함께 가족들 도움으로 공사장 정리를 하고 지하실 물도 퍼내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야 했다. 그러다가 또 한해가 저물었고 주민들 원성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러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때마침 풍전등화가 된 건설업계는 노임하락으로 그 지역에서는 저렴한 공사비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건축주는 결심을 굳힌 듯 직장동료로부터 소개받은 후속 공사자와 사무실을 방문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인테리어 공사자라는 상대방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고, 공사비는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되었다. 상상치 않은 결과를 예측케하는 순간이지만 한 번 사고자가 되었으니 너무 깊이 관여하기가 민망하게 되었다. 이윽고 이 심란한 처지에서 하루 빨리 탈출하려면 두 번째의 겨울공사도 불사해야 했고, 또 내년 봄 임대적기에 완성할 수 있었다. 남은 골조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에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지 못한 크리스마스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의 매일을 공사장 출근을 하다보니 이미 감리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 거꾸집 뜯는 소리가 들려야 할 공사현장이 조용했다.

두 번의 실패

며칠 째 현장사무실 문은 잠겨있고, 인부들은 손을 쭈서 박고 웅크린 채로 책임자를 찾고만 있었다. 책임자는 건축주에게 문서를 보냈다. 설계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니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으며 정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똑 같은 상황이 또 한번 발생한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건축주와 인부들과 함께 떼지어 그 추운 연말에 책임자 집을 찾아 나섰다. 눈이 펄펄 쏟아지는 깊은 밤, 봉고차 안에서 그 집 대문만 바라보고 온다는 사람을 마냥 기다려야 했다. 참으로 나는 금기사항을 배우는데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었고, 건축주는 집짓기의 참 현실을 깨닫는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 건축주의 고통과 가족의 실망감은 물론 믿을 사람이 없게된 허탈감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간신히 IMF가 준 교훈이라고 자위하면서 사태수습을 해야했다. 이쯤 되고 보니 더 이상 체면유지 노력은 불필요하였다. 더 나은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으므로 급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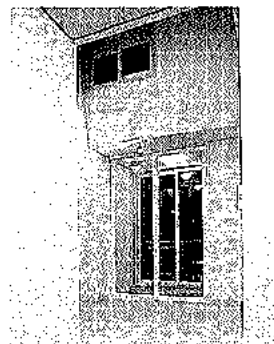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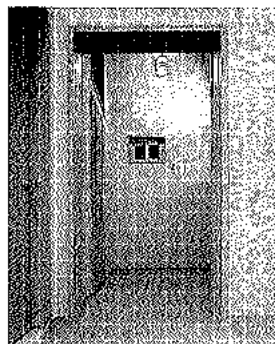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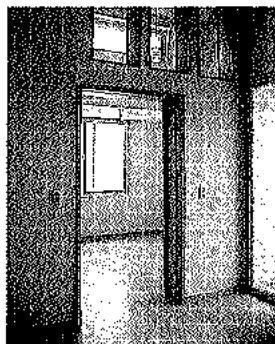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공사 마무리를 하겠으니 건축주는 공사비 준비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집짓기의 즐거움 - 비우하우스를 연상하며

1999년 3월초, 봄기운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사람들은 제각각 할 일들을 찾아보려고 분주했다. 설계일도 없었으므로 직원들은 오히려 자신이 설계한 작품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완성할 평생 얻기 힘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새벽 6시 출근부터가 설계사무소 생리에 익숙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결정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다. 건축주와 함께 직접 집짓기의 체험을 한다는 뜻도 있었지만, 이미 손해가 생긴 부분을 메꾸려고 직원들이 손수 땀을 흘려야 했으며, 건축주는 퇴근하고서 밤에는 뿔정리에 참여했다. 자신의 손해와 땀이 맺힌 건축이야말로 더없는 애착이 될 것이라는 과격한 요청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건축주는 오히려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과에 대한 상상을 해가며 예전에 못 느낀 집짓기의 즐거움을 한껏 맛보는 것 같았다. 그 식막할 것만 같은 공사현장의 분위기가 서로의 약속과 이해를 높혀가려는 노력 끝에 즐거운 일터가 되었다. 참으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한 공사현장, 우리 사회의 빈틈으로 얼룩진 곳, 그러나 다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한 없이 보여주는 곳이다.

연결 안되는 공간 필름 조각들

예상외로 품이 많이 들어 태산 같은 고민을 하는 목수 반장, 도면 잘못으로 난간을 다시 고쳐야 하는 철물 제작자, 벽 위치가 바뀌어 벽돌을 헐고 다시 쌓는 벽돌공과 스위치와 콘센트를 다시 매입하며 찌푸리는 전공, 콘크리트 벽이 틀어져 하루 종일 시끄러운 기계소음과 먼지로 시름하는 우리 직원, 붙여 놓은 타일을 밝아서 투덜대며 다시 붙이는 타일공 아저씨, 다른 작업이 안되서 일을 못하겠다고 망치만 들고 불평하는 설비 배관공, 일 같지 않은 일이



라고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유리공, 라면 먹을 시간도 없다고 재촉하는 미장공, 색상결정이 늦어져 하루 품 깨졌다고 나중에 보상하라는 페인트공, 수직선이 안 맞은 창틀을 기어코 우기더니 검측 해보고야 겹연쩍어 하는 새시공, 위험하니 내려 오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비계줄 타고 다니며 검사하는 우리 직원, 비계에서 떨어져 부러진 이 치료비 달라고 버티는 목수, 안보이면 담배 피우고 보이면 대충하는 청소 인부,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옆집 할머니, 지난 번 달아난 인부들이 외상으로 먹은 식사비와 철물 값 달라고 아우성인 아줌마 아저씨, 집세가 너무 비싸다는 목덕방 아줌마, 이사 날짜가 내일 모레인데 다 되겠냐고 수 십번 되묻는 입주 여정자 아가씨, 자기 집 좀 수리 하느데 부족하다며 모래와 시멘트 빌려가는 전혀 모르는 아저씨, 집 구조가 좋다며 자기 땅에 똑같이 설계할 때 설계비가 얼마나고 묻기만 한 황당한 건너편 땅주인, 고철 무게 달아서 돈 주겠다고 몇 포대 차에 싣고 가서는 소식 없는 고물수집상, 일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충고하는 제법 똑똑한 인력 시장에서 온 친구,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나 하고 풀 죽은 젊은 신혼의 목수 조수.....

건축 의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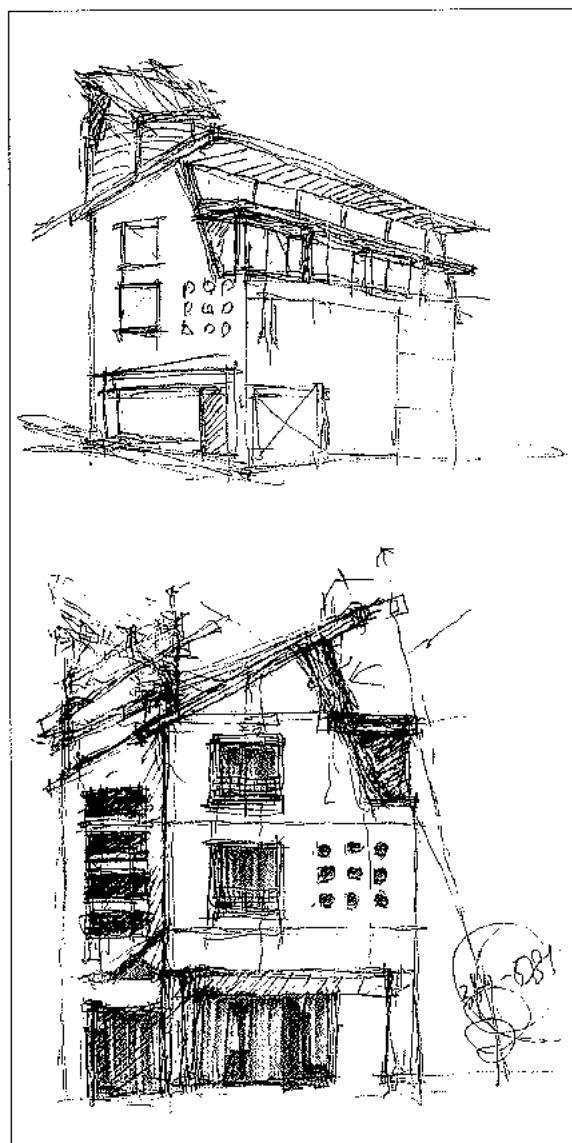
다행히 공사 완료 전에 10가구의 원룸 임대는 완료되었다. 덕분에 공사비 지불 약속이 지켜졌고, 나는 그것으로 큰 시름을 덜게 되었다. 그런데 1층과 지하층 상점 임대는 어려웠다. 주변에는 빈 상점이 널려 있었고, 침체된 분위기는 좀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막연한 기대감으로 위안을 삼았다. 사실 건축주는 지하층을 없애려고 제안한 것을 다소 평범하지 않은 구성으로 1층과 지하층을 연결지어 내가 고집을 부린 것이 못내 부담을 떨쳐 버리기 어려웠다.

건물이 완성되어 온 가족이 아직 비어있는 지하실에서 거꾸집에 상을 차리고 벽돌을 의자 삼은 채 고기 파티를 열었다. 가족들의 염려도 이젠 기쁨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리 저리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첫 경험인



다락이라는 곳을 오르락 내리락 즐거워하며 제 나름의 평을 내린다. 한 쪽 벽면에는 그 동안 눈물어린 과정들을 촬영한 슬라이드를 비춰 보고 이미 오래 전 일 같은 기억 되살리며 건축주와 우리 직원 그리고 가족들이 감회에 빠졌었다. 이 집은 그저 평범한 집이다. 놀랄만한 공간의 감동도 없이 그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세밀하게 조합해 놓은 삶의 도구일 뿐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저 좋게 봐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많이 절제된 설계작품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네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담아 보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작품 보다는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도 IMF를 색다른 기억으로 채우고 있다. 많은 교훈을 안겨준 그 길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 보람의 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만 그 이후로 헤어져야 했던 모든 직원들과 다시 만나 밤낮을 부대끼는 그런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가족들에게는 좀 더 건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스케치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1)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Le Corbusier의 건축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건축의 전통

- architecture parlante 개념의 소멸과 새로운 전통의 등장 -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Alan Plattus는 The Le Corbusier Guide에서 Le Corbusier란 이름을 20세기 건축을 대변하는 중대한 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 건축분야에 나타난 deus ex machina로 취급하고 있다. 이 기계장치는 Le Corbusier가 표방하였던 기계미학의 정신을 떠올리게 할뿐만 아니라 그가 모던건축의 drama 내에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음과 아울러 위기를 가져다 준 동기임을 암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표현이기도 하다.

건축계에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적 예로써 그의 작품이 숭상되던 모더니즘의 시대는 실로 Le Corbusier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더니즘 말기에 - 혹자는 아직도 모더니즘이 생생히 살아있다고 주장하므로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겠지만 - 그 운동이 가져다 준 폐해 때문에 많은 비난이 Le Corbusier에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으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도시적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다. 건축의 차원에서 거론되던 문제로는 건축물이 지니는 냉혹한 얼굴과 무표정성, 무의미성, 무상정성에서 오는 인식의 혼란이 많이 거론되었다. 이것의 동기를 밝힌다는 것은 단지 몇 가지의

디자인 개념만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문제지만 Le Corbusier의 건축 디자인 요소를 채움하여 원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흔히 Le Corbusier의 건축과 건축론은 기능주의, 합리주의, 모더니즘의 건축 등으로 이야기될 뿐만 아니라 플라톤주의, 데카르트주의 등으로 분류를 하곤 한다. Le Corbusier의 건축은 수많은 분석과 연구의 대상이었으므로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이러한 분류와 규정이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많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주의, 정신을 가리키는 명칭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대부분의 연구는 사변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형이상학적 설명에 더욱 힘쓰며 실질적으로 건축가의 방법론과 연결하여 규명함은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다.

우선 Le Corbusier는 그가 숨기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주의가 남긴 유산으로부터 혜택을 누렸으며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났다. 이런 형식주의는 고전주의로부터 온 것인데 지금까지 연재하며 설명한 프랑스의 18세기 건축분야에서 볼 수 있는 이론과 실제, 공공건축과 주택건축의 명확한 분리와 구분은 이것이 지니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Le Corbusier는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지금까지 연재한 18세기의 건축가들이 그러했듯 이상적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 그리고 삽화가 들어간 건축이론서 등에 많은 정력을 기울였다.

Le Corbusier와 그의 선배들, 그 중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Ledoux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면 가장 커다란 상이점은 그 내용에서 보다는 행해진 작업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Ledoux는 생의 말기에 건축이론에 관한 스케치와 비망록을 작성하여 사망 직전에 출간한 반면 Le Corbusier는 이미 어렸을 때 스케치를 시작하여 모두 간직하기 시작하였으며 20대 초반에 이미 여러 저술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Le Corbusier에게는 이러한 작업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연속된 것이며 후기의 작업이란 그것을 보충하고 완성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18세기 Ledoux의 작업은 도시계획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hôtel계획안들 그리고 저술활동으로 이어진 반면 Le Corbusier는 저술, 주택계획안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이어졌다. 요약하면 Le Corbusier에게는 이론

이 실행보다 선행되었던 것이다.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대부분의 Le Corbusier의 사상과 이론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이미 견고히 정립되었다. 1914년의 Dom-ino이론, 주택의 원형(原型)을 제시한 1920년의 Citrohan주택 계획안, 동년 8월의 l'Esprit nouveau(레스프리트 누보: 신정신)誌 창간, 1922년의 Ville contemporaine de 3 millions d'habitants (3백만 거주인의 현대도시) 발표, 1923년의 Vers une architecture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 출간, 1925년의 Plan Voisin (브와쟁 계획안)이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1920년부터 불과 5년만에 건축 및 도시계획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적용한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며 출판물 통하여 널리 전파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의 건축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Oeuvre complete 1권(외브르 콩플레트: 전집 1권) (1910-1929)을 살펴보면 건설되었거나 계획안에 그친 주택계획안들이 게재되어 있으며 20년대 후반기에 나타나는 대규모의 작품들, 예를 들어 국제연맹회관 (1927-1928), Mundanaeum (1929) 모스크바의 Centrosoyuz 계획안 등이 실려 있다. 1930년대 초는 전통적인 가로를 없애고자 하는 투쟁의 시대로서 소비에트궁(1931), 구세군건물 (1932)등의 건물에서 그 정신이 구현되고 있고 이론과 실재가 병행함을 볼 수 있다. 1930년대와 제1차 세계대전의 시대에는 도시계획이론이 계속 탄생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1935년의 Ville radieuse(빌 라디외즈: 빛나는 도시)가 있다. 빛나는 도시는 후에 Marseille의 아파트 Unite d'habitation(위니떼 다비따시옹)으로써 부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1950년대부터 그의 사후에까지 이어진 편찬의 Chandigarh 계획은 실현된 유일한 구체적 도시계획안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Le Corbusier의 '빛나는 도시' 계획안은 18세기의 혁명사상에서 볼 수 있었던 사회화적이고 형식주의적이었던 경향을 띄고 있던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새로운 유토피아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빛나는 도시에서는 계몽주의 이후 사상가들이 이상으로 하였던 이성(理性)이 전체를 지배한다. 지면의 공간은 소수 개인의 사유지로 할당되기보다는 사회에 속한 것으로 다수인을 위한 공공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 된다. 빛나는 도시의 시

민은 불결한 전통적인 복도식 도로(rue corridor: corridor street)가 제거됨으로 광대한 공터 - 공원 - 에 드문드문 배치되는 고층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환기, 일조와 시각조건 등이 양호한 위생적 도시에서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계획되었다. 미화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사항 가운데 한가지는 빛나는 도시의 출현으로 과거엔 촘촘한 텍스처의 도시 내에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평면형태의 광장이나 공원을 만듦으로 플라토닉한 보이드를 만들던 노력이 Le Corbusier에게는 보이드 내에 솔리드한 유클리드 기하학적 건축물을 배치하는 노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의 도시가 공원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새로운 도시는 공원이 도시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계몽주의 시대의 작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해 온 단순한 유클리드 기하학적 형태의 건물들이 도시적 조직 내에 플라톤의 철학으로 직조된 것이다. 이 도시에서는 Auguste Comte에 이르러 최고점에 다다른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생각을 반영하듯 모든 도시의 요소는 분리되고 분절되며 위계화된 후 각 카테고리 묶여져 소위 합리적인 zoning의 기반이 된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도시는 다시 또 물리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화적인 측면, 정신과 도덕적 측면에서도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건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조건과 의도를 한층 더 강조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다.

Le Corbusier의 도시에서 건물군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요소는 Citrohan과 Dom-ino이다. 신고전주의의 hôtel 또는 villa와 마찬가지로 각 단위체는 독립시켜 개체로 분리하여 놓아둘 수도 있고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복제하여 늘어놓거나 쌓을 수 있다. 두 가지에 모두에서 구조체계가 자유로운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공간개념을 지닌 건축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

두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Citrohan은 측면이 막히고 전후가 트인 장축형의 평면을 가진 공간으로서 방향성을 지닌 것이지만 Dom-ino는 사방이 모두 트인 비방향성의 공간이란 점이다. Dom-ino는 Laugier가 주장한 hutte primitive(primitive hut)의 20세기판 변안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빛나는 도시의 근본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자유평면을 통한 새로운 건축을 Dom-

ino가 제시하였다고 말한다면 빛나는 도시는 자유 사회의 새로운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고 하겠다.

Dom-ino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점은 슬래브 사이에 독립원주(圓柱)가 서 있어서 시각적으로 그리드를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지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내에 배치된 원통의 오브제 혹은 조각물처럼 지각되는 것이다. 이런 형태적 중요성은 외부 mass의 구성에서도 존중이 된다. Citrohan이나 Dom-ino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또 이들에 의하여 형성되는 유클리드적 기본 기하학의 형태는 Le Corbusier의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미학적 구현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개념의 연장은 명료하게 분절된 외부의 독립 mass로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우리는 주택도 자동차와 같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끝없이 무수한 수의 기관(器官)들을 자립적 상태로 담고 있는 단순한 표피... 그렇다. 철근콘크리트는 ‘루이’(왕들) 또는 ‘르네상스의 평면을 보존하려 한다면 비용이 든다. 철근 콘크리트는 작은 집에 자유평면을 가능케 한다’ 그 뿐만 아니라 Le Corbusier는 Dom-ino를 통하여 불건전한 프랑스 고전주의의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히 새롭게 합리적인 구조의 건축으로 이갈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날카로운 지적: ((루이)(왕들)과 성기 르네상스(와 같은)) 고전주의의 타협성(妥協性)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평면은 고딕의 경쾌한 건강상태, 고딕의 합리성을 되찾았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되찾았다).’

새로운 구조방식인 Dom-ino로 인하여 얻어진 단순한 유클리드 형태의 파사드는 미학적인 충족조건과 구조적인 충족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구조적인 제약으로부터 건축을 해방시킨 결과로써 채워진 자유 파사드는 내외의 공간의 직접적 연결과 통합을 가능케 하였다. 주택의 내부는 건축의 문제, 그 외부로부터는 도시계획의 문제임을 주장한 Le Corbusier의 말을 수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건축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는 차원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Le Corbusier의 57가지 건축의 요점 가운데 하나인 자유평면(plan libre)은 커다란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Le Corbusier의 건축평면을 살펴보면

자유평면의 개념은 큰방을 만드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이란 적절히 막히고 어떤 형태를 지니며 연속적인 벽이 합리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건축을 살펴보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서비스 공간뿐이다. 평면에서 서비스공간은 확실히 규정되어 있고 공공의 영역은 단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건축의 평면에서는 상이한 성격의 공간들이 분할, 분절되고 있지만 자유평면에서는 공간에 놓여 있는 오브제들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공간의 연속성, 전체의 통일성, 단일성 등은 각 부분의 독자성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방은 - 전통적 의미에서의 방이라고 부르는 부적절하고 불가능하지만 - 장소성을 상실하고 전이(轉移)의 맥락 속에서 부유하고 있을 뿐이다. 방은 확정된 어떤 공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 단지 영역의 개념만을 가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아이러니컬하지만 이한 공간엔 어떠한 이질적인 것도 침입하기가 어렵다. 아리도 자유평면이 가져야 한다고 작가가 생각했을 법한 관념적 공간요소 가운데 하나인 절충과 화해의 성격은 그 공간이 지나야 하는 간단없는 연속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획득되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시 보조를 같이 하였던 입체주의(Cubisme)와 순수주의(Purisme)의 회화는 각 형상을 그와 유사한 모양의 이미지조각으로 부수어 모호하고 다의적인 새로운 관계로 재구성을 한다. 그러나 Le Corbusier와 그의 동료 건축가들은 전통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새로운 형태의 조합을 제시하고 있다. 입체주의가 전통적 이미지의 새로운 버전을 제시하였다면 자유평면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자유평면은 전통적인 평면의 형태를 분쇄하여 얻어진 파편으로써 새로이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를 완전히 역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평면에서 여분의 자리를 차지하던 요소들은 그의 새로운 평면에서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건축과 관습, 그리고 architecture parlante의 문제를 뒤집어 버리고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든 불씨는 바로 자유평면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평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이론을 동원하여 아귀가 딱 들어맞도록 설명하기가 가장 어정쩡한

사항은 아마도 파사드일 것이다. 자유평면과 Dom-Ino의 구조는 연속 파사드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임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 Corbusier는 연속 파사드를 고집하였고 불투명성과 투명성을 사용하여 건축물에 다른 건축가들이 전혀 이룩하지 못한 정도로 에너지, 깊이, 긴장감, 의미와 철학을 부여하였다. Mies에게 있어서 파사드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Gropius에게는 파사드란 굴치 아픈 문젯거리였다. Terragni에게 있어서 파사드란 평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디자인 요소였다.

이런 예(例)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파사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다. 단지 Le Corbusier와 Terragni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벽의 예술적 처리를 위해 꾸준히 연구한 사람들이었다. 어찌되었든 내부와 외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전체 건축물의 얼굴이 되는 파사드는 자유평면의 개념과 상치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연속 파사드의 주장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있어서 수직성의 고려와 거론을 거부토록 하는 요소가 되었고 모던건축물 중 걸작이 되는 파사드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만치 희소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architecture parlante의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은 그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협회소식 / 70

건축계소식 / 72

현상설계 / 80

해외잡지동향 / 86

법령 / 92

신공법 / 101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3

99총목차/ 105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자재정보시스템 구축

5천여 건축자재업체 대상으로 추진

우리 협회가 인터넷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자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실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건축자재는 건축분야 전체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건설분야 표준화 중반기추진계획에 따라 건설자재의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따른 기초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사실상 자재업체의 염세성 등 건설환경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건축분야의 경쟁력 약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우리 협회에서 구축하는 자재정보는 건축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까지 건축자재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에 구축되는 자재정보의 주요내용으로는 업체의 카달로그 등 일반정보는 물론 자재별 상세도, 특기사항, 물성, 가격 등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시킴으로써 건축사 및 시공기술자 등 건축관계 전문가가 실무에서 직접 비교 선택하여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 건축계의 큰 관심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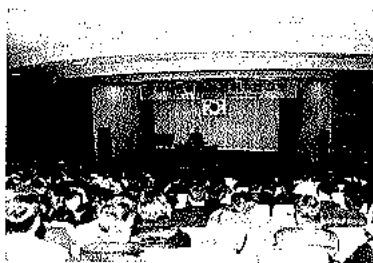
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5천여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체를 통해 정보를 분석·정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건축자재업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재정보를 통해 자재기술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축되는 이번 건축자재정보의 구축은 공익적차원에서 구축되는 것으로써 정보를 집대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구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협회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자재업체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후 유지관리차원에서 월 신문구독료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업체가 부담할 계획이다.

건축사 면허증 교부

지난해 12월 22, 23일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에서는 '99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했다. 협회 대강당에서 있는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교부는 최종합격자 1,119명에게 지난해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소양교육후 이루어졌다.

이사회 개최

99년도 12, 13회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14일(제12회)과 12월 28일(제13회)에 개최되었다. 업무 보고에 이어 전회 화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예비비 사용 및 차입금 상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99년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예비비 및 잉여금으로 입회비 임의적립금에서 차용한 일시차입금 잔액을 상환-128,400,000원)
- 제2호의안: 회관임차인 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김옥반 → 진현오)
- 제3호의안: 2000년도 가예산(안) 승인의 건
- 99년도에 기 예산편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관련비용을 이월, 2000년도 가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승인함.

〈협의의안건〉

- 제1호: 건축사신용카드 단체가입에 관한 협의
- 건축사신용카드의 사용범위 확대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검토 후 재협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UIA회원단체 가입에 관한 건
- UIA회원단체가입에 관한 제반적인 추진사항을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시도건축사회 재정지원에 관한 건
- 시도건축사회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예산편성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13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2000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정관 개정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연장에 따라 위원의 임기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2000년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재협의하기로 함.
- 제2호의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시 재협의하기로 함.

광주건축사회, '99건축·도시 사진전

99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광주건축사회(회장 안태경)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일반 시민에게 건축과 도시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바른 건축문화를 가꾸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도시 사진전을 개최했다. 전 사진작가협회장을 지낸 윤용대씨가 심사를 맡은 이번 사진전은 총 68점이 응모하여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16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전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조흥문화관에서 입상작과 회원작품 27점 등 총 50점이 전시됐다.

2000년도 사무식

본부, 서울건축사회, 서울신협 새해업무시작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는 1월 3일 오전 10시 사무식을 갖고 2000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합동으로 열린 이날 사무식에서 이의구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 임직원이 단결해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역대회장과 협회 임원, 서울건축사회 임원들은 사무식이 끝난 후 신년교례회를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경남건축사회, 제9회 경남건축대전

대상에 'Stream and Alteration'



경남건축사회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 경남지역추진위원회가 후원한 제9회 경남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11일 시상식을 가졌다. 일반공모 부문에 86작품과 회원공모 부문에 6작품이 출품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공모 부문에서 대상은 최승호, 안승호(경남대)의 'Stream and Alteration' 이, 최우수상에는 신동일, 황성운(인제대)의 '꽃과 도심' 이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우수상2점, 특선 6점, 입선 20점이 선정되었다. 회원공모 부문에는 고성군소가야유물전시관(이상건축), 경남도립미술관(서진건축), 갑을가든(두양건축) 등이 금상으로 선정, 수상되었다. 심사는 오인환(경상대), 서유석(창원대), 이호열(밀양대), 이강제(창신대), 주우일(거창전문대), 최명구(경남도청 주택과) 씨 등이 맡았다.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사법중 개정법을 공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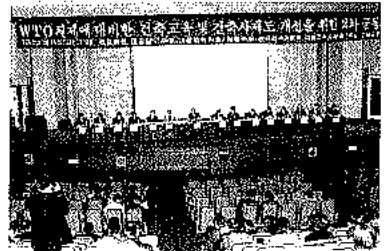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사법중 개정법률(안)이 제15대 국회본회의 제209회 제1차 임시회의(99. 12. 28)에서 승인되어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 함.(제2조제1호 및 제7조)
- ▷ 건축사는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협회에서 회비징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폐단이 커 이를 폐지함.(제22조 삭제)
- ▷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제23조 제1항 및 제7항)
- ▷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제31조 내지 제33조)(이번호 92 쪽 참조)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

1월 14일(금) 오후 1시,
대한건설협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19, 20일에 열렸던 '건축교육, 건축사제도 개선 및 건축교육인증원 발족을 위한 1차 공청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WTO체제에 대비한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다. 이 공청회는 건축교육, 설계실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국내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요명제하에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지난 1월 14일(금) 오후 1시부터 대한건설협회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대한건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마련된 건축사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들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건축학회가 제시한 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건축학과(설계전공) 교육연한을 현행 4년제에서 외국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하고, ▷ 대학건축학 교육의 인증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건축교육인증원」을 설립하며, ▷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은 학부에서 건축설계전공과정 5년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건축설계전공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하며 실무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국

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실무훈련, 등록건축사의 관리, 건축사시험운영 등을 담당할 한국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건축가연맹(UIA)총회에서 「건축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채택됨으로써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에 대한 국가간 협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국내건설 설계시장을 지키고 건축사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건축사 관련제도의 대대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관계전문가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차원의 「건축사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는 교육제도개선에 대해 임창복(성균관대 교수), 교육인증에 대해 박한규(전북대 교수), 건축사제도 및 보완에 대해 이관영(한인건축), 건축사 시험제도에 대해 김영섭(건축문화)씨가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호진(건국대 교수), 김광현(서울대 교수), 조웅수(동아대 교수), 전영일(동국대 교수),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이상준(까치건축), 이종호(메타건축), 류재현(세민재단), 이영근(건교부), 최수택(교육부)씨 등이 참여했다.

2000년도 제7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커미셔너 선정

김석철(아키반건축)회원 선정

2000년도 이태리 베니스시에서 개최되는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커

미셔너로 김석철(아키반건축, 56세) 회원이 선정됐다.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도시(CITTA: LESS AESTHETICS, MORE ETHICS)'를 주제로 하여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 개최될 예정이며, 건축전 총감독으로는 이태리 건축가인 마시밀리아노 푸카스(Massimiliano Fuksas)가 맡게 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차병석)에서는 전시주제에 맞춰 건축전 참가의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말 총 10인의 한국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전 참가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깊은 토의를 거쳐 김석철회원을 커미셔너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커미셔너로 선정된 김석철회원은 95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설계자로서 그간 예술의 전당, 서울 2000비전플랜 수립 등 다채로운 작품 경력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는 첫 번째 건축전의 한국관 커미셔너로 최적의 적임자로 선정됐다.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전시주제, 총감독의 제안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베니스비엔날레 인터넷 사이트(www.labiennale.org)를 참고하거나 문예진흥원 문학미술팀(전화 02-760-4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0년 간향의 집우 집宙 쇼SHOW

1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월간「건축인 poar」에서는 2000년 3월호로 창간 4주년을 맞아 아를 기념하기 위한 '집우 집宙 쇼SHOW'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1월 7일 제1라운드 건축인poar in place전을 시작으로 제4라운드 2042 도시패러다임의 스펙트럼전을 3월 5일까지로 약 2개월동안 진행된다.

>1라운드:건축인poar in place전

월간 건축인 poar의 출생을 전후한 간향(間響)의 배경과 이후 현재까지 만 4년에 걸친 건축언론으로서의 길을 뚫으며 발생시켰던 문화의 생산구조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 건축저널의 새로운 대중적, 사회적 평판을 이끌어온 간향의 미디어세계관이 펼쳐진다.

- 일시: 2000년 1월 7일~16일(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김병운(백제예술대 건축과 교수)

>2라운드: 건축가 최삼영의 the roaring forties전

비주류 건축가의 독립전. 그는 거친 동량위의 건축가 모두를 비주류로 해석한다. 특별한 배경도 없이 독립한 40대 건축가가 건축빙하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비장한 세계를 보여준다.

- 일시: 2000년 1월 21일~30일(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김정후(스튜디오 O.N.E 대표)

>3라운드: 건축가의 패션(the architecture fashion)전

건축가들에게 못짓기를 주문하는 사회. 건축가는 패션을 통하여 또 하나의 건축만들기에 몰입한다. 실용성으로부터 이념형의 옷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전시장에서 2000년 벽두에 건축가가 내지르는 다양한 스타일과 정신성의 세계를 실험하는 일군의 건축가를 발견하게 된다.

- 일시: 2000년 2월 11일~20일

(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함성호(시인, 스튜디오 이온 대표)

▷4라운드: 2042도시패러다임의 스펙트럼전

GAIA projects전 이후 만 2년만에 선보이는 건축가 조택연의 미래건축전. 동서양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042년의 공간을 판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건축가의 전망을 보여 준다.

- 일시: 2000년 2월 25일~3월 5일 (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이종건(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전진삼(코디네이터, 건축발전연구소 소장, 02-2637-3890)

제3회 아시아 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

「신세기의 아시아 건축의 도전과 역할」 주제로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신세기의 아시아 건축의 도전과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제3회 아시아 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지난 아십여년동안 아시아의 건축은 보존과 개발, 전통과 개혁, 그리고 지역주의와 글로벌리즘의 상반된 이슈 속에 혼란이 거듭되어 왔고, 이러한 혼란은 현 시점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건축디자인과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천년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고자 대한건축학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아시아 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은 일본건축학회의 제안으로 1986년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10여년간 활동이 없다가 지난 1998년 9

월 일본의 고베대학에서 한·중·일 대표단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축학회, 중국건축학회와 일본건축학회는 이 심포지엄을 격년제로 정례화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제3회 대회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공식언어는 영어이다.

분과별 주제

- 제1분과 전통건축과 아시아적 가치
- 제2분과 노령화시대의 건축
- 제3분과 환경친화적 주거의 설계와 기술
- 제4분과 정보화 사회와 도시건축
- 제5분과 초고층건축과 신기술
- 제6분과 지속가능한 재료와 시공기술
- 제7분과 21세기의 건축교육과 실무

심포지엄 일정

- 2000년 2월 23일(수) 오후 : 등록 및 환영리셉션
- 2000년 2월 24일(목) 오전 : 개회식 및 기조연설, 오후: 초청강연
- 2000년 2월 25일(금) 종일 : 각 분과별 심포지엄, 저녁: 만찬
- 2000년 2월 26일(토) : 제주도 및 서울의 건축 및 문화관광(선택)

등록비

- 일반: 100,000원(논문집 및 점심, 만찬 제공)
- 학생: 50,000원(논문집 및 점심 제공)
- 동반자: 50,000원(환영연, 만찬 제공)

문의: 전화 02-525-1841~4, 525-1846

홈페이지

www.aik.or.kr/asia/asia.html

'99건축문화의 해 폐막식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999년 한해동안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건축의 문화적 본질을 일반시민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했던 '건축문화의 해'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과 함께 조직위원회는 국가이미지 세계화를 위한 밀레니엄사업 방향제시, 한국건축문화의 위상 정립으로 정체성 및 보편성 확보, 건축에 대한 인식제도를 위한 건축문화운동 전개, 건축문화자산의 조사·체계화를 통해 관광자원화 추진이라는 4대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진행했다. 많은 격려와 비판속에서도 우리협회가 주최한 '아카시아포럼 10'을 비롯하여, '한국현대건축 100년전', '특별기획전', '건축문화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와 '내가 가꾼 우리마을 콘테스트', '건축문화자료관 건립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치러진 지난 한 해는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건축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건축 100년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근·현대건축에 관한 각종 자료와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건축학연구'의 토대가 되고 일반인의 한국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폐막식 행사는 1년동안 치뤄졌던 주요행사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공로자 시상식 및 밀레니엄 건축비전 선언 등

의 내용으로 꾸며져 새 천년의 건축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적위원회는 건축의 본질상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년은 건축문화의 토양을 다지는 해였다고 보고, 그 정신을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시상식에서 우리 협회 이의구회장은 문화관광부장관 공로패를 받았다.

2000포스코 강구조 작품상

2월 28일까지 접수



한국강구조학회에서는 강구조 기술의 창의력을 배양시키고 철강 이용 기술을 개발시키므로써 우수한 강구조물 건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0 POSCO 강구조 작품상」을 개최, 작품을 모집한다. 응모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강구조물(건축물, 교량, 철탑, PLANT, 해양구조물 등)이어야 하며, 신청서(소정양식)1부와 기본설계도면(10매이내)1식, 그리고 신청작품의 사진(5×7 컬러판 3매)1식을 오는 2월 28일까지 강구조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에 대해 상패와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작 설계자에게 해외건축학의 특전도 부여된다. 발표는 4월중에 있을예정이다. 문의 : 한국강구조

학회 사무국 02-568-7636

스틸하우스 골조시공교육자 모집

2월부터 15회에 걸쳐 실시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에서는 포항제철 후원으로 전문 스틸프레이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2000년 2월부터 연 15회에 걸쳐 실시하며, 스틸하우스 골조 시공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 교육인원 : 1회 교육시 20명 내외 선착순
- 교육기간 : 10일간/1회(월~금/2주간)
- 교육내용 : 이론+실기(골조조립 및 설치)
- 교육일정 : 제1차-2월 7일~18일
제2차-3월 6일~17일
제3차-3월 20일~31일
제4차-4월 10일~21일
제5차-4월 24일~5월 4일
제6차-5월 15일~26일
- 교육장소 : 경기도 기흥 스틸하우스 연구동
- 준비물 : 공구벨트, 줄자, 망치,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안경, 작업복, 필기도구, 개인필수품 등
- 참가신청 : 연간신청/선착순(팩스나 유선 가능)
- 문의 : 전화 02-559-3585/3582
팩스 02-559-3588

희림건축, 공모주 청약

코스닥등록 임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영희)는 코스닥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58.14대 1로 최종집계됐다. 지난 1월 12일 공모주 청약이 끝난 희림건축은 8만주 배정에 1265만주 이상이 청약되어 청약대금이 1265억원을 넘었다고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현대증권이 17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대우증권이 213.3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 교보증권 104.21대 1, 부국증권 143.79대 1, 동부증권 115.04대 1, 한진투자증권 96.46대 1, 대신증권 184.30대 1, 신한증권 124.52대 1을 나타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로는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여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건축경기 활성화와 함께 건축계의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건축학회, 방배동 신축회관 설계경기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방배동에 새 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한다. 이는 미래지향적 학회발전방안의 하나로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새로운 건축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중심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복지시설, 상설전시장, 교육공간, 업무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이번 설계경기는 대한건축학회 정회원으로 건축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사무소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와 합작도 가능)이면 가능하다. 오는 3월 31일 마감이며, 4월 7일 심사를 거쳐 4월 11발표될 예정이다.

충남 좋은 건축물 33개 선정

99건축문화의 해 충남지역추진위원회에서

99건축문화의 해 충남지역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우)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충남도내 건축물 중 작품성이 뛰어나고 시대상향을 잘 반영한 충남의 좋은 건축물 33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고 현지답사를 거쳐 전통, 근대, 현대 등 3부문에 걸쳐 총 33개건축물이 선정된 것이다.

· 전통건축물: 수덕사 대웅전(예산 덕산면), 개심사(서산 윤산면), 홍주성 조양문(홍성읍), 장곡사(청양 대치면), 돈암서원(논산 연산면), 윤증고택(논산 노성면), 추사고택(예산 신암면), 공주향교(공주 교동), 영암택(아산 송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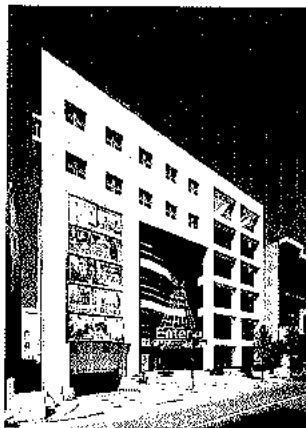
· 근대건축물: 대전외국인수련원(보령 신희동), 금사리 성당(부여 구룡면), 상흥리 공소(서산 음암면), 구합덕성당(합덕읍), 구호서은행예산본점(예산읍), 복옥 감리교회(강경읍), 영명학교 구본관(공주 중동), 장항제련소(장항읍), 공세리 성당(아산 인주면)

· 현대건축물: 독립기념관(천안 목천), 교보연수원(천안 유량동), 국립 부여박물관(부여읍), L씨주택(당진읍), 신도리코(아산 남동), 합덕재(합덕읍), 당진수협(당진읍), 소망교회(태안읍), 순천향대도서관(아산 신창면), 학봉교회(공주 반포면), 인삼종합처리장(금산 부리면), 남서울

대 화정관(천안 성환읍), 북일여고(천안 신부동), 신우빌딩(천안 성정동), 홍익대국제연수원(조치원읍)

제7회 광주시 건축상

금상에 '엔터테마빌딩',
우토건축 박홍근 설계



엔터테마 빌딩

제 7 회 광 주 시 건 축 상 금 상 에 「ENTER테마빌딩」(우토건축/박홍근 설계)이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1일 시상됐다.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광주시 건축상'은 건축인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 소재한 금상을 받은 「엔터테마빌딩」은 도심지의 복잡한 대지 상황과 도시적 상황을 고려해 지나가는 시민을 위하여 건축물을 후퇴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공간에 활력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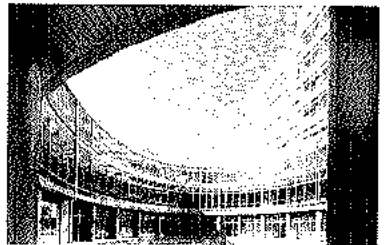
은상은 '광주 D빌딩' (토방건축/한진수)과 '삼우고등학교' (프러스 건축/조두상)가 선정됐다.

제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대상에 대한생명 용인중앙연수원



종합대상 / 대한생명용인중앙연수원



건축부문 / 기상청청사

문화관광부와 한국경제신문사는「제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시상식을 지난해 12월 20일 개최했다. 종합대상과 4개부문 수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은 지난 90년에 제정된 이후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건축, 실내디자인, 조경, 환경조형 작품에 대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제10회 대한민국환경문화상에는 전국에서 응모된 총 32점의 작품을 건축부문에 김복수(여성건축가협회장), 조병수(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실내디자인부문에 김시행(한국경제신문 문화부장), 박영순(연세대 생활과학부 교수), 권영걸(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환경부문에 최만린(서울대 조소과 교수), 이종각(경희대 교수), 강은엽(계원조형예술대 교수), 조경부문에 정재훈(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장), 박경자(서울시 문화재위원)씨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의 서류와 현장 그리고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 종합대상/대한생명 용인중앙연수원 (건축문화-김영섭)

· 건축부문/기상청청사(원도시건축-

변 용)

- 실내디자인부문/아티누스(에시스)
- 환경조형부문/선의 공간(스튜디오 최재은)
- 조경부문/인천국제공항 남측외곽공원(삼성에버랜드)

제8회 국제 알바알토 심포지엄

제로시대의 건축 주제로

알바알토 아카데미(Alvar Alto Academy)가 주최하는 국제 알바알토 심포지엄이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핀란드의 지바스키라 대학에서 개최된다. '제로시대의 건축(Architecture in the year zero)'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 천년의 시작을 제로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와 함께 알바알토가 설계한 건축 작품을 답사하고 강의, 세미나, 토론 등으로 그의 디자인경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600명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235달러이며, 학생은 95달러이다.

문의: 알바알토박물관 (전화358-14-624811, 팩스358-14-619009, 전자우편marjo.holma@jkl.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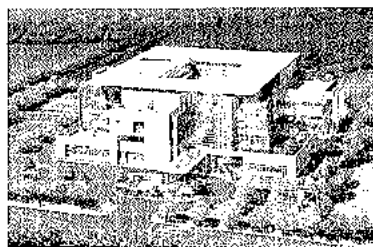
경기대건축대학원, 그렉파스쿠아렐리 강연회

1월 28일, 경기대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오는 1월 28일(금) 오후 4시에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건축가 그렉 파스쿠아렐리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그렉 파스쿠아렐리는 SHoP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콜롬비아대학의 스튜디오 튜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Responsive Methodologies'라는 주제로 최근 진행 중인 자신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경기대 건축대학원(전화 02-390-5245)

현상설계, 서울시립북부노인전문요양 병원

당선에 공간(이상림, 정종영)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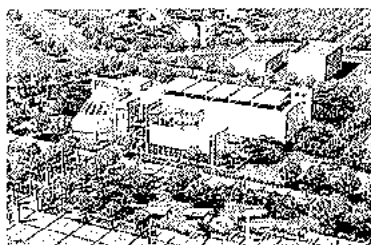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전문요양병원의 필요성에 따라 그와 관련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22일 공간종합건축(이상림, 정종영)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장기입원자들을 위한 병동배치와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가정과 같이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설계의 관건이었다. 심사는 김성우(연세대), 서봉교(경원대), 민선주(위가건축), 권

기혁, 이득구(서울시립대), 강병근(건국대), 장성준(명지대), 홍갑표(연세대), 신관섭(쌍용건설), 제해성(아주대), 김근우(강남병원)씨 등 11명이 맡았다. 우수작에는 정림건축(김정철)안이, 가작에는 무영건축(안길원)안, 그룹신도시건축(홍기백)안, 위드건축(서상문)안이 각각 선정됐다.

현상설계, 성호이의익선생 기념관

당선에 건우사종합건축+시공테크



경기도 안산시에는 성호이의익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변 문화재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교육 및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될 기념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한 결과 건우사종합건축과 시공테크의 공동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는 정승우(안산시), 양내원(한양대), 이순희(안산1대학), 한명수(예도건축), 백영권(도시건축), 서홍권(안산공업대), 이현우(안산문화원), 박종원(안산시의회), 최화영(안산시)씨가 맡았다. 당선작은 기념관, 이익선생묘, 식물원을 하나의 테마로 설정하여 학자가 많이 배출되는 안산시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잘 표현한 점과 호롱불을 현대적으로 변형시켜 매스이미지를 강조하였고, 관리영역과 전시영역의 뚜렷한 분리에 의해 명확한 동선이 돋보인다는 평을 얻었다. 지하1층, 지상1층의 규모로 오는 7월경

작공예정이다.

현상설계, 홀트일시보호소

당선에 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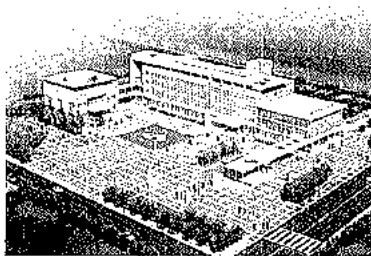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입양전의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입양아들의 모국 방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갖춘 홀트일시보호소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10일 당선작에 울건축(김종대)안을, 우수작에 예상건축(송재춘)안을, 가작에는 더부건축(김상오)안을 각각 선정했다.

당선작인 울건축안은 안락한 마당을 조성하여 외부인이 내부로 진입할 때 따뜻한 집을 연상하도록 하는 점을 설계의 주안점으로 두었으며, 1층은 관리실, 2층과 3층에는 보육시설, 4층에는 모국 방문자를 위한 숙소로 계획했다. 홀트일시보호소는 국내외에서 모인 16억의 기부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현상설계, 임실군청사

당선에 울그룹건축+건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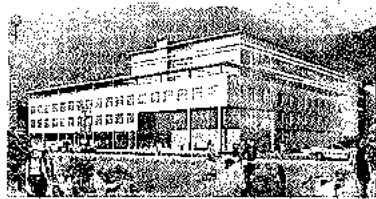
전라북도 임실군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열린청사로서의 도약을 위해 임실군



청사 신축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당선작에 울그룹건축(최기주)과 건인건축(이정호)의 공동안을 선정하였다. 우수작에는 길건축(이길환)안이, 가작에는 윤림이토건축(윤종호)과 원도시건축(변 웅)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정명현(홍익대), 송성진(연세대), 김홍식(명지대) 박한규(전북대), 정사희(원광대), 강대호(전주대), 문창호(군산대), 최창한(임실군), 안향선(군의회)씨가 맡았다. 당선안은 주요 업무 공간을 남향에, 업무보조 공간을 후면에 각각 배치하고, 중앙에는 아트리움을 도입하여 환경친화형 실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정명현 심사위원장은 당선안에 대해 "보행자를 위한 입면 이미지를 반영하고자 저층형을 도입한 점과 커튼월을 도입하여 권위감을 피하려 한 점 등 군청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상설계, 목포대학교 정보종합센터

당선에 단우건축



목포대학교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정보종합센터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업체가 참여한 결과 당선작에 (주)단우건축사무소(이승권, 최병철)안을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단목(김성우, 노태학)+(주)가야건축사사무소(최문규)+김영서 안이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목포대학교 캠퍼스안의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대학본부로 둘러싸인 잔디광장이 대지로 주어졌으며, 중앙도서관 3, 4층을 신축하는 정보종합센터의 4, 5층과 연결하여 도서열람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된 이번 설계경기는 도서관과의 3~5미터의 레벨차이와 복서향으로 트인 대지에 건물과 실의 배치 등을 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주 관건이 되었다. 총 사업비 95억여원이 들어갈 이 프로젝트는 올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중 착공에 들어가 2002년 완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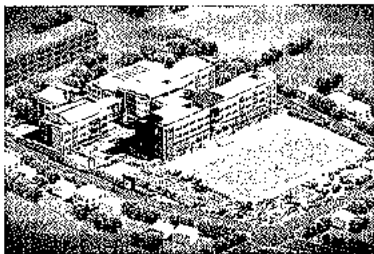
정정합니다.

▷ 1999년 12월호 87페이지 건축계소식 기사 중

「—까지건축은 영종도국제공항 설계에 참가한 법건축, 희림건축, 정림건축, 삼우설계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로—」를 「—까지건축은 영종도국제공항 설계에 참가한 법건축, 희림건축, 정림건축, 원도시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로—」로 정정합니다.

현상설계, 대구수성초등학교

당선에 대상건축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은 대구수성초등학교의 기존교사에 현대식 교육과정과 지역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총 11개팀이 참가하여 심사결과 대상건축사사무소(박종석)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홍호용)안이, 가작에는 (주)합동건축사사무소(윤태식)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이연수(대구 동부교육청), 강병근(건국대), 김도연(대구 교육청), 김석만(금오공과대), 김승제(광운대), 김영태(영남대), 김종영(계명대), 박영기(연세대), 이창화(대구수성초등학교 교장), 정의용(영남대), 최무혁(경북대) 합진식(대구대)씨가 맡았다.

시간안에

대덕의 전통건축

지속가능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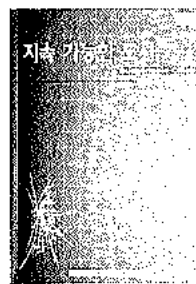
◇대덕의 전통건축

대덕문화원은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린 송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건축물을 정리하여 '대덕의 전통건축'을 발간했다. 이 책은 건축사적인 평가가 높았던 '동춘당'을 비롯하여 '제월당' '송옹역가옥' 등 현재 회덕과 대덕의 옛 건축물들을 단행본으로 볼 수 있으며, '개발과 보존'이라는 명제에 대한 이 시대 우리들의 도시개발 해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건축 부문을 집필한 이왕기(목원대 건축과) 교수는 "도시란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할 때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추억은 그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정착제 역할을 하고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의 인상을 심어준다. 미래의 희망이란 도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때 갖게되는 것이다."라고 현재의 개발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이 책자가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불씨가 되고, 나아가 역사적 문화환경보존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전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회덕향교/동춘당/동춘선생고택/쌍청당/원일당/송애당/송옹역가옥/제월당 및 옥오재/민평기가옥/비래암/옥류각/취백정/은진송씨 정려각/이시적공 정려각/고흥유씨 정려각/어사홍원모 영세불망비각/회덕현 관아기록과 자료/충남지방의 관아자료/충남 현존 관아 등

대덕문화원 발행(042-627-7517)

◇지속 가능한 도시

새 천년의 화두인 '지속가능 (Sustainable)'에 대한 건축인들의 단상과 토론과 함께 건축설계 과정에



서의 실제로 부딪치는 해석상의 문제를 하나로 모아 책이 엮여졌다. 이 책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건축가들이 각자 혼돈된 이 시대를 질주하면서 자아낸 일련의 드라마"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미학으로써 미래 도시만들기"를 위해 "도시와 건축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책임을 통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축에 대한 흥미진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권두좌담 "질서와 여백이 살아있는 도시 만들기"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모색해 보고 있으며,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의 단편들"을 모은 글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미래상과 현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들을 모았다. 또한 "미완의 작업에 투영된 도시의 해석"에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도시와 건축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계획안과 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과정의 구상과 현실"은 실제 설계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건축모임인 옹마루(회장 손기찬)의 '옹마루6집'으로 기획되어 발간됐다.

옹마루모임지음/176쪽/7천원/(주)간향미디어 발행(02-2637-3890)

마산시 농산물 도매시장

Masan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정부에서는 수입개방된 외국의 농수산물에 대해 「신토불이」의 경쟁력을 기르고 영세화된 우리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개선책들을 펼치고 있다. 구체화된 사업 중 하나로 지방공영 도매시장을 각지에 건립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부산 동부권, 성남시, 고양시 등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어 마산시 농산물도매시장 터키입찰이 있었다. 이것은 마산시 유통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일부로, 도매시장 외에도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각종 상(商)류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총 9개팀이 등록하여 그 중 8개팀이 최종안을 제출하였는데 심사결과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신화 + 삼성물산(주) + 대원종합건설(주) + 진우건설(주) + (주)대운산업개발의 안이 당선되었다.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도매자를 잇는 장소로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물류가 직접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곳이다. 따라서 이번 설계는 경매장과 도매인 점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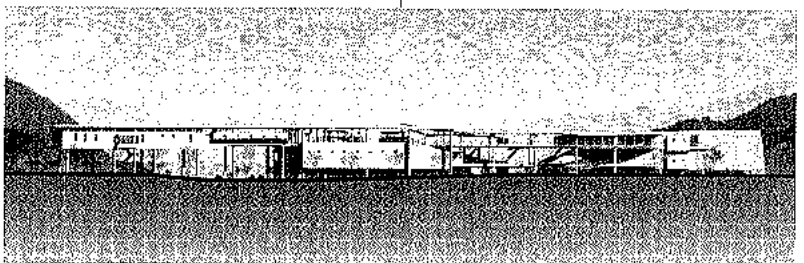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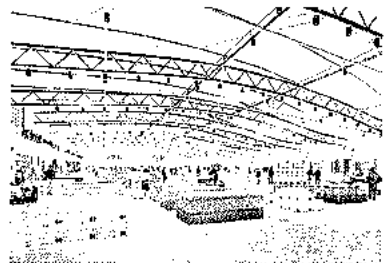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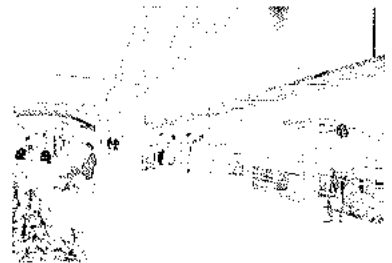
당선안의 전면부 건물은 1층이 필로티로 되어있어 차량의 출입을 자유로이 하며 경쾌한 느낌을 주고, 각각의 기능들이 독립적 매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이드나 옥상정원이 시장의 열

린 이미지를 전달한다. 특히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홍보전시실을 지나 청과물 시장의 2층 경매관람 데스크까지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어 총체적인 시장의 경험이가 가능하다.

경매하는 모습을 비롯한 시장의 전경을 구경하면서 도매시장의 유통체계를 자연스럽게 체득·이해할 수 있는 이곳은 옛날 재래시장의 「시장길」을 재해석·적용하여 깊은 인상을 준다. 또 앞으로 직거래 유통체계가 확대·정착되었을 때에도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당선작 / 공간건축(이상림·오섬훈)

대지위치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766
대지면적	77,742㎡
건축면적	25,307㎡
연면적	34,190.9㎡
건폐율	32.55%
용적률	40.48%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THK50 s/w 패널, THK12 복층유리, THK75 지붕패널
탄키총괄	삼성물산
설계팀	강성인, 한승호, 장흥만, 안현, 이현우, 이재영, 김지형, 김훈, 전성태



대구체육고등학교

Daegu Physical Training
High School

우리 나라의 각 도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에는 1970년대부터 체육고등학교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각지에 총 12개가 분포, 그 지역의 체육인재를 발굴, 육성 중에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는 아직 체육고등학교가 없어 1980년 대부터 대구교육청이 구상해왔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현상설계경기의 형태로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 대구체육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상설계는 지난 1999년 9월 17일 공모전 공고를 시작으로 9월 30일 참가신청을 마감하고 10월 1일 현장설명을 거쳐 총 10개 팀이 12월 1일에 작품을 접수하였다. 12월 13일 발표된 심사결과 최우수작에는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협주건축사사무소(대구)의 안이, 우수작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삼원종합건축사사무소(대구)의 안이, 그리고 가작에는 (주)일견씨앤씨 건축사사무소 + (주)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대구)의 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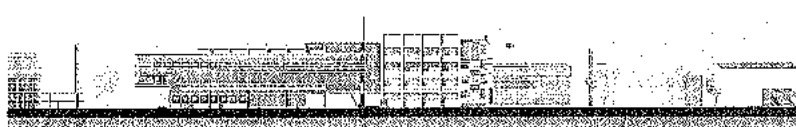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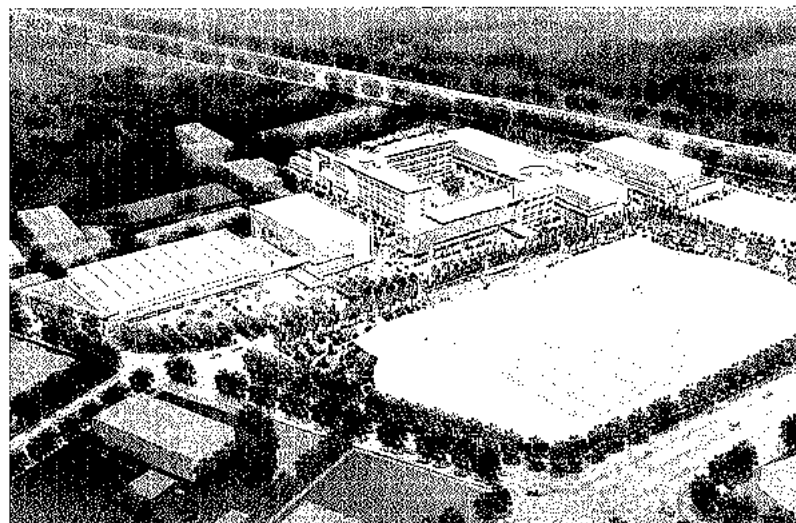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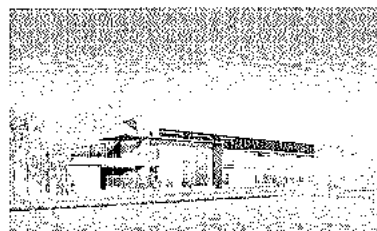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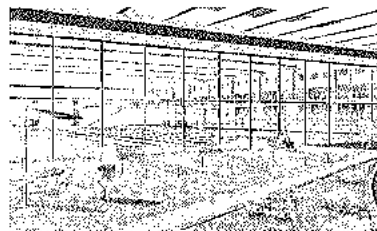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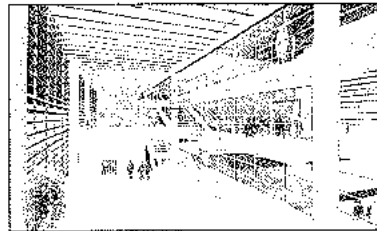
이번 현상설계는 종목별 체육관과 교사동, 기숙사, 운동장, 양궁장 등이 함께 요구됨에 따라 각 건물의 설계 이전에 단지의 계획이 중요하였는데, 당선된 공간건축 + 협주건축의 안은 비행기 및 차량의 소음이 많은 이곳 대지의 특성을 파악, 이를 최소화하는 배치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50m 도로, 앞으로 체육고등학교측 주도로로 작용할 동측의 30m 계획도로를 고려, 이에 편하여 대운동장 및 보조운동장을 배치하고 수영장 및 구기체육관은 일반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교문에 가까이 위치시켰다. 또 교사동은 각동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면서 운동장이 전면에, 기

숙사는 가장 정적인 공간에 자리했다. 전체건물은 역동적이고 강한 느낌이 들도록 직선으로 배치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선형의 산책로를 두고, 그 중심에 중정이 있어 단지 전체의 핵심으로, 또 연결보행동선의 구심점으로 역할하며 동시에 정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 당선작 / 공간건축(이상림·강성인) + 협주건축(장명환)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동호동 463-2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체육고등학교)
도로현황	남측 15m 도로, 북측 50m 도로, 동측 30m 도시계획 예정도로
대지면적	69,983㎡
건축면적	11,093.3㎡
연면적	19,093.67㎡
건폐율	15.77%
용적률	27.28%
층수	교사동, 기숙사동-4층, 체육관동-2층, 수영장-2층, 구기체육관-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 마감	THK16 컬러복층유리, THK50 불소수지 피복강판, 몰탈 위 뿔철도로, 유공흡음 패널 위 EPDM 방수
설계팀	전성진, 윤재석, 유옥중, 장홍만, 이재영, 김 훈, 이재훈



울란바토르 상업지역 재개발

Commercial Street 2005

몽골리아는 80년대말 러시아 붕괴에 따라 공산화를 벗어나 뒤늦게 자유 시장으로 개방되었다. 이에 수도인 울란바토르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낙후된 중심상업지역에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각국에 국제설계를 의뢰한 바 우리나라의 M.K.International(정해진)과 유일ENG건축(김환성)의 계획안이 선정되었다. 몽골리아와 1990년 한국과 정식 수교를 맺고 처음 있는 국제설계 교류이다. 전체 마스터 플랜 중 'PHASE 1'은 복합상업건물을, 'PHASE 2'는 비즈니스센터, 'PHASE 3'은 복합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프로젝트는 최종 3단계까지 2005년 12월경에 완공될 예정이고, 현재 1단계 사업인 복합상업건물의 기본설계가 마친 상태이다.

▶ 당선작 / M.K.International(정해진) + 유일 ENG건축(김환성)

대지위치 몽골리아 울란바토르시

PHASE 1 : 'URT TSAGAAN' COMPLEX OF TRAND & SERVICE

건축면적 14,200㎡

연면적 50,964㎡

규모 지하1층, 지상22층(펜트하우스)

용도 복합상업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SRC

주요외장재 알루미늄 복합패널, 드라이비트

PHASE 2 :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건축면적 4,785㎡

연면적 42,736㎡

규모 HOTEL(지하1층, 지상14층), OFFICE & BANK(지하1층, 지상12층), HOUSING(지상1층, 지상1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SRC

주요외장재 화강석 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복층유리

PHASE 3 : COMPLEX OF BANK & OFFICE

건축면적 2,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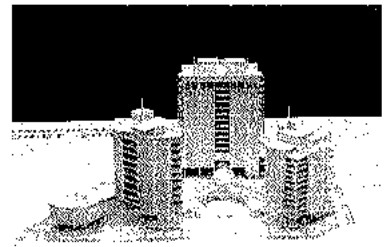
연면적 24,988㎡

규모 BANK & OFFICE(지하1층, 지상1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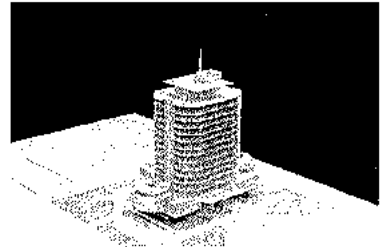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SRC

주요외장재 화강석 마감,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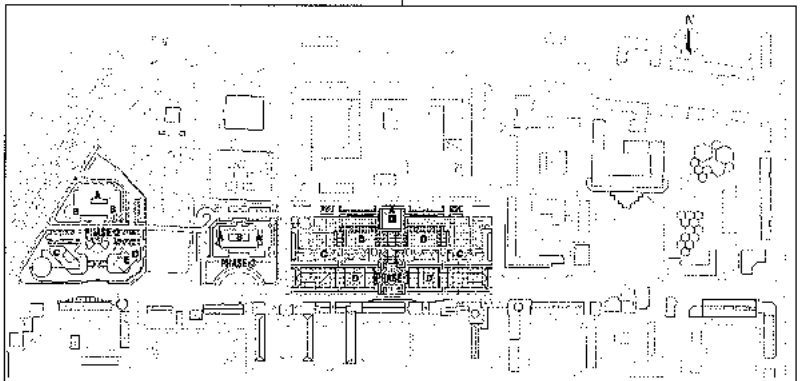
설계담당 김종규, 채정식, 박성식, 김현성, 최문식, 엄동욱, 김보경



Phase-2



Phase-3



마스터플랜



Phas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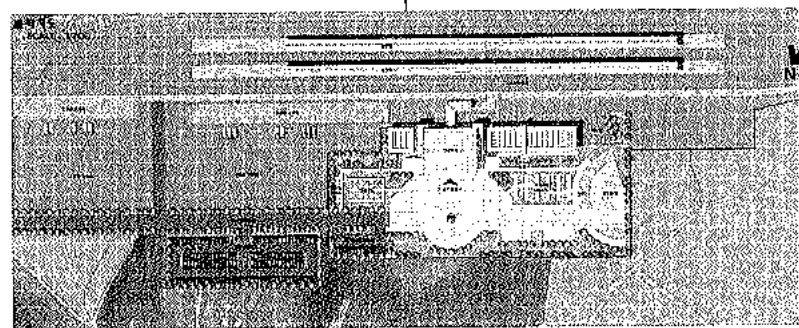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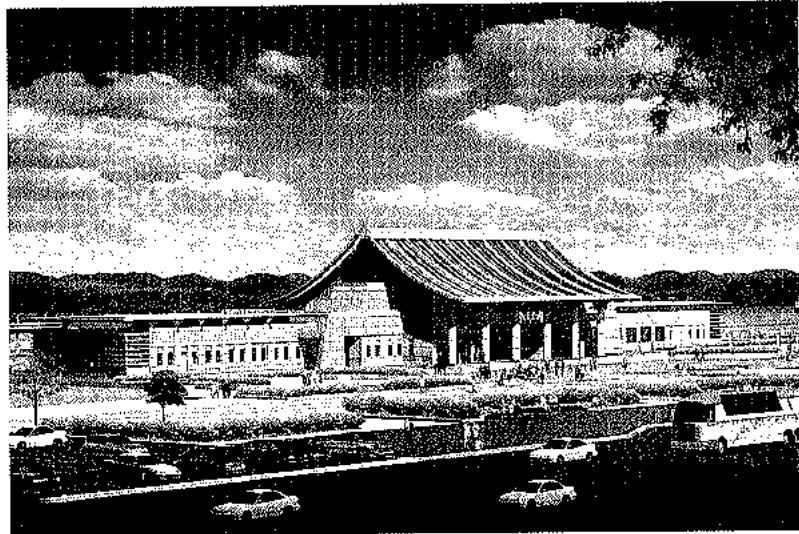
경전선 진주역사

Jinju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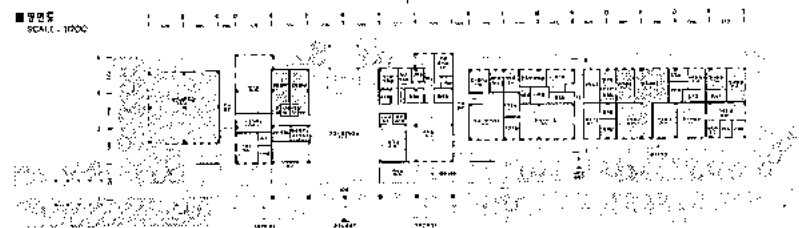
철도청은 진주시 도심부 및 대단위 주택단지를 급곡선으로 통과하는 경전선 일부구간 (진주시내 통과구간)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생활권 분절·소음·공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선형개량에 따른 열차속도 향상 등을 위한 진주역 이설사업으로 특히 역사의 상징성 및 지역특성을 설계에 반영하고 역사기능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최선의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최종 7개업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안은 유일ENG건축안, 2등안은 이상건축, 3등안은 환경건축안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유일ENG건축안은 지역 이미지를 고려한 입면의 디자인으로 진주성의 이미지를 현대화하여 계획하였다.

▶ 당선작 / 유일ENG건축(김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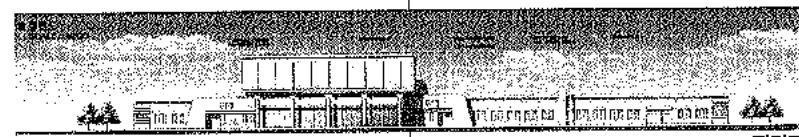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일대
연면적	1,883.96㎡
규모	지상1층
형태	지상역사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화강석 버너구이, 메탈패널, THK 18mm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정수, 채정식, 박성식, 김현성, 최문식, 엄동욱, 김보경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향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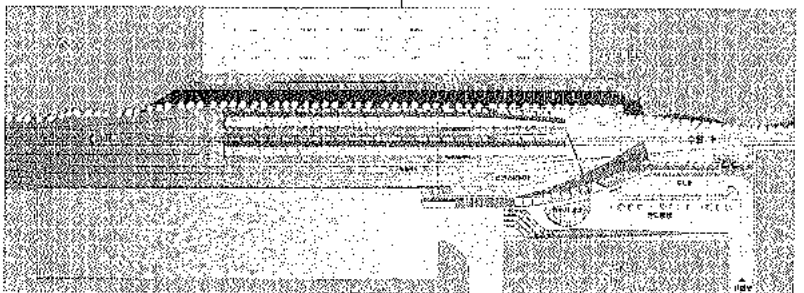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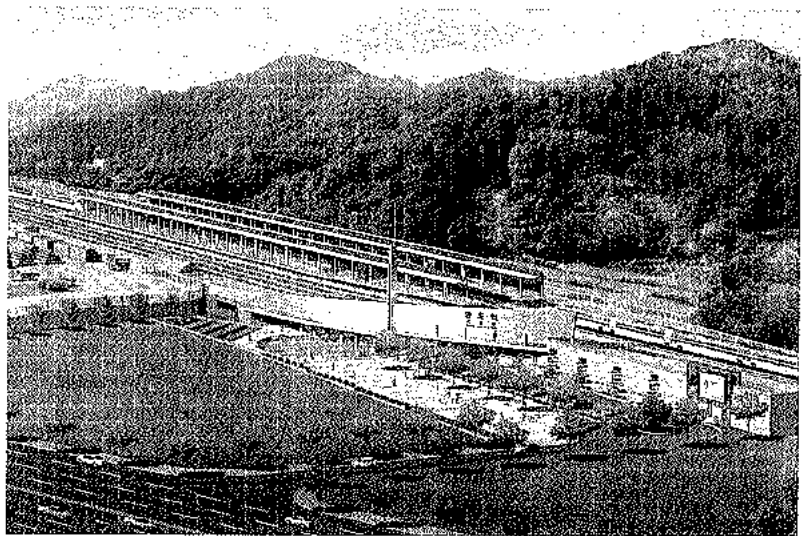
수인선 송도역사

Songdo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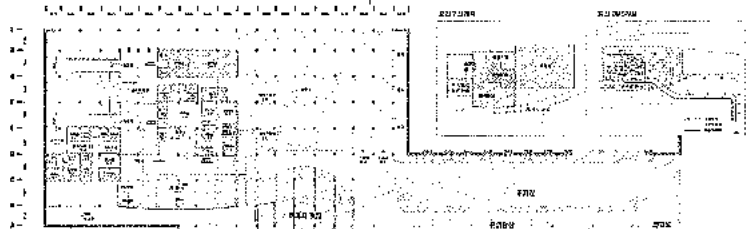
철도청은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서해안지역 개발에 따른 수도권 광역전철망 확충으로 장래 수송수요에 대비하고, 주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수도권 인구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송도역사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하였다. 최종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역사의 상징성 및 지역특성을 설계에 잘 반영하고 역사기능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한 최선의 계획안을 마련한 유일ENG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2등안은 숭실건축, 3등안은 태영건축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안은 바다의 이미지인 배를 형상화한 디자인과 역사의 형태가 일치된 조형성과, 콘크스와 외부광장의 연결과 동선처리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 당선작 / 유일ENG건축(김환성)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
연면적	1,970.00㎡
규모	지상1층
형태	선하역사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회강석마감, 알루미늄, THK 24mm 칼라복층유리
설계담당	김종규, 채정식, 박성식, 김현성, 최문식, 엄동욱, 김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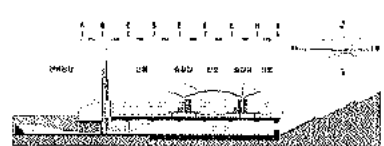
배치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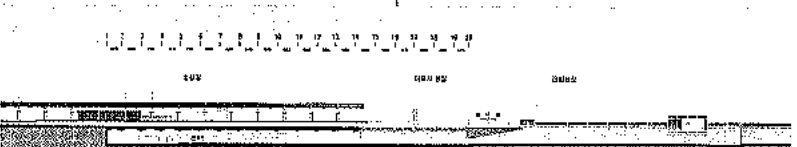
동측면도



남면도 1



남측면도



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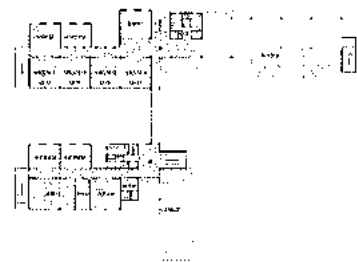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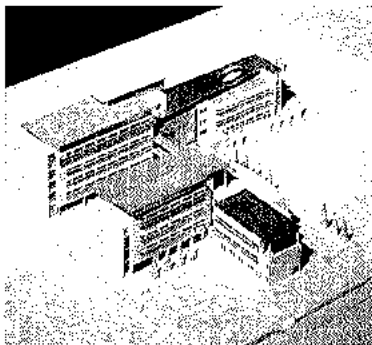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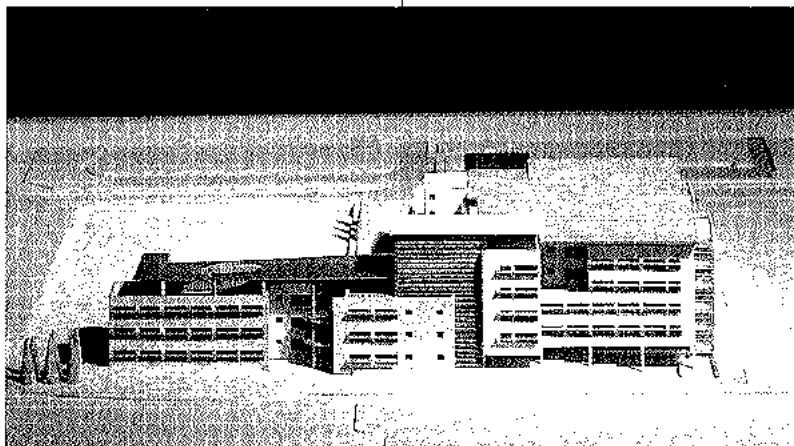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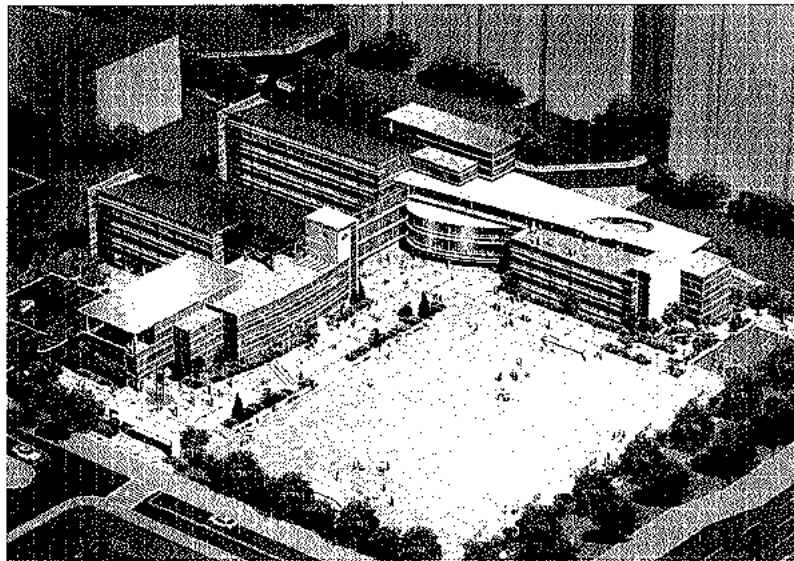
운암고등학교

Unam High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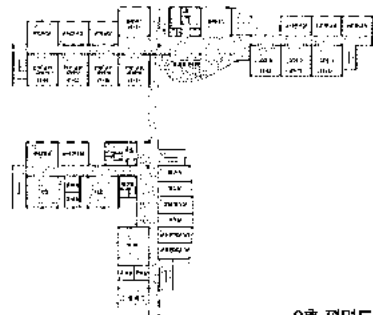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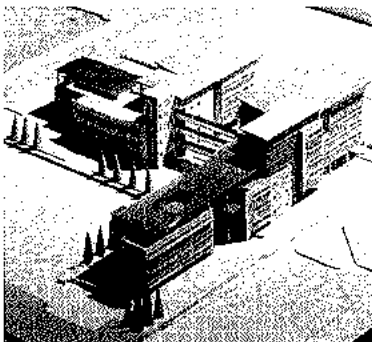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대응, 지역의 화합 그리고 추억이 머무는 우리학교 만들기는 무한 경쟁시대의 과열된 교육열과 점차 잃어가는 인간성 회복 문제, 지역의 평생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 틀림없다. 운암고등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화두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평생학습장으로써 시설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2001년의 정보와 전문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교육 및 끊임없이 대화하고 사색하는 Common Space를 계획개념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함께 체험하는 지원성 있는 학교를 구성함으로써 학교가 미래의 사회여건 변화와 지역사회 기여 등 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원형 (손광민 + 최대성 + 광희수)

대지위치	경기도 오산시 운암읍지리구내 1-58L
대지면적	14,200.1㎡
건축면적	2,751.03㎡
연면적	9,756.47㎡
조경면적	4,673.03㎡
건폐율	19.34%
용적률	65.70%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붉은벽돌 치장쌓기 + 컬러 아스팔트 싱글
기획	홍선경
설계담당	광희수, 표상수, 김준수, 노형래, 조종철, 석민수, 박진규, 류성웅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rchitectural Review

Domus

a+u

建築文化

新建築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11월호

집합주택을
이 번 호 의
특집기사로
실었다. 유
럽의 전통
적인 도시
조 직 내 의
주 거 단 지 에



서부터 싱가포르의 친환경적 주거단
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
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도시계획으
로는 뉴욕 맨하탄 남서부 재개발 계
획 현상안들을 소개하여 현 도시에
대한 건축가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뉴욕 맨하탄 남서쪽 재개발 계획 안 소개

캐나다 건축 센터(IFCCA)의 주최로
열린 이 지명 현상 설계는 각 유명한
건축가들이 그들의 도시관을 개념적
으로 펼치는 장이 되었다. 아이젠만
의 허드슨 강에서부터 8번가에 이르
는 사이트를 역사적인 공원으로 변
형하는 안이 당선되었다. 서쪽 끝에
는 2012년 올림픽에 대비한 스타디
움이 자리잡게 된다. 도시조직의 주
름으로 이름 붙여진 공원은 물결치
는 경로를 만들어 낸다. 아이젠만은
전통적인 도시계획이 단일한 건물을
독립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도시계획은 연속적이고 고밀
도의 도시 조직과 공원이 결합되는
방식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호텔, 상업시설등을 포함한 메가스
트럭처를 계획하는 경향은
Reiser+Umemoto의 거대한 유리
피막 구조물에서도 읽을 수 있다.

■ 집합주택 특집

▶ Gullichsen Vormala



Architects의 헬싱키 주거 단지
헬싱키 다운타운에 개발된 대규모
주거 단지는 전통적인 유럽도시의
스케일과 다양성이 근대의 기술에
의해 어떻게 회복되고 강화될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이다. 완
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주동은 8
층 높이인데, 그것은 넓은 면적의 조
경된 녹지를 가운데 두고 남쪽으로
는 60년대 개발된 오피스 건물과 마
주보고 있다. 각 주호는 내부의 반
공적인 정원으로 향하는 발코니를
가지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
주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거주
자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되었는데,
대가족을 위해서 여러 주호가 결합
된 예도 있다. 각 층 슬라브 아래에
서비스 보이드를 두어 설비 등의 변
화에 용이하도록 시공하였다.

▶ Mecanoo의 암스테르담 주거계획 2제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아파트먼트를 어떻게 역사적인 도시
조직 안에 삽입시키는가 이다. 오래

된 운하를 따라 17-18세기 벽돌조 건물들이 늘어선 단지에 들어서게 될 이 두 건물은 운하를 전면에 두고 인접하고 있다. 건물의 외장은 운하 쪽과 골목길쪽을 달리 처리하여, 운하에 면하는 면은 넓은 베이에 얇은 벽돌 프레임에 이루어서 역사적인 콘텍스트를 반영하고 있으며, 골목길에 면하는 면과 건물의 후면은 나무판으로 마감되었다. 각각의 계획은 사이트, 콘텍스트, 프로그램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유사한 외장 마감이 두 건물을 연결하고 있다.

▶최근의 European 5 공모에서 수상한 Team Haut의 로테르담 Courtyard Housing은 중정을 가진 블록의 재개발에 있어서 혁신적이며 생생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세계 각국의 환경적, 도시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보이는 예로 ▶Erik van Egeraat의 네덜란드 Tilberg 주거 단지, ▶Kaufmann, Van der Meer & Partner의 취리히 도시주거, ▶Syszkowitz-Kowalski의 오스트리아 Graz 주거 단지, ▶Koning Eizenberg의 산타모니카 Family Housing, ▶Bedmar & Shi의 싱가포르 주거단지, ▶Alford Hall Monaghan Morris Architects의 런던 Dalston 주거단지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디자인 리뷰로서 마스터 내부에 모니터를 위한 전력과 통신케이블을 위한 배관을 포함하는 Nikolas Grimshaw & Partners의 내외부 사인 디자인 ▶Kenneth Frampton의 1999 UIA conference의 기초연설을 편집한 밀레니엄을 위한 7가지 요점을 실었다.

Domus

1999년 12월호

세기말, 밀레니엄 전환기를 맞아 Domus는 지난 과거를 정리하는 특징 대신 일반호와 마찬가지로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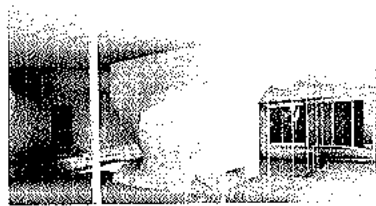


및 디자인계의 현안들을 차분하게 다루고 있다. 작품들로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는 개인 주택들이 소개되었고, 컴퓨터의 형태 형성, 전자 기술과 기계 기술의 차이 등 컴퓨터 문명에 대한 에세이가 다수 실려있다. 아울러 근대 초기의 이벤트 및 저서들을 소개함으로써 모더니즘이 아직까지도 “제2의 모더니즘”, “유동적 모더니즘” 등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프로젝트: 밀레니엄 전환기의 개인 주택들

문화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은 오늘날 건축가들에게 남은 유일한 실험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문화적 소양을 지닌 건축주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주거로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소개된 주택들은 근대 모더니즘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는 작품들로, 가능성을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 있다.

▶Preston Scott Cohen의 미국 뉴욕 Old Chatham Torus 주택 한때 건축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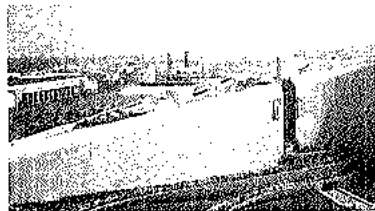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건축에 대한 문화적 영향,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건축 이외의 이미지 생산 분야에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형태들에 대응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형태 그 자체가 되어 버리는 건축물들도 나타나고 있다.

▶Shigeru Ban의 일본 Kanagawa현 Hadano 9개 정사각형 그리드 저택

Ban의 “universal floor” 시리즈 중 가장 돋보이는 이 작품은 간단한 구조의 변형을 통해 최대한의 유동성과 복합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례이다. Mies와 아울러 John Hejduk의 영향이 드러나는 이 주택은 3x3의 그리드 속에서 마치 퍼즐과 같이 움직이는 벽면들을 통해 시적인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외에 ▶John Pawson의 영국 런던 주택, ▶Sean Godsell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Kew 주택, ▶Daly Genik의 미국 캘리포니아 Santa Monica Slot Box 주택, ▶Adolf Krischanitz의 오스트리아 Steinaweg 아뜰리에 저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 이벤트



GM사의 Futurama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1939년의 뉴욕 세계 박람회는 “오늘날의 도구로 내일의 세상을 개척한다”는 표어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의 산업 디자인 선구자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이 행사에 대해 그 시대적 상황과 준비 과정, 그리고 GM사의 Futurama 등 기업별 파빌리온에 대한 해설과 사진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제2의 모더니티”라는 제목 하에 소개된 Kenneth Frampton과 Günter Uhlig의 대담 내용, ▶ Ettore Sottsass Jr., Enzo Mari 등 저명 디자이너들의 작업 환경 사진, ▶ 컴퓨터 형태의 기원에 대한 에세이, ▶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Sony, Kodak, Apple, IBM사 등의 전략 및 상품 소개, ▶ 기계 문명과 전자/전기 문명의 차이에 대한 에세이, ▶ 영국 내에 위치한 James Sterling의 건축 작품을 위치와 사진, ▶ 핸드폰, TV, DVD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분야의 신상품 소개 등이 게재되어 있다. ▶ 아울러 저서 소개에서는 Benedetto Croce의 〈Fundamental Theses of Aesthetics as the Science of Expression and General Linguistics〉, Andr Breton의 〈초현실주의 선언〉, Le Corbusier의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등 근대 시기의 고전들이 다루어져 있다.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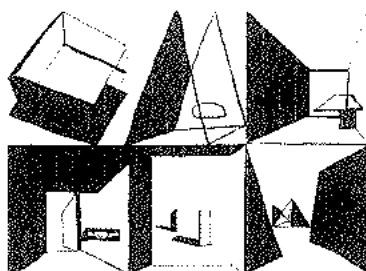
1999년 11월호

커버스토리로 건축 드로잉 작품전을 개최해온 미술관장

Max Protetch에 대한 소개와 인터뷰를

다루고 있는 본 호에서는 근작으로 Zvi Hecker, Smith & Other Architects, Brian MacKay-Lyons의 새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및 실무 분야에서는 사무공간 공동 작업을 더욱 용의하게 할 인터넷의 새로운 언어형식, 해외 사업에서 성공하는 전략 등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 건축의 미술성



루이스 칸의 여행스케치

미술관장 Max Protetch은 건축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드로잉을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인식한 사람이었다. 한 시대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건축은 지어지지 못하는 계획안들이라는 자각에서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는 Protetch는 Peter Eisenman, Michael Graves 등이 초기에 페이퍼 아키텍트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고 Aldo Rossi, Rem Koolhaas, Zaha Hadid,

Bernard Tschumi 등의 드로잉 작품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Louis Kahn의 여행 스케치등 그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건축가들의 스케치 작품들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근작소개

▶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면들을 형성한 Zvi Hecker의 독일 Duisburg 유대인 문화회관, ▶ 개발업자에 의한 획일화된 주거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Smith & Other Architects의 미국 San Diego 도시형 주거 Merrimac Building, ▶ 목조 큐브 형태를 변형하여 해안가에 지은 Brian MacKay-Lyons의 Nova Scotia 주택들이 소개되어 있다.

■ 컴퓨터

지난해 2월, 컴퓨터 산업계 거물들의 모임인 W3C는 당시까지 인터넷 언어 형식을 정의했던 HTML에 대한 대안으로 XML(Extensive Markup Language)을 소개한 바 있다. XML tag는 HTML tag에 비해 더 명확하여 파일 전송시 더욱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호환성도 뛰어나 인터넷을 통해 도면 자료를 주고 받는 작업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건축계의 해외 사업 전망

한때 제자리를 잡아갈 것처럼 보이던 설계사무소들의 해외 진출은 아시아의 경제 위기, 러시아 권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말았었다. 하지만 1999년에는 세계 각지에서 해외 사업들이 다시 조심스럽게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건축주 선정에 신중하고 선도금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의 안전성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서유럽, 동유럽, 남미, 동아시아 등 지역별 상황과 대안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SOM의 사장으로 발탁된 전 General Electric사 부사장 Kenneth Brown이 이야기하는 국제 시장 공략법 등이 실려있다.

■ 기타



아디다스 본부 마스터플랜

▶모더니즘이 20세기 중반 건축과 조경에 미친 영향, ▶'기업 문화'를 재정의하는 아디다스 본부 마스터플랜(사진6), ▶기존 자연환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지어진 미국 샌디에고 Mesa대학 도서관, ▶뉴욕 시 랜드마크 건물들에 대한 부동산 회사들의 쟁탈전, ▶건조 지역에서 야간을 이용해 지붕에 물을 뿌려 주간 냉방 효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재료 분야로는 세라믹 타일과 자연석이 다루어져 있다.

a+u

1999년 12월호

이번 호는 특집으로 마드리드에서 건설되었거나 건설된 공공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마드리드 건축가들의 활동을 다루었다. 라파엘 모네오



의 시청사 건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젊은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을 목전에 두고 완성된 마드리드의 공공건축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 특집: 마드리드의 건축가와 공공 건축

▶마드리드의 공공건축

이번 특집은 마드리드에 지어진 공공건축물들을 통해 본 스페인 건축가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런던이나 베를린에서는 건축붐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붐은 조금은 과도하다고 할 정도의 열가를 띠고 있다. 똑같은 유럽에 속하면서도 비교적 변두리에 위치하는 스페인의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수도 마드리드도 예외가 아니나, 이곳이 런던이나 베를린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처럼 호황을 누리는 민간기업이나 이들의 후원을 얻은 정부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런던과 베를린의 프로젝트들은 국가의 영향력이 가해졌고, 국가의 선전기구로서의 건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드리드의 건축 붐은 더욱 지역적인 것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공건축이 중심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역사적 건축물들로 점유되어있는 국사가지로부터 교외로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도시에 대응하여 다양한 공공시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전반, 이들 대부분의 시설들이 현상설계에 붙여졌으며, 그 후 경제상황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어 2000년을 목전에 둔 현재에 대부분의 건축이 완성되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런던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나 베를린의 재개발 등에

비하여 스케일도 작으며 예산도 넉넉치 못하다. 그러나 이들 공공건축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건축가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현상설계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파엘 모네오와 같은 작가로부터 젊은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에 걸쳐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적은 예산과 여러 조건들에 대응하여 더욱 과격한 도전을 하는 그들의 작품은 오히려 런던이나 베를린에서 차례로 지어지는 건축물보다 더욱 건전하고 더욱 밀레니엄에 걸맞는 건축처럼 보여진다.

▶ 작품/ 에세이



라파엘 모네오의 무리시아시 신시청사



구아다라마 컬쳐센터

소개된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로는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의 무리시아(Murcia)시(市) 신(新)시청사, 까를로스 푸엔테(Carlos Puente)의 마드리드 묘지(Cemetery in Camarma de Esteruelas), 컬쳐 하우스, 구아다라마(Guadarrama) 컬쳐 센터, 마리아 프라일레(Mar a Fraile)와 하비에 레빌로(Javier Revillo)의 발데모로

(Valdemoro)스포츠센터, 페데리코 소리아노(Federico Soriano) & 돌로레스 팔라시오스(Dolores Palacios)의 유스칼두나 하우레지아(Euskalduna Jauregia) 회의·음악 홀 센터, 에두아르도 아로요(Eduardo Arroyo)의 간호학교, 오페라와 회의 센터, 안드레 페레 오르테가(Andrés Perea Ortega)의 펜카랄(Fuencarral) 구역의 공공도서관, 헤수스 아파리시오(Jesús Aparicio)의 산타 마르타 드 토르네스(Santa Marta de Tornos) 집합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라파엘 모네오에 대하여 루이스 페르난데즈 갈리아노의 「시침사의 컴포지션: 무르시아에서의 모네오」와 까를로스 류엔테에 대한 페르난도 에스펠라즈의 「기억의 창작」, 그리고 에두아르도 아로요 자신의 에세이 「9개 유목민의 모놀로그」가 소개되었다.

건축문화

1999년 12월호

20세기의 마지막 건축문화
막호인 이번 호는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 장 누벨, 벤 발 버클, 스티븐 홀 등 최근의 잘 알려진 건축가들의 최신작품들로 꾸며졌다. 특별한 주제나 타이틀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세기를 눈앞에 둔 90년대의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들의 소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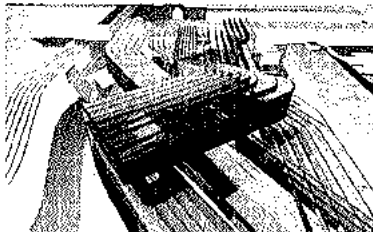


도 볼 수 있다.

■작품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의 뒤셀도르프 오피스 빌딩
부지는 뒤셀도르프의 라인강의 워터프론트의 동단에 위치하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th Rhine Westphalia)지방의 정부청사단지 근처에 위치한다. 이곳은 최근 창고 건물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던 지역이나 요즈음에는 도심부의 공공지역으로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리의 오피스 빌딩들은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실내공간에서의 조방과 일조의 고른 조건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3개의 동은 각각 다른 마감재로 이루어져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하였다. 각 동은 여러 개의 매스가 한데 어우러져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에서는 오픈 플랜과 방으로 구획된 평면 계획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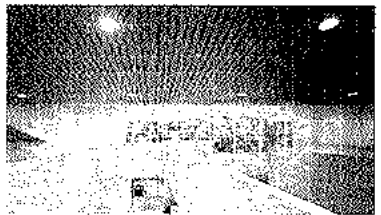
▶자하 하디드(Zaha M. Hadid)의 로마 현대미술센터



로마 현대미술센터는 기존의 육군병사(陸軍兵舍)의 형태를 그대로 남긴다는 점에서 도시의 컨텍스트의 문제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다. 자하 하디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간과 사물', '촉매로서의 미술관', '벽과 비벽(非壁)-현대적 공간의 존재형태', '드라마로서의 사상/예술을 위한 무대' 등의 건축적 화두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장 누벨(Jean Nouvel)의 브레겐츠(Bregenz) 오피스와 집합주택
이 건물은 오피스와 주거가 복합된 건물이다. 좁고 긴 형태의 평면을 지니는 이 건물은 3개층으로 이루어진 저층부와 저층부의 남단에 위치하는 6층 높이의 고층부로 구성되며, 저층부의 중앙에 장방형의 중정을 지니고 있다. 저층부는 오피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층부는 주거로 이용되고 있다. 중정은 오피스, 회의실, 통로, 카페테리아, 주거를 한데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벤 반 버클(Ben van Berkel)과 보스(Bos)의 발크호프(Valkhof)미술관



현대미술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설비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구조체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한데 수용할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벤 반 버클은 말하고 있다. 그가 주목한 두 가지 중요한 구조체는 계단과 천장인데, 상당히 넓은 이 계단은 사람들의 동선을 각 시설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천정은 필요한 인프라시설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구조체라 할 수 있다. 그는 우주시대에 걸맞는 가볍고 떠있는 구조체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스티븐 홀(Steven Holl)의 넬슨-아트킨스(Nelson-Atkins)미술관 확장 계획안

스티븐 홀은 1933년 건립된 기존의

고전적 미술관에 상보적인 미술관을 중축하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선택하였다. 기존의 미술관과 새로이 계획된 미술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보적인 대립항이 성립한다. 기존 부분/신축부분: 불투명/투명, 무거움/가벼움, 밀폐/내외부의 교차, 내향적인 조망/랜드스케이프에 따르는 조망, 경계의 명확함/경계의 모호함, 확정되어진 순환동선/오픈된 순환동선, 단일체/복수의 투명한 렌즈와 같은 대립항들을 통해 예술과 랜드스케이프, 그리고 건축을 한데 엮은 작업을 이루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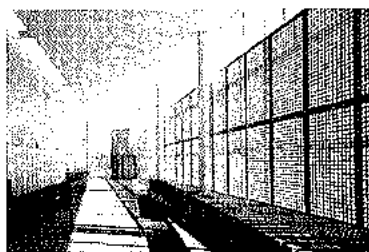
신건축

1999년 11월호

이번 호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마키의 토아마 국제회의장, 후쿠무라 순지(福村 俊治)와 공간계획 VOYAGER의 오키나와 SPIRIT OF JESUS CHURCH, 이시이 카즈히로(石井和紘)의 히사마쓰 파오(PAO), 시미즈(清水)의 쿠리타(栗田)공업사업개발센터 등이 소개되었으며, '토야마현 마을얼굴만들기'라는 테마로 4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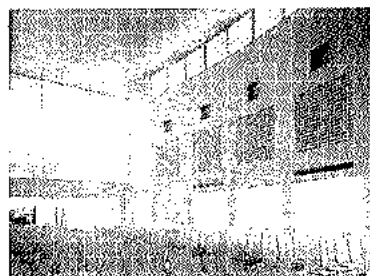
■작품

▶마키(槇)의 토아마 국제회의장
본래의 계획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회의장과 그에 필



요한 최소한의 부대시설만을 갖춘 건물이 완성되었다.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의 중앙에는 회의장 홀이 위치하며, 그 둘레로 포이어와 지원시설이 배열되고 있다. 포이어부분의 외벽은 유리로 처리되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투영되게 하였고, 포이어와 유리벽 사이에 격자모양의 목재 그물망을 설치하여 시선을 어느정도 차단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확보토록 하였다.

▶후쿠무라 순지와 공간계획 VOYAGER의 오키나와 SPIRIT OF JESUS CHURCH



떠있는 배를 연상시키는 백색의 건물이다. 예배당과 예배당 동측의 목사를 위한 주택 사이에 예배당의 길이보다 더 긴 파티오(중정)를 배치시키고 있다. 예배당과 주택은 필로티로 연결되어 그 사이공간을 파티오로 만들고 있으며, 이 커다란 파티오는 천장의 개구부마다 유리로 막아내어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티오의 북측으로는 정원이 연결되어 예배당-파티오-정원 순으로 공간이 순차적으로 개방되면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시이 카즈히로(石井和紘)의 히사마쓰 파오(PAO)

원형의 평면, 캔버스에 된 지붕. 몽고의 주거유형인 파오를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히로시마의 숲속에 위치한 별장이다. 벽면은 유리로 구성되어 목재의 촘촘한 루버가 첨가되어 시선을 차단해 주고 있다. 내부 공간의 구성은 중앙에 작은 중정을 두고 실들이 구 주변으로 배치되고 있으나, 화장실조차 유리벽으로 처리되어 오픈된 공간구성을 갖고 있어 생활의 여러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있다.

▶시미즈(清水)의 쿠리타(栗田)공업사업개발센터

긴 녹지축을 중심으로 동측에는 개발프로젝트동, 초순수(超純水)동 등 세 개의 건물군이 나열되고 서쪽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동과 식당동이 그 사이에 긴 연못을 두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긴 녹지축과 연못은 서로 다른, 그리고 자칫 단조롭고 건조해 보이기 쉬운 연구시설들을 하나로 묶으며 활력을 더하고 있으며, 연못의 가장사리를 가로지르며 커뮤니케이션 동과 식당동을 연결하는 다리는 연구단지의 외부와 내부를 경계 지우는 개방적인 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토야마현 마을얼굴만들기

'토야마현 마을얼굴만들기'라는 테마로 지난 수년간 이 현에 만들어진 소규모의 공공시설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크고 작은 다리들과 등산로, 등산로의 입구 등으로서 소박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풍요로움을 주며 마을의 얼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다.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
(1999. 12. 28)

제안경위

- ▶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 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을 제199호 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8. 12.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동 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함.
- ▶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동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개별법안으로 분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 제2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3. 3)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 ▶ 건축사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 골자

- ▶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 함 (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
- ▶ 건축사는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협회에서 회비징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폐단이 커 이를 폐지함 (안 제22조 삭제).
- ▶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안 제23조 제1항 및 제7항).
- ▶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안 제31조 내지 제33조).

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사자격의 취득)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면허)"를 "(자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중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축사 면허"를 "건축사자격"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를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면허의 취소등)"을 "(자격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그 면허를 받은"을 "그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면허를"을 "자격을"로 하고, 동항제3호중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허가"를 "자격이"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한 때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의 제목중 "등록의 취소등"을 "자격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등록)"을 "(건축사업무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을 "건축사업무신고를 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를 "건축사업무신고 절차"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를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8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를 "건설교통부령이"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을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 제목 "(등록거부의 사유)"를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등록하는 자"를 "개설한

자"로 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7조의 제목중 "등록사항"을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를 "성명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사항"을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 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을 "건축사업무신고 등을 한"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등록사항변경등"을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등"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제28조제2항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를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1호중 "건축사면허"를 "건축사자격"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제29조의 제목 "(등록의 말소)"를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축사사무소등록부"를 "건축사업무신고부"로, "등록"을 "신고사항"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를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

력상실처분을 한 때"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설립하여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를 "건축사업무신고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신고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 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중 "면허를 받거나"를 "자격을 취득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호중 "면허증"을 "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을 "건축사업무신고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사의 면허) ①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7조(건축사자격의 취득)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면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①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 및 자격수첩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 건축사가 성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건축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자격 —————
제10조(면허증등의 부당행사금지)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격증 등의 부당행사금지) —————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
제11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 그 자격을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1. ————— 자격을 취득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3.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할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할 때
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	5.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3회 받은 때</u> 6.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15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 제22조(설계도서의 신고) <u>건축사협회의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제22조의2(등록의 취소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건축사는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건축주는 당해 건축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건축사는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등록) ① 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연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_____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처분_____ 6. (현행과 같음) ③ _____자격이_____ _____자격증 및 자격수첩_____ 〈삭 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 등) ① _____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_____건축사업무신고를 한_____. _____ _____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건축사업무신고 절차_____ _____ ⑥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_____ _____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⑧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1. (생략)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생략) 〈신설〉 〈신설〉 제24조(등록거부의 사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원중 1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4. (생략)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는 자 제27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등의 업무정지명령)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제2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_____ 건설교통부령이 _____ 3. (현행과 같음)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⑨ 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삭제〉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_____ 3. 4. (현행과 같음) 5. _____ 개설한 자 제27조(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 ① _____ 성명·건축사사무소 _____ 건축사업무신고 사항 _____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 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연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2. ~ 7. (생략)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생략) <u>10.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u> <u>11. 건축사협회가 등록의 취소 또는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건의한 때</u> 〈신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한 경우 당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u>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u> 1. —————건축사업무신고 등을 한————— 2. ~ 7. (현행과 같음) 8.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등을————— 9. (현행과 같음) <u>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u> 〈삭제〉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②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문)—————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의 취소	1. —————건축사자격—————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2.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
제29조(등록의 말소)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등록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	건축사업무신고부—————신고사항—————
2. 3. (생략)	1.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제30조(보고·검사등) ①·②(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건축사사무소개설지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검사 등) ①·②(현행과 같음)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지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삭 제〉
②·③(생략)	제31조(건축사협회) ①—————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생략)	—————설립할 수 있다.
③ 건축사협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마다 건축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33조(회원)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①(현행과 같음)
① 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삭 제〉
② 건축사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33조(회원) ①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 및 준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소멸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삭 제〉
제34조(임원) ①~③(생략)	④ —————건축사자격이 취소 또는 소멸된 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 등 건축사업무신고가 말소된 자—————
④ 회장과 부회장의 취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임원) ①~③(현행과 같음)
	④ 건축사협회는 회장 또는 부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임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생 략)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6. 7. (생 략)	제39조(벌칙)————— 1. —————자격을 취득하거나————— 2. (현행과 같음) 3. ————— 자격증—————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5. —————건축사업무신고들————— 6. 7.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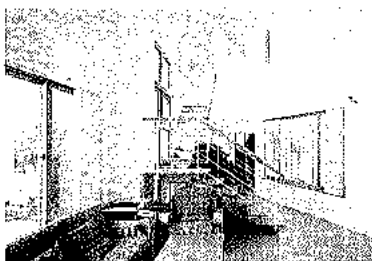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로 본다.

- ③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 ④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 ⑥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스틸하우스



국내 실험동

개요

스틸하우스는 주요 구조부재의 소재로 표면처리강판을 이용한 경량형강을 사용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로,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2×4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및 후주를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스틸하우스는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철강재 공업화 주택과는 달리 골조부재로 1mm전후의 표면처리강판을 사용하며 볼트나 용접을 사용하지 않고 태핑나사로 골조 부재를 접합한다는 점에서 철골조라기 보다는 목조에 가까운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2×4 시스템은 150년 역사를 가진 북미의 전통적인 목조주택으로 2"×4" 규격의 목재를 이용하여 벽, 바닥, 지붕의 구조체를 만들고 여기에 합판을 붙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이다.

특징

첫째, 내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경량이며 견고한 내진주택이다. 즉, 스틸하우스의 소재인 철은 고강도이고 지진 및 태풍에 강할 뿐 아니라 주로 자동차용 소재로 사용되는 아연도금냉연강판이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둘째, 설계의 자유도가 크다는 점이다. 즉 설계변경이 손쉽고 유연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개조 및 개축이 용이하다.

셋째, 시공성이 우수하고 특수한 장비가 불필요하다. 조립에 있어 모두 못과 나사대신에 나사와 전동공구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목조주택과 유사하게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치수의 목재보다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골조의 간격을 넓힐 수 있고 패널의 중량이 목조 2×4주택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다.

넷째, 철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사용한 목재는 직접 사람이 접촉하는 부분으로 한정시키고 구조재료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표면처리강판을 사용하므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사용소재 및 자재단면형상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소재는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한 판두께 1.0mm전후의 표면처리 강판이며, 강도등급 400~500N/mm² 급이 일반적이다.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구조용 부재는 기둥과 같은 수직부재로 사용되는 스타드(Stud), 벽 상·하의 수평부재로 사용되는 트랙(Track), 바닥이나 천장을 받치는 장선부재로 사용되는 조이스트(joist)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미국의 경우, 스틸하우스의 규격이나 설계법은 미국철강협회(AISI: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가 전미주택주택협회(NAHB: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의 협력을 얻어 작성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강재구락부에서 스틸하우스용 경량형강에 대한 규격(안)을 작성하고 있다.

조립 및 시공

주요 구조부재들은 각종 태핑나사에 의하여 접합되는데 접합하는 재료, 국부적인 하중조건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식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스틸하우스의 면재는 목조주택에 이용된 면재와 동일한 형태의 것(구조용 패널 등)을 태핑나사로 골조부재에 연결부착한다. 이때, 골조부재인 스타드, 조이스트, 트러스는 등간격으로 배치하여 구조용 합판을 대어서 면재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틸하우스에 사용되는 형강부재의 절단에 이용하는 공구에는 강판절단기(Shear Cutter), 전동톱(Chop Saw, Handy Saw), 금속절단용 가위 등이 있다.

각각의 공구는 다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여 이용하면 된다.

- 성형공장에서 미리 절단하는 경우
- 현장에서 절단하는 경우
- 현장에서의 세부적인 공정

강판절단기와 구멍뚫기 기구는 경량형강 성형시 롤성형라인의 최종위치에

설치되며 정확한 치수로 형강을 절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전동톱은 전동식 회전톱으로 현장에서의 절단에 사용되는데, 소음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스틸하우스 골조 구성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공법이 있다.

현장시공법

이 방식은 목구조와 철골구조에 모두 적용되는 현장조립 위주방식으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표준길이나 모듈로 절단하고, 현장에서는 부속부재를 가공한 후 조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로 중소기업체가 시공할 경우 사용되며, 대부분의 작업은 인력에 의한다.

패널공법

단지나 집합주택 등을 대형건설사에서 건설하는 경우, 지붕트러스 뿐만 아니라, 벽이나 바닥 등도 공장에서 미리 조립해 중장비를 이용해 단기간 내에 건설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같은 치수와 형상이 반복사용될 경우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 공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골조건립 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이 공법의 골조시공 소요시간은 현장시공법의 1/4정도에 불과하다.

국내현황

국내에서 스틸하우스는 1996년 초 POSCO에서 검토가 있는 후에 1996년 2월에 철강협회 내에 스틸하우스클럽이 결성되었다. 여기에 국내의 철강소재·가공·건설업체들이 각 분과를 결성하여 스틸하우스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선진국들의 현황

조사 및 모델 스틸하우스 7동(6동은 완전 주거용 주택, 1동은 지붕과 골조)건립을 서울, 포항, 광양에 추진하였다.

이 모델 스틸하우스의 건립으로 스틸하우스가 국내의 건축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일반인, 주택업자 및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포항제철에서는 포항의 신단지에 750여 세대의 스틸빌라건설을 추진하여 스틸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제도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강재이용기술센터 내에 50평형,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건설된 스틸하우스 실험동은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된 표면처리 경량형강에 의해 구조계산이 이루어졌으며, 벽체와 바닥 설계사양에는 기존 모델하우스에 대한 주거성능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이용한 다양한 사양이 적용되었다. 스틸하우스 설계를 위한 기준 확립, 각종 구조, 주거성능실험 이외에 시공재료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져, 스틸하우스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이 개발되어져 KS규격으로 제정되었고 구조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강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을 나타내는 허용하중표(Load Table)가 작성되었다. 또한 스틸하우스의 주요 구조자재인 접합철물과 스크류도 국내 규격이 개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건식공법의 스틸하우스에 이용되는 석고보드도 새롭게 개발되어 스틸하우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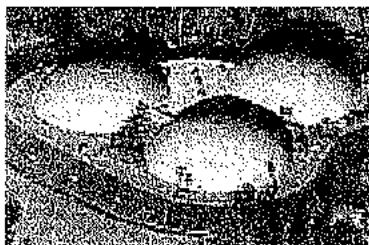


포항 모델 하우스



스틸하우스 외국 사례

모노돔



모노돔은 뉴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첨단 건축공법으로 기존의 건축개념을 뛰어넘은 새로운 공법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건축물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지을 수 있다.

- 안정성 : 철근 콘크리트 돔구조로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건물이다.
- 경제성 : 건축비용이 저렴하고 우수한 단열성의 우레탄 단열재와 열용량이 큰 콘크리트가 결합된 외부 단열구조로 에너지 비용이 혁신적으로 절감(기존 건물 에너지 소요비용의 25~50%)된다.
- 공사기간 : 주공정이 스프레이 작업으로 진행되어 공사기간이 짧고 에어돔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쇼트크리트로 시공된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부어서 시공하는 것 보다 약 2배의 강도를 나타낸다.
- 디자인 :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여 건물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을 수 있다.
- 용도 : 모노돔은 이와같은 특성으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 테마파크, 극장, 체육관(농구, 배구, 실내축구장등), 수영장, 교회, 실내 스케이트장, 학교, 카페, 곡물창고, 석탄창고, 비료창고, 저온창고, 냉동창고, 주택 등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11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98.11) 2백2십만9천8백59㎡ 보다 217.2%(4백8십만4백28) 증가한 7백1만2백8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월 누계 4천5백9십2만3천5㎡ 보다 28.9%(1천3백2십7만7천2백33) 증가한 5천9백2십만2백38㎡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0월분('99.10) 7백1십4만2천2백24㎡보다 1.8%(1십3만1천9백37) 감소한 7백1만2백87㎡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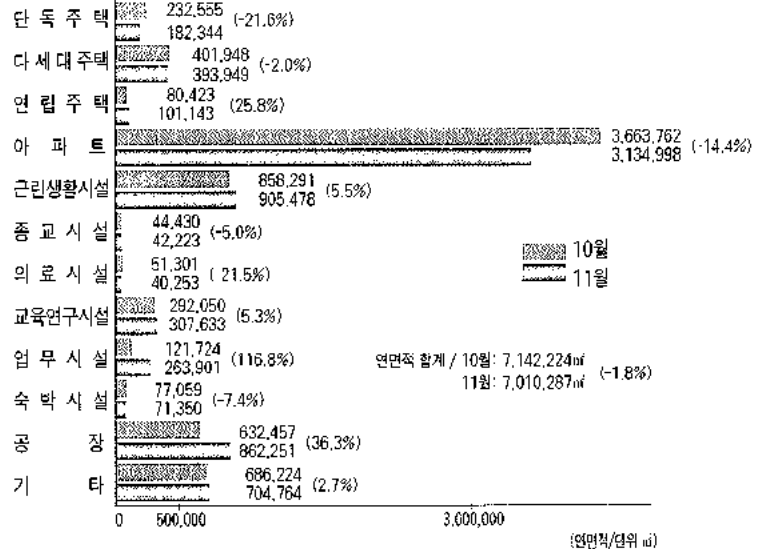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단위:㎡)

구분	1998년도	1999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071,582	2,719,817	1,648,235	153.8
부산	31,394	297,366	265,972	847.2
대구	92,835	120,639	27,804	29.9
인천	62,379	142,383	80,004	128.3
광주	47,757	300,692	252,935	529.6
울산	14,024	51,937	37,913	270.3
경기	340,598	1,798,057	1,457,459	427.9
충북	118,376	129,097	10,721	9.1
충남	69,373	125,626	56,253	81.1
전북	95,769	133,267	37,498	39.2
전남	60,308	90,341	30,033	49.8
경북	65,138	277,710	212,572	326.3
경남	67,054	583,723	516,669	770.5
제주	20,216	80,863	60,647	300.0
감소지역				
대전	94,160	53,122	(41,038)	-43.6
강원	(41,104)	105,647	146,751	-357.0
합 계	2,209,859	7,010,287	4,800,428	217.2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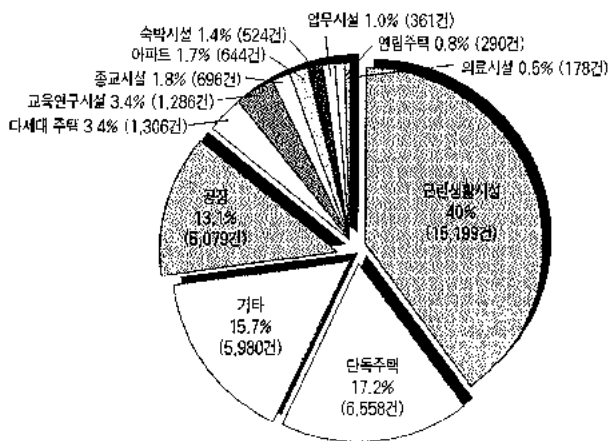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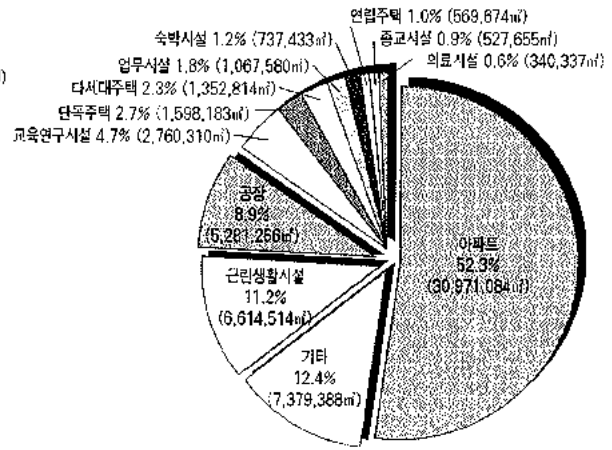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1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26	345	73,607	706	744	182,344	380	399	108,737	147.7	
다세대주택	33	39	23,184	218	242	393,949	185	203	370,785	1599.2	
연립주택	10	10	20,108	40	44	101,143	30	34	81,035	403.0	
아파트	27	56	758,329	92	266	3,134,998	65	210	2,376,669	313.4	
근린생활시설	884	1,632	261,423	1,635	1,725	905,478	751	93	644,055	246.4	
종교시설	49	53	46,913	58	64	42,223	9	11	(4,890)	-10.0	
의료시설	6	6	30,637	23	26	40,253	17	20	9,616	31.4	
교육연구시설	142	153	217,406	191	206	307,633	49	53	90,227	41.5	
업무시설	40	40	107,307	37	63	263,901	(3)	23	156,594	145.9	
숙박시설	25	26	75,318	61	63	71,350	36	37	(3,968)	-5.3	
공장	249	288	200,135	778	1,006	862,251	529	718	662,116	330.8	
기타	497	538	395,492	788	941	704,764	328	403	309,272	78.2	
합 계	2,251	3,186	2,209,859	4,627	5,390	7,010,287	2,376	2,204	4,800,428	217.2	()=미아나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11월누계)



건수 (총 38,101건)



연면적 (총 59,200,238㎡)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1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64	264	1,071,582	549	550	2,719,817	286	286	1,648,235	153.8		
부산	49	792	31,394	201	312	297,366	152	(480)	265,972	847.2		
대구	74	74	92,835	164	164	120,639	90	90	27,804	29.9		
인천	65	66	62,379	149	149	142,383	84	83	80,004	128.3		
광주	117	129	47,757	118	182	300,692	1	53	252,935	529.6		
대전	106	106	94,160	63	63	53,122	(43)	(43)	(41,038)	-43.6		
울산	52	55	14,021	86	86	51,937	34	31	37,913	270.3		
경기	487	568	340,598	1,410	1,688	1,798,057	923	1,120	1,457,459	427.9		
강원	139	137	(41,104)	198	219	105,647	59	82	146,751	-357.0		
충북	142	172	118,976	287	321	129,097	145	149	10,721	9.1		
충남	141	130	69,373	196	196	125,626	55	66	56,253	81.1		
전북	92	92	95,769	212	212	133,267	120	120	37,498	39.2		
전남	126	151	60,308	189	189	90,341	63	38	30,033	49.8		
경북	137	153	65,138	228	304	277,710	91	151	312,572	326.3		
경남	195	228	67,054	395	542	583,723	200	314	516,669	770.5		
제주	65	69	20,216	182	213	80,863	117	144	60,647	300.0		
합계	2,251	3,186	2,209,859	4,627	5,390	7,010,287	2,376	2,204	4,800,428	217.2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967	5,026	24,619,557	4,812	4,834	30,859,188	(155)	(192)	6,239,631	25.3		
부산	1,511	3,367	2,729,845	1,733	2,535	1,698,216	222	(832)	(1,031,629)	-37.8		
대구	1,074	1,074	890,182	1,813	1,813	1,845,091	739	739	954,909	107.3		
인천	1,315	1,332	2,017,552	1,277	1,318	2,489,269	(38)	(14)	41,717	23.4		
광주	1,050	1,289	810,400	1,323	1,663	1,706,978	273	374	896,578	110.6		
대전	836	836	705,040	948	948	594,663	112	112	(110,377)	-15.7		
울산	497	526	262,007	1,005	1,018	9,699,294	508	492	412,496	157.4		
경기	7,215	8,415	5,470,187	9,169	11,089	9,699,294	1,954	2,674	4,229,107	77.3		
강원	1,993	2,190	917,200	1,901	2,096	831,643	(92)	(94)	(85,557)	-9.3		
충북	1,854	2,266	1,976,417	2,486	2,821	1,383,328	632	555	(593,089)	-30.0		
충남	1,769	1,494	934,444	2,020	2,020	1,186,798	251	526	252,354	27.0		
전북	1,018	1,018	820,049	1,483	1,511	908,986	465	493	88,937	10.8		
전남	1,238	1,366	628,242	1,826	1,882	927,282	588	516	299,040	47.6		
경북	1,748	1,951	912,906	2,182	2,575	1,518,442	434	624	605,536	66.3		
경남	2,158	2,648	1,953,570	3,099	3,700	2,454,283	941	1,052	500,713	25.6		
제주	678	788	275,407	1,024	1,169	422,274	346	381	146,867	53.3		
합계	30,921	35,586	45,923,005	38,101	42,992	59,200,238	7,180	7,406	13,277,233	28.9	()=마이너스	